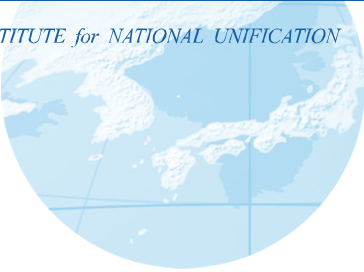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2호 (2014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2호 (2014년 3·4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3 March 2014

① 주차_03.01-03.02	1. 대내 동향 6 가. 경제 나. 군사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8
	3. 대남 동향 9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② 주차_03.03-03.09	1. 대내 동향 1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21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2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③ 주차_03.10-03.16	1. 대내 동향 32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43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④ 주차_03.17-03.23	1. 대내 동향 48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6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6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⑤ 주차_03.24-03.31	1. 대내 동향 70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79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85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인쇄: 2014년 5월 발행: 2014년 5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4 April 2014

❶ 주차_04.01-04.06	1. 대내 동향 9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04 3. 대남 동향 108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❷ 주차_04.07-04.13	1. 대내 동향 11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2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30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❸ 주차_04.14-04.20	1. 대내 동향 13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44 3. 대남 동향 147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❹ 주차_04.21-04.27	1. 대내 동향 154 가. 정치 나. 경제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64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70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04.28-04.30	1. 대내 동향 176 가. 정치 나. 경제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180 가. 일반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82 가. 정치군사 나. 경제사회문화
■ 3월 일지 / 188	
■ 4월 일지 / 190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01-03.02

3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경제
- 나. 군사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경제

- “유럽 연구단체, 北 토질개선 현장 점검”(3/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토질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인 영국에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 센터(CABI)가 1월 25일부터 3주간 관계자가 방북, 연구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농업생명과학센터(CABI)는 10년 전부터 북한 연구기관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곳으로, 이번 방북에서 평양농업대학과 농업과학원 등 평양과 황해도의 공동 연구 기관과 해충 퇴치 연구 결과를 적용해 작물을 시험 재배 중인 평양 인근 시범농장을 방문했으며, 올해 평안북도 신의주와 강원도 고산, 황해남도 해주 등 3개 지역으로 시범 재배 지역을 확대할 예정임.

기타 (대내 경제)

- 개성시에서 2.23 “도시거름 6,120여 톤을 농촌에 전달”과 ‘자강도 1월 공업총생산계획 108% 초과 달성 성과’ 보도(3.1,중앙방송)

나. 군사

기타 (대내 군사)

- 김정은의 식수절 지시 관철을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들의 꺾기모임, 3월 2일 ‘장정남’(연설)이 참가한 가운데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서 진행(3.2,중앙방송)
-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김평해, 곽범기, 로두철, 조연준 등이 참가

다. 사회·문화

● 중국 훈춘-북한 나선 국제우편통로 개설(3/1, 연변신문망)

- 중국의 두만강 유역 대북 교역 거점인 지린성 훈춘(琿春)시와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북·중 국제우편통로가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고 중국 매체들이 1일 전함.
- 연변신문망 등에 따르면 훈춘시우정국과 나선시체신운영국은 우편물 운송에 관한 협약을 맺고 오는 3일 훈춘-나선 국제우편통로를 정식 개통할 예정임.
- 양측은 시범적으로 2년간 매주 목요일에 2차례씩 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우편물 운송차량을 운행한 뒤 수요를 봐가며 차량 대수와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며, 이 통로를 통해 북한 나선시로 반출이 허용되는 물건은 국제적으로 우편물 형식으로 허용되는 서류와 소포 등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김정은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인민대학습당에 50여차에 걸쳐 2만1,770여부의 도서와 자료들(정치, 경제, 군사부문 등)을 보냈다”며 인민대학습당에 “도서·자료들, 정보원천이 풍부해지고 있다”고 선전(3.1, 중앙통신)
- 개건된 ‘메아리사격관’(사격장·활쏘기장·전자유희 오락시설들과 식당 등), 3.1 ‘봉사 시작 및 수많은 사람들 이용’ 선전(3.1, 중앙방송·중앙통신)

2 대외 관계

● 北 신문, 3·1절 맞아 ‘외세 배격’ 강조(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절을 맞아 1면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끝장내고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제목의 사설에서 “3·1 인민 봉기자들의 애국적 기개를 이어받아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반드시 성취할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이어 “북남관계 문제, 민족 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철저히 반대 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라며 “남조선 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함.
- 6면 ‘일본의 최악의 역사를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도 “지금 일본은 피로 얼룩진 과거 역사를 왜곡하면서 3·1 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비롯한 대중적 학살만행과 그 외의 모든 죄행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함.

● 北, 美 케리 장관 발언 비난…“북미 현안 안풀려”(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惡)’이라고 한 발언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대시하는 한 조미(북미)사이에는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풀릴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1월말 극비 북일접촉에 北 보위부인사 참석”(3/2, 산케이신문)

- 일본 정부가 부인해온 지난 1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일 간 극비접촉설이 사실이며, 당시 북한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일 보도함.
- 산케이는 북일 외교소식통을 인용,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1월 25~26일 하노이를 극비리에 방문, 북한 노동당 직속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와 회동했다고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외무성 대표단(단장 : 리길성 부상), 3.1 이란 방문 후 귀환(3.1,평양방송·중앙통신)
-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대표단, 1일 회담 개최지인 중국 라오닝성 선양(瀋陽)에 도착(3.1,연합뉴스)
- ‘온 겨레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으나 미국이 찬물을 끼얹으며 카-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였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반전 평화 수호 투쟁’ 선동(3.2,평양방송)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서해 평화수역되면 군사충돌 막을 수 있다”(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남공동선언 이행은 평화보장의 기본방도’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유일한 방도’라고 밝힘.
 - 신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방안이 담긴 10·4선언 대로만 하면 “서해 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조선 서해가 평화 수역으로 전환된다면 북남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단체, ‘3·1절 95주년’ 공동호소문 발표(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한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한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1일 호소문에서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전민족적 조국통일 운동을 촉구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기치 밑에 굳게 단합해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 민족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가자”라고 주장함.
 - 이어 “반목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 개선의 활로를 열어

“나가자”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전민족적 운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5개 업체 철수(3/2,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지금까지 우리 입주 기업 5곳이 현지 공장을 매각하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통일부 관계자는 2일 “가동 중단 기간에 해외에 별도의 공장을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업종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 실질적인 개성공단 생산액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역액은 지난 1월 기준 1억 6천 949만 달러로, 가동 중단 전인 지난해 1월(1억 8천63만 달러)보다 6.2% 감소함.

■ **기타 (대남)**

- ‘남북 공동선언은 평화수호선언’이라며 “10·4선언대로만 하면 조선 서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남북 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 역설(3.1,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南·北 단체(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군민족통일협의회), 「3·1절」 95주년 즈음 ‘남북 공동호소문’을 통해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단결하여 일본의 과거청산과 조국통일을 이룩하자’고 호소(3.1, 중앙통신·평양방송)

03.03-03.09

3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전자설비 생산공장 현지지도(3/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약전(弱電)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공장의 생산 상황을 점검하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현실에서 큰 은(보람있는 결과)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요도 대단히 높다”라고 치하하고 “지난 기간 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내고 있는 데 있다”라고 강조함.

- **北, 대의원 선거 앞두고 선전·선동 강화(3/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전국 각지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과 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여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조직적으로 벌여) 온 나라가 선거 분위기로 들끓게 하고 있다”고 전함.
 - 방송은 “일꾼들과 선동원들은 공장과 건설장, 협동벌(농촌) 가두 인민반들에서 선전선동 사업을 참신하게 전개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선거자들에게 대의원 선거의 의의와 공화국 정권의 위력, 조선의 선거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해 해설해주고 있다”고 소개함.

- **北신문, 선전간부 독려…“김정은 받들고 대중과 함께”(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제시한 구호인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 나팔수가 되자’를 제목으로 글을 게재함.
 - 신문은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우리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 나팔수처럼 원수님(김정은)의 사상과 의도를 받드는 맨 앞장에 자기 위치를 확고히 정하고 당 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선전자, 관철자로 삶을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판문점 시찰 2주년 맞아 ‘통일의지’ 부각(3/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최전방 초소에 새겨진 위대한 애국 의지는 머지않아 통일을 안아올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2012년 3월 3일 김 제1위원장의 판문점 시찰을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실 철석의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오늘날 “조국통일 위업이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김 제1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굳게 다지신 철석의 의지의 빛나는 실현”이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관철하겠다는 신념을 지닌 김 제1위원장이 있어 “조국통일의 아침은 머지않아 밝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강력한 자위력이 한반도에 평화 보장”(3/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5일 ‘강력한 자위적 힘은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강력한 자위적 힘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수호를 위한 보검”이라며 “정치적 독립도 경제적 자립도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보장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라크 사태를 예로 들면서 “미국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 무력침공으로 이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어 놓았다”라며 “총대를 쥘버리면(함부로 내버리면) 순식간에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고 만다”라고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침략 무력을 계속 증강배치하는 것은 바로 제2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라며 “국방력 강화는 나라와 민족의 최대 중대사”이며,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있다”라고 주장함.

- **北 최룡해, 지난달 말 김정은 밀착수행 확인(3/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4년 1~2월)’라는 제목의 새로 제작한 기록영화를 방영하면서 최룡해가 지난달 김정은 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내보냄.
 - 김 제1위원장의 포사격 경기대회 참관 장면에서는 최룡해 외에도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의 모습이 확인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등록 완료(3/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에 나설 후보 추천·등록을 완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 중앙선거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보도’에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추천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들을 해당 구 선거위원회들에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로 정확히 등록하였음을 보도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시대 첫 대의원선거 임박…분위기 ‘후끈’(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애국헌신으로 공화국의 위력 떨치시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인민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6일 ‘참다운 인민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공지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부대 비행훈련 지도…최룡해 수행(3/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박정천 포병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홍영철·마원춘 당 부부장이 수행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 공시(3/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각급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분구 선거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을 공시했다”라고 전함.

- **조선신보 “총련 간부 5명 北 대의원 후보로 선출”(3/7, 조선신보)**
 - 북한이 허종만 의장 등 5명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를 오는 9일 실시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에서 후보로 선출했다고 조선신보가 7일 보도함.
 - 신문은 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 량수정 재일본조선인상공연합회 고문, 장병태 조선대학교 학장, 강추련 재일본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상임위원장이 지난 4일 제13기 대의원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힘.

- **北, 여성의 날 맞아 김정은에 충성 강조(3/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8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3·8 국제부녀절’ 104주년을 기념한 중앙보고회를 열었다고 전함.
 - 보고회에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영수 당 부장 등이 참석함.
 - 노동신문도 1면 사설 ‘최후 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조선여성의 혁명적 기개를 힘있게 떨치자’를 통해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제일 생명이며 조선여성들의 사상정신적 품모의 근본핵”이라며 김정은은 제1위원장을 받들 것을 주장함.

- **北 최고인민회의의 선거 마무리…권력집단 변화 주목(3/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9일 “오후 6시 현재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먼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들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김경옥 당 제1부부장, 황병서 당 부부장과 친여동생 김여정을 대동하고 고급 정치장교 양성기관인 김일성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 선거구 제43호 분구 투표소에서 투표함.

■ 김정은동향

- 3/3,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약전기공공장 현지지도(3.3,중앙통신·중앙방송)
- 강관일·황병서·홍영철(黨 부부장들) 동행

- 3/7,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흠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및 군부대 시찰(3.7,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윤동현, 리병철, 박정천, 한광상,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동행
- 3/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구 제43호분구 선거장에서 투표를 하고 대학을 시찰(3.9, 중앙방송·중앙통신)
 - 최룡해(총정치국장), 김경옥, 황병서, 김여정 동행
 - 김정은은 인민군 제855군부대 부대장 '김광혁'에게 투표를 하고 후보자와 담화

기타 (대내 정치)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들과 선거위원회 선거 선전사업으로 온 나라가 선거분위기로 들끓고 있다'며 '각지의 선거 활동' 보도(3.3, 중앙통신)
- 黨 선전일꾼들은 '김정일이 제시한 구호(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 당 선전일꾼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가 되자)를 틀어쥐고 항일유격대의 정치일꾼, 선전일꾼들처럼 김정은의 사상과 영도의 기관차, 척후병 역할수행'을 주문(3.4, 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분구선거위원회들,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 공시 및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선거장 설치(3.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3월 6일 이집트 신임 내각 수상에게 축전(3.8,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의춘(외무상), 3월 6일 재임된 이집트 외무상에게 축전(3.8, 중앙통신)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일을 맞아 '이번 선거는 우리(北)의 최고주권기관을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꾸리고 공화국 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며 '모든 선거자들은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3.9, 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나. 경제

- **세계식량계획 “北 2월 배급량 최근 1년 중 최고”(3/4, 미국의소리(VOA))**
 - 지난달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최근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북한 당국이 지난 2월 주민 한 명당 하루 420g의 식량을 분배했다고 밝힘.
 - 한편, 슈테겐 소장은 스위스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지원받은 분유 400t과 식용유 833t, 옥수수 1천80t, 쌀 200t이 3월 말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제적십자자연맹, 작년 대북사업 ‘보건’ 분야 집중”(3/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지난해 대북사업에서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IFRC는 3일 내놓은 ‘2013년 3·4분기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북 사업 예산 664만 달러(약 71억원) 중 36%인 240만 달러(약 25억7천만원)를 보건 분야에 사용,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힘.

● 北 ‘토지개혁’ 단행 68주년 맞아 농업성과 독려(3/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1면에 실은 사설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에서 토지개혁 조치에 대해 “농민들의 처지와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우리나라 토지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2면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내세워 주시여’라는 글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한 과정을 소개하고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과 천민군민의 투쟁으로 이 땅 위에 강성국가의 새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역설함.

● 몽골, 북한 나선특구에 석탄 2만t 수출(3/6, 몬차메)

- 6일(현지시간) 몽골 통신사 몬차메에 따르면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 ‘트랜짓 몽골리아(Transit Mongolia)’에서 북한과 몽골 사이에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짐.
- 몽골-러시아 합작회사인 ‘울란바타르 철도’의 에르데네불간 부회장은 6일 몽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3분기부터 북한 나선특구에 석탄 2만t을 시험적으로 수출하게 됐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함흥철도국, 2.8비날론연합기업소·흥남비료연합기업소 등에 석탄 집중 수송(3.3, 중앙방송)
- 농업부문의 올해 농사차비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10% 및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선철 생산 계획 149% 등 건설·금속·화학·철도운수·석탄·임업부문 등 ‘인민경제 각 부문의 2월 계획 성과적 완수’ 보도(3.4, 평양방송·중앙방송)

- ‘토지개혁법령’ 발표 68돌 즈음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만풍년의 새 역사를 펼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나가려는 것이 당의 의도’라며 ‘전당, 전국, 전민의 농촌지원으로 만풍년의 노랫소리 울려퍼지게 하자’고 독려(3.5.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만경대구역에 ‘버섯공장이 건설’되어 대대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3.5.중앙방송)

다. 군사

- 北, 동해안서 탄도미사일 또 발사…사거리 500km이상(3/3, 연합뉴스)
 -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발사 거리는 500여km였다”고 밝힘.
 -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정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낙하궤적을 분석한 결과 낙하지점이 모두 일본 쪽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발 모두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난 일본 JADIZ 내에 낙하했다”고 밝힘.
- “北, 작년 무기 수출액 1천만弗”(3/4, 미국의소리(VOA))
 - 지난해 북한의 방위장비 수출액이 1천100만 달러(약 117억8천만원) 규모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적인 군사 전문 컨설팅업체 IHS를 인용해 4일 보도함.
 - 또한 지난해 북한의 무기 수입액은 6천300만 달러(약 674억5천만원)로 집계됐다고 전함.
- 北 “로켓 발사는 자위적 행동…‘도발’ 아니다”(3/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일 발표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달 21일~이달 4일 ‘로켓 발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우리 혁명무력의 모든 군사행동은 예외 없이 우리의 영공, 우리의 영해, 우리의 영토를 위주로 하여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의의 자위적 행동”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담화는 미국이 이번 훈련을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비판한 데 대해서는 “당치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로켓 발사를 구실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함.

● “北, 정밀도 향상 KN-02 미사일 100여기 보유”(3/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정밀도가 향상된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00여기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군 당국은 ‘KN-02 미사일에 대한 위협평가’를 통해 북한이 KN-02 미사일의 최대사거리를 170km까지로 늘렸으며 미사일도 10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최근 분석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5일 밝힘.
- 이 소식통은 “KN-02 최대사거리가 120km에서 170km로 늘어났고 차량에 장착하는 미사일 발사대(TEL)도 30여대를 실전 배치했다”면서 “실전 배치된 발사대 규모를 고려하면 유도탄(미사일)은 100여기에 이른다”고 전함.
- 이어 “KN-02는 북한이 처음으로 고체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한 미사일로 발사 준비와 재장전 시간이 짧다”면서 “전방으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평택~원주 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고아 보호정책 본격화되나…입양 독려도(3/3,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의 밝은 미래’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아이들은 귀중한 보배이고 희망과 미래의 전부라고 하시며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각별한 사랑을 기울이고 계신다”며 김 제1위원장의 ‘고아 사랑’을 부각함.
- 또한 조선신보는 3일 김 제1위원장의 보육원 방문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보육 및 교육교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함.

● **북한도 봄철 황사 대책 강구(3/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북한 기상수문국이 이달부터 5월 말 사이 2~3차례의 황사를 예고했다며 이에 따라 황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시작(3/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면서 은정과학지구에 과학자 주택단지를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그 이름을 ‘위성과학자거리’로 직접 지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또 위성과학자거리를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까지 완공하라는 ‘전투명령’을 줬다고 통신은 덧붙임.

● **北, 대북농업지원 大母 김필주에 명예박사 학위(3/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지난 20여 년간 대북 농업지원 활동을 해온 재미동포 농학자 김필주(77)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생명실험개발연구원 원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김일성대·김책공대 마크에 영문 표기(3/1; 3/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김일성대의 마크와 깃발이 새로 제정됐다고 “마크 밑부분에는 지식의 상징인 펜촉을 형상화했으며 대학 명칭을 영어 대문자로 새겼다”고 밝힘.
- 앞서 조선신보는 지난 1일 김책공대가 마크를 새로 만든 사실을 전하며 마크에 ‘인공지구위성’을 형상화하고 대학 명칭을 영문으로 새겼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김지향·리금희 선수, ‘대만 국제마라톤경기대회’ 여자 마라톤경기에서 1위와 3위를 수상하고 3월 3일 귀환(3.3, 중앙통신)
- 북한 여자 역도 선수 리성금이 4일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남녀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 수립(3.5, 중앙통신)
- 北, 3월 3일 제29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3.3~7)’ 개막(3.5, 중앙통신)
-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회안탄광병원, 탄부들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진행(3.5, 평양방송)
-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의 정신을 출판보도선전에 구현하기 위한 연구토론회, 3월 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7, 중앙통신)

-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리영식(노동신문사 책임주필), 황영보(조선중앙방송위원장), 리영철(노동당출판사 사장), 정리종(민주조선사 책임주필), 최순철(청년전위신문사 책임주필) 등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참가
- 제29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 3.3~7 진행(3.7.중앙통신·평양방송)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신문, ‘키리졸브’ 겨냥 美 비난…“남북대결 책동”(3/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반외세 자주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는 논설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면서 군사적 도발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난 2월 초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과 ‘키 리졸브 연습’을 대표적 사례로 꼽음.
 - 논설은 또 남북대결은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의 산물이라며 “지금 미국은 북과 남이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3일 ‘핵위협과 도발의 장본인’이라는 글에서도 B-52 전략폭격기 출격과 관련해 “미국은 반공화국 핵소동으로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기회를 뒤엎으려고 꾀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일본, 오늘 1년7개월 만에 적십자회담(3/3, 교도통신)**
 -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 외교 당국자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선양 발로 보도함.
 - 양측은 북한 내 일본인 유골 반환과 일본인 유족의 북한 내 묘소 참배 허용 문제를 주 의제로 협의하지만, 북일 정부 당국자가 양측 대표단에 포함된 만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일 국교정상화 등을 의제로 하는 정부 간 공식 회담의 재개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함.

- 日, “북일 비공식협의를 납치문제 제기”(3/4, 산케이신문)
 - 일본이 3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열린 북일 적십자회담을 계기로 가진 북한과의 당국자 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4일 보도함.

- 北신문, 日 ‘고노담화 재검토’ 비난…“성범죄 부정”(3/4,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4일 일본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인간으로서 도덕적 체면을 쥐 버리고(함부로 버리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4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일본 반동들은 최근 고노 담화의 내용을 뒤집음으로써 일본군 성 노예 범죄를 역사의 흑막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北매체, 美 핵잠수함 부산 입항 비난…“핵전쟁 책동”(3/4,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
 - 우리민족끼리는 4일 논평에서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은 “북침 전쟁 소동이 이미 위험 단계를 넘어서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 공갈이자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강조함.
 - 노동신문도 4일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미 핵잠수함이 동원된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통신, 유엔보고서 또 비난…“미국이 인권침해국”(3/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달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거듭 비난하며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100% 날조된 것인데다가 그것을 꾸며낸 나라들부터가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안고 있는

인권의 최후진국들”이라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고 밝힘.

● **北 박봉주, 中 ‘쿤밍테러’에 위로 전문(3/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4일 중국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에서 최근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신문, 한미군사훈련 거듭 비난…“美는 철천지원수”(3/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FE) 훈련이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거듭 비난하면서 미국에 훈련 중단을 요구함.
- 신문은 ‘미제원수들에 대한 적개심 하늘땅을 진감한다’라는 제목으로 핵잠수함 입항에 분개하는 각계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미제 침략선들이 다시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 기어들지 못하게 모조리 수장시켜버리고야 말 것” 등의 발언을 전함.

● **北 “美, 세계 최대 인권유린국” 연일 집중 공세(3/6,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6일 ‘이란 외무성,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규탄 배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 외무성이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자체가 수많은 인권유린 행위를 감행”했으며, “미국은 인권 문제를 두고 다른 나라들에 설교할 자격도 없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 “북일 당국회담 개최, 日 태도에 달려”(3/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지속적인 대화의 틀> 마련할 기회/정부 당국자가 동석한 조일 적십자회담’이라는 글에서 이번 적십자회담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힘.
- 조선신보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발표된 ‘평양선언’에 일본인 유골문제가 상정됐지만, 그 후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평양선언에 기초해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풀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조선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함.

● **北 노동신문, 미국 ‘승냥이’에 비유해 맹비난(3/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2면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적 훈련”이라고 주장한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에 대한 각계 반응을 소개할 때 “승냥이를 길들인 조교사는 없다”, “미제승냥이는 오직 총대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을 붙이는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승냥이에 빗댄.

● **北, 美의 대남 무기수출 비난…“한반도 평화 파괴”(3/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1억 2천300만 달러(약 1천300억원)의 함선용 자동포사격장치를 비롯한 첨단 군사장비의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기 판매는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지속시켜 전략적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의 ‘불순한 기도’라고 비난함.

● **北, 케리 美 장관 연일 맹비난…“악의 소굴은 미국”(3/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악의 화신들이 악 타령을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을 악으로 표현한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 “대국의 외교수장으로 자처하는 자의 언행치고는 너무나도 저급하다”라고 지적함.

● **유엔, 北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3/8,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또다시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함.
- FAO는 7일 발표한 ‘2014년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국가 33개에 포함했다고 RFA는 전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내주 北에 구제역 실사팀 파견(3/8,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다음 주 북한의 구제역 피해지역에 실사팀을 파견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 RFA에 의하면 FAO 관계자는 북한의 구제역 방역 및 퇴치 지원 요청과

관련해 “다음 주 북한에 보낼 실사팀의 구성을 마쳤다”며 “실사팀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자 수속 절차를 밟았다”고 밝힘.

● “유엔대북제재위, 이달 하순 北 미사일 발사 논의”(3/8, 미국의소리(VO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3월 하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함.
- VOA에 의하면 유엔 소식통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오는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외교적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이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힘.

● 北 추정 유조선, 리비아 폭격경고 불구 선적 강행(3/9, 로이터통신)

- 북한 인공기를 달고 리비아 반군이 장악한 항구에 선적한 유조선이 리비아 정부의 폭격 경고에도 8일(현지시간) 석유 선적을 강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9일 보도함.
- 통신은 리비아 국영석유공사(NOC) 대변인 등을 인용, ‘모닝 글로리’라는 이름의 유조선이 8일(현지시간) 밤늦게 석유 선적을 시작했다고 전하면서, 이곳을 장악한 반군 세력은 이번 선적이 자신들의 첫 석유 수출인 만큼 정부 경고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고 전함.

■ 기타 (대외 일반)

- 北, “관광객으로 입국(2.18)하여 반공화국 종교모략책동을 감행한 호주인 ‘존 쇼트’를 단속,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며 ‘공화국의 관대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추방하기로 하였다’고 ‘추방 결정’ 보도(3.3, 중앙통신)
- 日 아베 총리의 발언(北의 위협을 대비해 미사일방위체계 수립과 집단적자위권행사 필요) 관련 “우리(北)의 ‘위협’을 여론화하여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술책”이며 “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 속심”이라고 비난(3.3, 중앙통신·평양방송·노동신문)
- 김영일(黨 비서), 3.4 방북 중인 유럽의 여러 정당출신 정치인 대표단(단장 :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담화(3.4, 중앙통신·평양방송)
 - 박근광(黨 부부장) 및 ‘프란츠 폰 다니켄(스위스 외무성 前 국무비서)’ 등 참가
- 美 해군 군함에 ‘레이저 포’ 실전배치 계획 등을 전하며 ‘미국의 전쟁장비 개발 책동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부채질하고 국제정세를 긴장시키는 반평화적 행위’라고 비난(3.4,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에 의해 駐태국 北대사에 ‘문성모’ 임명(3.5,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주한미군 무력을 제외(2.26 美 국방성 부장관대리의 발언)'한 해외 주둔 미군무력의 감축'을 발표한 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대조선 지배전략을 실현하려는 흥심에서였다"고 비난(3.5, 평양방송)
- 강석주(내각 부총리), 3월 6일 유럽의 여러 정당 출신 정치인대표단(단장: 조나단 포웰 국제중재기구 최고집행관)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3.6, 중앙통신)
-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3.7 평양 도착(3.7, 중앙통신·평양방송)
- 미국 등 국가들의 최근 '北 미사일발사' 지적(저강도 도발·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 등)에 대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3.7,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의 방한 중 발언(北 인권문제, 제재 등)에 대해 '北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더욱 여론화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며 '부시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수'라고 비난(3.9,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일본의 '과거사 부정·왜곡'을 지적하고 "반인륜적 범죄에는 절대로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사죄·배상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3.9,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6자회담(북핵)

●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 방북(3/7,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의 북핵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가 7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또 통신은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연방 외무성 순회대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로그비노프 대사의 방북 목적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억류 호주 선교사 추방 결정…“범죄 인정해 용서”(3/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 쇼트(75) 씨를 추방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2월 18일 관광객으로 입국했던 쇼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고 억류 이유를 밝힘.
 - 이어 쇼트는 “이번 행위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절대적 신뢰심을 심히 모독한 범죄이며 종교를 몰래 유포한 것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공화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했으며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를 간청했다”고 말함.

- **北, 방사포 ‘무력시위’…오늘만 총 7발 발사(3/4, 연합뉴스)**
 - 북한이 4일 오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4일 “북한은 오늘 오후 4시17분부터 5시7분까지 원산 인근 호도반도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신형 방사포 추정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힘.
 - 북한은 또한 4일 오전 6시께는 24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뉴스가 전함.

- **정부, 北에 ‘12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3/5, 연합뉴스)**
 - 정부는 5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협의할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12일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박 부대변인은 “우리측 제안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산의 한을 풀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대통령의 3·1절 기념

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북측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고려해 우리측의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北 “환경.분위기 조성안됐다”…적십자 실무접촉 거부(3/6, 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6일 오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에서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함.

● 靑 “표현자유 법적근거없이 제한못해” 北에 답신(3/6, 연합뉴스)

- 청와대는 6일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는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과 관련,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답신을 보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함.

● 정부, 北에 “적십자 실무접촉 호응촉구” 통지문 발송(3/7, 연합뉴스)

- 정부는 7일 대한적십자 총재 명의의 통지문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측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북측이 우리측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또 “그동안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간에 논의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 2·5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이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나. 경제·사회·문화

● 개성공단, 가동중단 전 상태 회복(3/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개성공단의 지난해 12월 생산액은 3천529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3천642만 달러의 94%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고 보도함.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도 5만2천여명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인 지난해 3월의 5만3천여명 수준을 회복했으며, 3월 6일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사 가운데 1곳을 제외한 122곳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이산가족 상봉자 내세워 ‘南선물 갈취설’ 반박(3/8~9,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9일 북한이 지난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을 내세워 이번 행사에 관한 탈북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함.
-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쪽 이산가족 김모 씨는 북한 당국이 행사 직후 북쪽 참가자들에게 사상교육을 하고 남쪽 가족들이 전달한 선물을 빼앗았다는 설에 대해 “정말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우리민족끼리’에 밝힘.
- 앞서 8일에는 상봉 행사에 참가한 북쪽 이산가족인 또다른 김모 씨가 딸과 함께 ‘우리민족끼리 TV’에 출연해 북한 당국이 선물을 빼앗았다는 설에 대해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부인함.

■ 기타 (대남)

- ‘민족문제를 외부에 들고나가 청탁하는 방법으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없고 동족 간에 불신과 대결만을 증대시킬 뿐’이라며 ‘온 겨레가 민족대단결 5대방침에서 제시된 대로 단합의 가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해 애국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자’고 선동(3.5,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민족대단결 5대 방침 : △민족자주의 원칙 견지 △애국애족의 기치 밑에 단결 △남북관계 개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 △온민족이 서로 적극 대화하고 연대·연합 강화
- ‘민족문제·통일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해 우리민족끼리 입장 견지’ 지속 강조와 ‘온 겨레의 외세배격,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조국통일 투쟁’ 선동(3.7, 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3.10-03.16

3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첫 선출(3/10, 조선중앙통신)**
 - 중앙선거위원회는 10일 발표한 ‘보도’에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의 전체 선거자가 전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100% 찬성투표를 했으며 “김정은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셨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김정은, 대의원 당선 후 첫 공개활동…軍 공연 관람(3/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에서 당선된 제567부대, 제324부대, 제233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함.
 - 공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함께 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대의원 발표…신실세 대거 진입(3/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중앙선거위원회는 11일 정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국적으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가해 해당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100% 찬성투표했다”며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687명의 명단을 공개함.
 - 김정은 체제에서 신진 세력으로 떠오른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조연준·최휘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이 대의원에 새로 뽑힘.
 - 김경희 당비서, 감금설이 나왔던 최룡해 군 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리영길 총참모

- 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 고위인물들은 12기에 이어 이번에도 대의원이 됨.
- 대외 부문에서는 지재룡 주중 대사와 자성남 유엔 대사,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수석대표를 맡았던 원동연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장관급회담 북측 수석대표였던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은 이번에 새로 대의원이 됐고 박의춘 외무상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등은 연임함.
 - 문경덕 당비서와 로성실 전 조선민주여성동맹 위원장 등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리영수 당 부장, 박명철 전 체육상 등 대부분 인사는 대의원이 됨.
 - 이밖에 현영철 전 총참모장, 현철해 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재경 전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명국 전 작전국장 등 은퇴한 군 원로그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넷째 부인인 김옥의 아버지 김효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도 대의원에서 빠짐.

● 北 ‘김일성 의형제’ 김일 부각…“수령 용위 본보기”(3/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4면의 3분의 2를 할애해 실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충정으로 받든 열혈의 혁명투사’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평생을 충성한 김일의 삶을 자세히 소개함.
- 노동신문은 김 주석 유일영도체계 확립의 중요한 계기였던 1956년 8월 종파투쟁 과정에서 김일이 반종파분자들과 투쟁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당의 유일영도체계를 세우는 오늘의 투쟁에서 김일 동지의 일생은 우리 인민이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본보기”라고 강조함.

● 北 김정은, 군사학교 사격경기 참관…연일 軍 행보(3/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사격경기 참관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함께 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황병서·마원춘 당 부부장을 대동하고 리모델링 중인 중앙동 물원을 둘러봤다고 전함.

- **北, 김정은 대의원 첫 선출 계기로 연일 ‘충성’ 강조(3/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책공업대 정보과학기술대학 연구사들을 인용해 “김정은 원수님을 대의원으로 추대한 것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 중심,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라고 주장함.
 - 특히 중앙통신은 이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김 제1위원장에게 축하문을 보냈으며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

- **北 신문 “대의원 선거, 김정은 절대 신뢰심의 분출”(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추대한 것은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
 - 신문은 13일 ‘우리 공화국 정권의 필승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나가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100% 찬성률로 선출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전체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 지지와 신뢰심의 분출”이라고 주장함.

- **北, 연일 새 ‘혁명전적지’ 띄워 ‘혁명전통’ 강조(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2면의 3분의 2를 할애해 상산 혁명전적지 방문기사와 사진을 싣고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에는 수령 결사옹위, 혁명적 신념 고수의 구호문헌이 유달리 많다”고 밝힘.
 - 신문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화는 항일투쟁 시기 수령 결사옹위를 위한 투쟁의 종자이며 핵이었다”라며 “우리 혁명사의 첫 연대를 수령 결사옹위로 수놓은 혁명선열들의 정신이 구호문헌들에 살아있다”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3/11,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에 당선된 인민군 제567·제324·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 관람 및 창작가·예술인들에게 ‘특별 감사’ 전달(3.11,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룡해, 장정남, 서흥찬, 김수길, 조경철, 황병서 등 관람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2,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영철, 조경철, 황병서 등 동행
- 3/12,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중앙동물원’ 방문(3.12,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 리재일, 황병서, 마원춘 동행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혁명열사) 사망(1984.3.9) 30주년 중앙추모회, 3.10 청년중앙화관에서 김기남(추모사)·양형섭·김평해·김용진·김영대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0,중앙방송·평양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함경북도 송배전부 부지배인 ‘김금석’ 등)에게 감사 전달(3.13,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3.9)는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한 대정 치축전 이었다’며 尙民은 “오늘의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고 독려(3.13,중앙방송·노동신문·중앙통신)
- ‘수령의 혁명사상 학습은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 위업 실현의 첫 공정이고 천만군민의 정신력 발동의 선결조건’이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데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존엄과 영광, 강성변영이 있다’고 주장(3.14,중앙통신·노동신문)
- “노동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해 주신 최대의 유산”이라고 ‘김일성-김정일 업적’을 칭송하며 ‘당의 통일단결이야말로 조선의 미래를 담보하는 승리의 기치’라고 강조(3.15,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 미얀마·시리아·우간다 대통령의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2주년 즈음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3.16,중앙통신)

나. 경제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北에 밀가루·콩가루 200t 지원(3/11, 연합뉴스)**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의 영양 지원을 위해 밀가루·영양콩가루 200t을 지원한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지원물자는 북한 남포시 대안군 지역 탁아소·육아원·학교의 영유아·아동과 임신부·산모를 중심으로 분배될 예정이며, 지원량은 북한의 1일 공급량 기준으로 약 10일치에 해당한다고 뉴스는 전함.

- 북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332개 아동 시설 2만3천633명의 아동과 2만9천 616명의 임산부 등 총 5만3천여명의 취약계층에게 지원물자를 분배하는 내용의 사전분배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어린이재단은 다음달 북한을 직접 방문해 해당 지역의 유치원·유아원 등을 돌며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됐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관리 “홍콩 기업과 신의주 개발회사 설립”(3/12, 연합뉴스; 금수강산)

- 연합뉴스가 12일 입수한 북한의 대외용 홍보잡지 ‘금수강산’ 3월호는 리철석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부위원장의 인터뷰를 실고 북한이 나선 등의 경제특구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 중이라고 강조함.
- 리 부위원장은 특히 서부국경 관문도시인 신의주가 과거 지리적 장점으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며 “현재 개발을 위한 신의주대중화개발합영총회사가 설립돼 남 먼저 차지한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北, 신의주서 외국인 숙박관광 허가”(3/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중국과 국경지역인 신의주에 대한 외국인의 숙박 관광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전함.
-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이 방송에서 외국인이 신의주에서 숙박관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관광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의 민속 활동과 어린이 공연 등을 즐기고 의주혁명박물관, 김일성동상, 압록강 등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전함.

● 중국 옌볜 관광업계, 북한관광 활성화 모색(3/14, 연합뉴스)

- 북한과 접경한 중국 지린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관광업계가 올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나선특구 일대를 관광하는 1박2일 상품의 경우 지난해까지 8명 이상이 모여야 출발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말부터는 가이드와 동행하는 조건으로 개별관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올해 나진항~금강산 해상공랑코스에는 북한 선박이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훈춘에서 출발하는 코스 이외에 허룡(和龍)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새 코스도 개통할 것으로 보이며, 다음 달에는 옌지(延吉)와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운항을 시작해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4~5일짜리 관광상품을 판매할 계획임.

● **美 민간단체, 북한에 우물파기 장비·의약품 지원(3/14, 미국의소리(VOA))**

-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북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온 미 민간단체 ‘웰스프링’은 금주 초 시추기계를 장착한 중장비용 대형트럭을 북한에 보냄.
- 웰스프링의 제임스 린튼 대표는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을 방문해 지금까지 200여 개의 우물파기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 북한의 12개 시·도에 시추장비를 한대씩 보내 전국적으로 1만여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또 다른 미국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도 최근 북한에 37만 달러(약 3억9천만원) 상당의 소아용 영양보조제와 의약품, 의료기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전국농업부문 분조장대회(2.6-7)를 계기로 평양시 등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과학농사, 집약농사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선전(3.10, 중앙통신)
-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금속분말주사 성형기술이 금속가공분야(가공품의 초정밀도 보장→각종 소형차차 등 제작)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고 ‘가공방식, 원가절감, 생산성’ 등 소개 선전(3.13, 중앙방송)
- “현대적인 축산기지를 사이에 2013년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3.13 청년중앙회관에서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4, 중앙방송)
- 北 각지 농촌들, ‘전국적으로 4만여 정보의 냉습지가 개량됐다’고 소개(3.14, 중앙방송)
- 성·중앙기관들, 3월 1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파철 집중수송(3.15, 평양방송)
-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해 유기농법 및 선진영농 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유기농법 장려를 위한 과업’으로 ‘△유기질비료(흙보산비료 등) 증산, △고리형 순환생산체계 확립, △유기농법 도입성과 확대’ 강조(3.16, 중앙통신·노동신문)

다. 군사

● 北, 동해로 단거리 로켓 25발 잇따라 발사(3/16, 연합뉴스)

- 북한이 16일 오후 동해 상으로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 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이 로켓들은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 발사됐다”면서 “발사체의 사거리는 70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함.
- 6시20분부터 10분간 10발, 8시3분부터 5분간 8발, 9시28분부터 4분간 7발이 각각 발사됐으며, 로켓 발사 장소는 북한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사거리가 70km 내외여서 단거리 로켓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프로그 로켓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함.

라. 사회·문화

● 北, 1차 의료기관 정상화 주력…원격진료도 활성화(3/13,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

- 김정은 체제 들어 유선중앙연구소(유방암센터),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문수기능회복원 등 의료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차 진료기관인 진료소를 정상화하는데도 힘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함.
- RFA는 13일 북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농촌 진료소들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진료소에 가면 고려약(한약)은 무료로 처방해준다”고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3월 중순~4월 하순) 축구 1급 1차 연맹전(1급 남·여 축구 15·14개팀 참가), 3.10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3.10, 중앙통신)
- 림은심·김효심 선수, '2014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역도선수권대회(3.10, 태국) 청년 여자 58kg급·63kg급 경기에서 각각 금메달 3개(종합우승)·은메달 3개(2등) 획득(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관광총국 친선참관단(단장: 조성걸 부총국장), 3.10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3.10,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정일의 혁명연극 ‘혈분만국회’ 지도 30주년 기념공연, 3월 12일 국립연극극장에서 진행(3.12, 중앙통신·평양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현대적인 건축물들(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과 민속놀이(씨름, 활쏘기, 말타기)를 반영’한 새 우표들(개별우표 5종) 발행(3.12, 중앙통신)
- “사철푸른 잔디육종”을 위한 전국과학기술발표회, 3.13 국가과학원 잔디연구분원에서 진행 및 ‘30여 건의 연구논문’ 발표(3.13, 중앙통신)
- 北, 5월 5일 제16차 국내외 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조선의학협회 주최) 개최 예정(3.14, 중앙통신)
- ‘2014년 아시아 청년 및 청소년 역도선수권대회(태국, 3.4~12)’ 참가 역도선수들, 3.16 귀환 및 ‘경기 성과’ 선전(3.16, 중앙방송·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노동신문, 또 美 비난…“도발 걸어오면 보복타격”(3/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미국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이야말로 진짜 도발자, 위협세력”이라고 반박하며 보복을 경고함.
 - 신문은 6면 ‘유치하고 비열한 도발 타령’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행동”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강도가 자기 집을 지키려는 주인의 행동이 온 동네를 위협한다고 떠드는 것과 같은 “황당하고 파렴치한 망동”이라고 비난함.
- 중국 룽징에 북·중 예술인재양성센터 개소(3/11, 연변신문망)
 - 룽징시는 지난달 27일 시 문화관 내에 ‘중조(북중)친선예술인재양성센터’를 개설했다고 연변신문망이 11일 보도함.
 - 시 문화관 관계자는 “북한과 협력해 중국 조선족 문화의 발원지인 룽징시에 민족예술을 위주로 하는 문화예술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 간 친선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北 “美 국무부 대변인, 주제넘게 우리 선거에 시비”(3/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 민주주의가 있다 없다 하면서 주제넘게 쫓아냈다(떠들었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대변인은 “이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골수에 배겨 우리의 선거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의 가소로운 녀두리”라고 주장함.

- 北, 연일 대미비난 수위 높여…“미국은 깡패국가”(3/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우리의 승리적 전진에 경악한 깡패국가의 비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도발 도수’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것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惡)’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내지르는 단말마적 비명”이라고 비난함.

- “유엔식량농업기구 구제역 조사단 방북”(3/14,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피해 실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후안 루브로스 FAO 수의국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조사단이 13일 북한으로 출발했다고 밝혔으며, 조사단은 FAO 소속의 구제역 전문가 2명과 수의학 분야 역학전문가 1명으로 구성됨.
 - 이들은 북한에 주재하는 FAO 관계자들과 함께 구제역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방역과 퇴치 지원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北 통신, 아베 비난…“헌법에 도전해 전횡”(3/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스스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의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한 것을 “독단과 전횡”이라고 비판함.
 - 통신은 14일 ‘재침의 칼을 버리는 사무라이 후예들’이라는 논평에서 아베

총리의 지난달 국회 답변을 문제 삼으며 “일본 집권자가 헌법에 도전하여 제멋대로 독단과 전횡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함.

- **北, 전략군 대변인 담화 유엔안보리 공식문건 배포(3/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전략군 대변인이 최근 발표한 담화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으로 S/2014/159호로 배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신문 “이란 핵협상은 美의 ‘자주권 강탈전’”(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의 중동 지배 전략과 대이란 정책’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이번 협상은 “이란에 있어서는 자기의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전이고 미국에 있어서는 국제법적으로 부여된 이란의 자주적 권리를 빼앗기 위한 음흉한 강탈전”이라고 밝힘.
 - 신문은 “현시기 미국의 대이란 정책의 본질은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압살과 대결”이라며 “이러한 사실은 대화와 평화 타령을 늘어놓곤 하는 미제에 대해 티끌만 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함.

- **北, ‘對美 비난’ 국방위 성명 연일 선전(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1면의 절반을 할애해 ‘국방위원회 성명에 대한 각계의 반향’이란 제목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대대적으로 소개함.
 - 김죽송 기계공업성 국장은 기계공업성의 전체 간부가 국방위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주로 존엄 높고 선군으로 부강번영하는 우리 조선에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하여 빛어지는 미국의 강도적 논리가 절대로 통할 수 없다”고 강조함.

기타 (대외 일반)

- 러시아 외무성 순회대사(그리고리 로그비노프, 3.7 訪北), 3.10 귀국(3.10, 중앙통신·중앙방송)
 - 방북기간 북한 외무성 해당 일꾼들을 만나 쌍무관계 발전과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
- 美 국무부 ‘러셀’ 차관보의 상원 외교청 청문회(3.4) 발언에 대해 ‘미국의 남북관계문제 참견질, 내정간섭 책동’이라며 ‘미국의 남북관계개선 방해’ 지속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를 지속 비난하며 ‘미국이 남한의 군사적 강점과 주한미군 범죄행위,

- 反北 적대시정책 실시 폐해' 등 거론하며 "미국을 세계최대 인권유린 범죄국가"라고 주장(3.1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콜럼버스·블루릿지'호 부산 입항과 해상종합기동훈련 참가 등 관련 '미제호전광들에게 충고하건데 볼티모어·푸에블로호의 비극적 운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언(3.10, 평양방송·노동신문)
 - 일본 정부의 '무기수출 허용 새 지침, 3월 마련' 교도통신 보도인용, "〈무기수출 3원칙〉 포기의 본질적 목적은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아시아맹주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데 있다"며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책동 경계' 강조(3.10, 중앙통신·민주조선)
 - 김영일(黨 비서), 3월 11일 駐北 캄보디아 및 시리아 대사들과 각각 담화(3.11,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의 '육군 감축 계획(주한미군은 감축 계획 없음)' 발표를 거론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무력을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은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근원'이라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공화당의 차기 대권주자인 '루비오' 상원의원의 발언(北 이대로 가면 10년 뒤 美 서부 해안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 관련 "핵 폭격설'까지 유포시키는 것은 우리(北)의 자위력과 국력 앞에 겁을 먹은 자들의 치졸한 시샘질이며 최후발악"이라고 비난하고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주장(3.12, 중앙통신·평양방송·노동신문)
 - 北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 중동기자 문답(3.13) 최근 리비아 앞바다에서 北 인공기를 단 '유조선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배는 우리(北)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 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주장(3.13, 중앙통신)
 - [北 국방위 성명(3.14)]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 철회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선핵포기가 근간이라고 떠벌이며 놀아대지 말아야 하며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3.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의 '北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발언(도발과 위협, 유엔결의 위반)에 대해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들의 가소로운 발작증세"라며 '도발과 위협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공화국의 위력에 대한 불안과 공포, 좌절감과 초조감의 발로'라고 주장(3.15, 평양방송)
 -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군사적 힘으로 조선민족과 강토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가장 포악한 정책'이라고 비난 및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강조(3.16,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미국과 일본의 '연안전투함 공동개발 발표'는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 책동에 부채질하는 처사이며, 그들을 내세워 靑-太지역을 군사적으로 제패하기 위한 흥계'로 '지역의 군비경쟁과 긴장격화의 망동'이라고 비난(3.16,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北-러 경제적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3.17)' 65주년 즈음 '兩國 친선협조 관계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3.16, 중앙통신·민주조선)
 - 조선인간제연행 진상조사단 2014년 전국협의회, 3.8 「총련」 '가나가와현' 분부에서 동일분협의회 진행(3.16, 중앙통신·평양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국방위 “美 위협 계속되면 ‘핵억제력’ 과시할 것”(3/14, 연합뉴스)
 - 북한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 처럼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또 미국의 ‘선(先) 핵포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은)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변할 것을 바라면서 그 무슨 ‘인내 전략’에 매달리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인 현실적 안목과 사고를 가진 주인이 핵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는 것”이라고 말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에 비방 중단 또 요구…“합의 이행 엄중 기로”(3/11, 조선중앙방송)
 -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언론들의 우리에게 대한 비방과 중상은 북남 고위급 접촉에서 이룩한 합의에 관계없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 이행이 엄중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담화는 이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앞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속된 말로 국물도 없다”고 발언한 것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자들부터가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에 남조선 당국이 떠드는 신뢰 조성이 있고 북남관계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움직임을 엄밀히 주시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신문 ‘민족단합’ 강조…“왕래·접촉 활성화해야”(3/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민족단합은 통일 위업 승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 통일 위업의 주요 과제인 동시에 최종 목적”이라고 밝힘.
 - 신문은 “동족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조국 통일 운동에 엄중한 저해를 주는 온갖 장애물을 과감히 제거하여 조국통일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라며 “백해무익한 비방증상과 무분별한 전쟁연습을 비롯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행위들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임.

- **北 노동신문 “7·4공동성명 통일 3대 원칙 존중해야”(3/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조국통일은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과 이념”은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선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이라고 밝힘.
 - 신문은 “최근년간의 불미스러운 북남관계 현실은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무시하고 그와 배치되게 행동하면 북남관계가 불신과 대결상태에 처하게 되고 종당에는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함.

- **北 “관계개선도 좋지만 ‘최고존엄’ 비방 용납 않겠다”(3/14,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4일 담화에서 유성옥 소장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노골적으로 뒤집어엮고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유 소장의 발언으로 “북남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엄중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신뢰를 쌓고 북남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의 체제를 악랄하게 헐담한 이번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해 사죄하도록 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2억1천만원 상당 기초의약품 대북지원 승인(3/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민간단체인 ‘인간의 대지’가 신청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 반출 요청을 승인했다고 11일 연합뉴스를 통해 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반출신청에 대해 승인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승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남북, 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 개최(3/13, 연합뉴스)**
 -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우리측에서는 위원장을 맡은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이, 북측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함.
 - 통일부는 “상사중재위 가동은 개성공단에서의 분쟁 해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적 방식이 도입된다는 의미”라며 “개성공단 내 투자자산 보호,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주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민화협, 北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 시작(3/14,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대표상임의장 홍사덕)는 북한에 비료 100만 포대 보내기 국민운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을 해결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통일을 위한 농업 협력을 준비한다는 취지로서 민화협은 국민 1인당 1포대 보내기 운동을 통해 북한에 20kg짜리 비료 100만 포대, 모두 2만t을 보낸다는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개성공단 임금 10%인상 요구…정부, 협의불응키로(3/16, 연합뉴스)**
 - 북한이 매년 5% 올리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을 올해 1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함.

- 연합뉴스에 의하면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북측 중앙특구지도총국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을 10% 올리자면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힘.
- 5만여 명의 개성공단 근로자가 1년에 받는 임금 총액은 8천만 달러(약 856억원)가량으로 북측의 요구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앞으로 연간 86억원 가량의 임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뉴스는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우리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북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는 없다”고 말함.

기타 (대남)

-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 위업의 주요과제인 동시에 최종목적”이라며 ‘대결관념을 버리고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갈 때 이해와 신뢰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민족단합’을 강조(3.12,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대변인 담화(3.14)]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특강(3.11,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모임인 ‘통일경제교실’)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 관련 ‘최고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국의 책임적 조치’ 촉구(3.14,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한미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일환으로 쏘 해상에서 연합기동훈련 실시(3.14) 관련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로 한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위급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3.15, 중앙통신·중앙방송)
- 유성옥 소장(안보전략연구소)의 새누리당 특강(김정은 리더십 지적 등)을 ‘날조로 일관된 비방중상, 청와대의 속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대사건’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담보’ 요구(3.16, 중앙통신·민주조선)

03.17-03.23

3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의 주재…인사 등 논의(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주재하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전군에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군인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과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됐다”고 밝힘.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인민군대의 사업을 분석·총화하고 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쥐고 나가야 할 과업과 방도를 제시했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비행훈련 참관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홍영철·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했으며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현지에서 영접함.

-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대동 모란봉악단 관람(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을 대동하고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전함.
 - 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면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황병서·홍영철·마원춘 당 부부장·김여정 순으로 수행 간부를 소개함.

- **北 박봉주 총리, 평남 발전소·제철소 시찰(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에 있는 북창화력연합기업소와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박봉주 총리는 북창화력연합기업소를 둘러보고 협의회를 열어 전력 증산과 기업소에 대한 원료·자재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도 철강재 생산 방안 등을 토의함.

- **北 김정은, 해군·공군 대학 간 사격경기 관람(3/1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의 교직원 사격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해군대학과 항공군대학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성적이 얼마 전에 진행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성적에 비해 높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사격경기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이 함께 함.

- **北,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 개최(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 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기계공장 방문 “연구개발로 제품 질 높여야”(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계공장을 시찰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강태호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며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홍영철 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동행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현대식병원 시찰…환자 손잡고 “건강하라”(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당에서 류경구강병원을 일떠세운(건설한) 것은 세계적 수준의 구강병원이 있다는 것을 소개·선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옥류아동병원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이 병을 모르고 마음껏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옥류아동병원을 세웠다”고 말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태복 당 비서,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동행함.

- **北신문 “제국주의 사상문화 막을 모기장 쳐야”(3/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제국주의 사상문화’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졌으며 이색적인 사상문화의 침투를 막는 ‘모기장’을 쳐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침략의 주역을 놓고있는(수행하는) 제국주의 사상문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침투하면 내부에 ‘반혁명세력’이 등장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끌어들이는다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2중, 3중으로 든든히 쳐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여러 나라들에서 일어난 ‘색깔혁명’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에 물젖고(물들고) 그들의 후원을 받은 반동세력이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벌인 범죄적인 반정부운동의 산물”이라고 주장함.

- **北 김영남, 방북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면담(3/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2일 방북 중인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2일 김 상임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한 민니하노프 대통령 일행과 “담화를 했다”고 전했으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北 김정은, 리설주·김여정과 모란봉악단 관람(3/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2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전함.
- 중앙통신은 출연자들이 ‘반미대결전’을 이끄는 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칭송했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영도만을 받드는 무적의 백두산혁명장군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설명함.
- 이날 공연 관람에는 군 장병들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부국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기남·박도춘·김평해 당 비서, 김경옥·리재일 당 제1부부장이 함께 함.

■ 김정은동향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지도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진행(3.17,중앙통신·중앙방송)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3.17,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동행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종·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7,중앙통신·중앙방송)
- 3/17,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3.17,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원홍, 최부일, 한광상, 김경옥, 황병서, 홍영철, 마원춘, 김여정 등 함께 관람
- 3/1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종합우승)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3.19,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명식, 리병철, 김영철, 조경철, 박태수, 장동운, 한광상, 황병서 동행
- 3/20, 김정은 黨 제1비서, 강태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3.20,중앙통신·중앙방송)
 - 한광상, 황병서, 홍영철 등 동행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현지지도(3.22,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한광상(당중앙위 부장), 황병서·리재일(당중앙위 제1부부장) 동행
- 3/22,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3.23,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흥찬, 김수길, 김영철, 조경철, 리병철, 김기남, 박도춘, 김평해, 한광상, 김경옥, 리재일, 김병호, 김여정 등 동행 관람
- 3/23, 김정은 黨 제1비서, 모란봉악단 관람(3.23,중앙통신)

■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에 위치한 '북창화학발전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3.17,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 50주년을 맞아 '군(郡)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강성국가 건설이 추진되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줄 수 있다'며 '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3.18,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71호(3.12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4월9일 평양에서 소집(3.2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판문점 시찰 2주년(2012.3.3)' 관련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은 선군영장이 조국통일의 진두에 서게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세우려는 것은 김정은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통일외지 강조(3.20, 중앙통신)
- '지금 당은 새 세기 산업혁명 수행에서 3대혁명소조가 한 몫 단단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호소(3.20, 중앙통신·노동신문)
-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정형 현지 요해(3.22,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정형을 현지에서 요해(3.23, 중앙통신·중앙방송)
 - 태양절(김일성 생일, 4.15)을 맞으며 야영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야영소 운영준비사업을 잘할 데 대한 문제 강조
 - 또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를 찾아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을 시찰.

나. 경제

● 北 노동신문 “郡단위로 지방경제 발전시키자”(3/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 발표 50주년을 맞아 지방 행정단위인 군을 중심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야 한다고 독려함.
- 노동신문은 18일 1면 사설에서 “오늘 우리 앞에는 강성국가 건설의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더욱 높여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다시 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1970~1980년대만 해도 지방공업이 북한 소비품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다시 한번 지방공업의 위력을 떨쳐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자”고 독려함.

● 北 경공업 우선…“중공업 시설 가급적 신축 말아야”(3/18, 경제연구; 연합 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경제 계간지 2014년 ‘경제연구’ 1호를 보면 김정은 체제는 중공업을 중시했던 김일성 주석과 달리 경공업 발전을 강조함.
- 이 잡지에 실린 ‘기본건설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라는 논문은 “중공업 부문에서는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일부 중요 대상 건설을 내놓고는 새 건설보다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최첨단 기술로 개건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밝힘.
- 또다른 논문은 ‘경공업 원료, 자재의 국산화는 경공업 발전의 생명선’이라는 논문은 “인민소비품의 생산량을 더욱 늘리고 그 가짓수를 부단히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함.

● 벨기에 NGO, 올해 북한 장애인 지원에 12억원 투입(3/19, 미국의소리 (VOA))

- 장애인을 돕는 국제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벨기에 지부가 올해 북한 장애인 지원사업에 80만 유로(약 12억 원)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이 단체의 대북사업 담당자는 올해 예산으로 함경남도 함흥시 정형외과병원 등 북한의 장애인 의료·재활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VOA에 밝힘.

● 北 신문 “경공업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3/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2면에 게재한 ‘경공업 전선에서 인민생활 향상 대진군을 크게 올리자’는 사설에서 “경공업 전선에서 비약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우리의 혼연일체를 더욱 철통같이 다질 수 있다”고 주장함.
- 사설은 경공업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가 중요하다며 “경공업 발전에서 큰 몫을 맡은 단천지구광업총국을 비롯해 화학, 석탄, 전력 등 연관 단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분발하여 나서야 한다”고 촉구함.

- **北, 농경지 확장 ‘성과’ 선전…“냉습지 4만ha 개량”(3/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북한에서 냉습지 4만여 정보(약 4만여 ha)가 개량됐다고 이은 “알곡 생산계획 수행 방도의 하나”라고 지난 18일 보도함.
- **북한-중국, 5월 나선특구서 상품·기술전시회 개최(3/21, 흑룡강신문)**
 - 북한과 중국이 오는 5월 8~12일 북한 나선경제특구에서 양국 간 경제·무역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품·기술·서비스 전시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중국 흑룡강신문이 21일 보도함.
 - 행사 기간에는 북한 경제정책 및 대북무역상품 통관 설명회, 나선특구 외자 유치 설명회, 북·중 경협프로젝트 교류회, 헤이룽장성 기업 대표단의 나선특구 시찰 등이 함께 진행 예정임.
- **北, 에너지난 극복 ‘과학기술 성과’ 잇달아 소개(3/22, 조선신보)**
 - 22일자 조선신보는 북한 국가과학원 연구진이 개발한 ‘생물질압착연료’가 평양의 공장 등에 도입돼 석탄 절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은 생물질압착연료가 톱밥 같은 ‘농업 및 임업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며 “500kg의 생물질압착연료는 1t의 석탄과 맞먹는다”고 설명함.
 - 또 평양기계대학이 자동차의 출발과 도착 지점을 잇는 최단 경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이를 도입한 운수기관들이 연료를 5~10% 절약했다고 소개함.

기타 (대내 경제)

- 세포지구 인민군 군인들과 922건설동력대원들, ‘14,000여 톤의 소석회와 90,000톤의 유기질 비료’ 등 생산(3.18,중앙방송)
-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 버모판 종합영양제 생산에 주력(3.18,중앙방송)
- 자강도 등, 중소형발전소 건설에 주력(3.18,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알루미늄 합금 미끄럼 축받이’ 개발(3.18,중앙통신)
- 과수농장들 사이의 2013년 사회주의 증산경쟁 총화모임, 3월 20일 리명길(「농근맹」 중앙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3.21,중앙방송)
- 「국가품질감독위원회」, 아래 단위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 품질검증과 보증을 받고 출하할 것과, 판매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품질감독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3.22,중앙통신)

다. 군사

● 北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1개월 만에 대장 복귀(3/19, 조선중앙TV; 노동신문; 연합신문)

- 우리의 국방장관격인 북한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1개월여 만에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다시 진급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이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 간 사격경기를 관람한 소식을 전하며 내보낸 사진에서 장정남이 별 4개의 대장 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됨.
- 앞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4일 방영한 제111호 ‘백두산’ 선거구 선거자대회 영상에서는 장정남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연설했으며, 최전방 1군단장 출신인 그는 지난해 5월 인민무력부장이 되면서 중장(별 2개)에서 상장으로 진급했고, 같은 해 8월 25일 김 제1위원장이 주재했던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계급 또 승진해 대장 계급장을 달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30발 발사(3/22, 연합뉴스)

- 북한은 22일 오전 4시부터 6시10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발사체의 사거리는 60Km 내외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 로켓 발사 장소는 지난 16일 발사 때와 같은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도 사거리로 볼 때 프로그 지대지 로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주말새벽 이틀연속 단거리로켓 발사…오늘 또 16발(3/23, 연합뉴스)

- 북한은 23일 오전 0시52분부터 2시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북한은 오늘 2회에 걸쳐 로켓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60km로 내외로 분석됐다”면서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신형 고속 침투선박 건조…동해안서 첫 시험(3/23, 연합뉴스)**

-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해상전력을 꾸준히 보강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수부대를 태우고 해안으로 기습침투할 수 있는 신형 고속 침투선박(VSV)을 건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함.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3일 “북한이 특수부대의 해상 기습침투 능력을 높이려고 작년부터 고속 침투선박을 건조하고 있다”면서 “이 고속선박은 실전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해상 침투전력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고속선박 건조도 이런 전력확충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이 고속선박이 실전 배치되면 이미 운용 중인 반잠수정(대동-B급)과 함께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그는 “북한은 기습침투용 고속선박을 동해함대 예하 전방기지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우리 군의 레이더망을 회피하도록 스텔스 도료를 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올해 첫 황사 경보…“서해안에 영향”(3/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황사 경보’를 전한다며 “16일 몽골 중부와 고비사막,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서 발생한 황사는 17일 밤부터 서해안 지방에 약하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힘.

● **“北, 2001년 이후 산림 16만ha 유실”(3/1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2001년 이후 16만ha의 산림이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WRI)를 인용해 18일 전함.

- WRI는 최근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에서 2001~2012년 북한에서 유실된 산림이 16만ha이지만 새로 조성된 산림은 1만 3천ha에 불과했다고 밝힘.
 - 지역별로는 개마고원, 자강도 강계 인근의 강남산맥, 양강도 마천령산맥의 산림 유실이 가장 심했으며 함경남도 함주군과 평안북도 창성군, 함경북도 어랑군과 화성군 등의 산악지역에서도 산림 유실이 컸던 것으로 나타남.
- **“美 단체, 내달 평양 결핵연수원 완공”(3/19,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4월 초 북한 평양에서 결핵연수원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이 단체는 지난 주말 결핵연수원 완공을 위한 전문가들을 평양에 파견했고, 이들은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진행 중인 온실 사업과 간염치료 사업 등 다른 대북사업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청춘거리 체육촌 리모델링 완료…“김정은의 선물”(3/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의 평양 청춘거리 체육촌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19일 준공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함.
 - 방송들은 실내경기장과 축구경기장, 신체훈련장과 체육인 식당 등을 갖춘 체육촌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라며 김 제1위원장이 준 “사랑의 선물”이라고 선전함.
- **北, ‘기술혁신의 기수’로 3대 혁명소조 부각 눈길(3/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사설에서 이날부터 평양에서 제4차 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가 열린다며 전시회에 출품될 전시품들은 “전국의 3대혁명소조원들의 비상한 신념과 의지, 높은 실력과 불 같은 열정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치켜세움.
 - 이어 “소조원들은 파견단위에서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히 벌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을 비약적으로 장성시키고 단위의 면모를 최첨단 수준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독려함.

- **“재미동포 의사 20여명, 5월 의료지원 방북”(3/21,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한인단체 ‘조미의학과교류촉진회’ 박문재 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오는 5월 3일 의사 20여 명이 방북할 예정이라며 “과거에 (북한에) 가던 재미동포 의사들 외에 이번에는 (교포) 2세 의사들이 여러 명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힘.
 - 박 회장은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온 새로운 기술, 의료개념, 치료방법을 그분(북한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토론회가 끝난 후 한인 1세 의사 5명은 평양의대병원, 제3인민병원, 김만유병원 등을 방문해 환자를 진찰하고, 한인 2세 의사들은 수술 집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함.

- **北, 경제 관련학과 대거 신설…개발인재 양성 노력(3/22, 조선신보)**
 - 22일 평양발로 북한에서 “대학들의 교육체계를 보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며 일부 대학들이 신설한 학과를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는 국제경제학과가 생겼고 장철구평양상업대학에는 호텔경영학과와 호텔봉사학과가 신설됐으며, 정준택원산경제대학에는 관광경제학과, 보험학과, 가격학과, 경제법률학과가 설치되었다고 신문은 전함.
 - 조선신보는 또 “지방에 있는 경공업 대학들을 해당 도들에 필요한 각이한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사명에 맞게 명칭을 바꿨다”며 신의주경공업대학이 평북공업대학으로, 해주경공업대학이 황남공업대학으로 개명했다고 전함.
 - 조선신보는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이 확산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건축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에 원격교육대학(사이버대학)이 설치됐고 김형직사범대학 등에는 원격교육학부가 생겼다고 전함.

- **北, 조선중앙은행 등 은행 건물 현대식으로 신축(3/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지난 6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에서 중앙은행인 조선중앙은행과 동북아시아은행의 본점 건물을 각각 대규모로 짓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북-러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에 즈음한 '영화상영주간', 3월 17일 대동문영화관에서 개막(3.17, 중앙통신)
- 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경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 평양에서 연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3.17, 중앙통신)
- 청춘거리 체육촌 개건 준공식, 3.19 서산축구경기장 앞에서 광범기(黨 비서/준공사)·김용진(내각부총리)·리영수(黨 부장)·리종무(체육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3.19, 중앙방송·중앙통신)
- 제4차 전국 3대혁명소조 기술혁신전시회, 3월 20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3.20,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평해(黨 비서), 김용진(내각부총리) 등 참가
- 北 올림픽위원회 총회, 3/20 '리종무'(체육상,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3.20, 중앙통신)
-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 봄철 나무심기 기간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들로 600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지도사업을 강화(3.20, 평양방송)
- 위생월간(매년 3월~4월)을 맞아 '생산문화와 생활문화를 세우고 옷차림과 몸단장을 잘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상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며 '자기 몸차림과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여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을 창조해 나가자'고 주장(3.21, 중앙통신·노동신문)
- '3대혁명전시관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현대 과학 기술자료들도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3.21, 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 즈음 평양에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진행 예고(3.22,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9차 각 도(직할시) 과학기술축전, 2.25~3.21 진행(전시회·강의 등) 및 '수천 건의 논문·제품 출시 등 성과' 선전(3.22, 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주러 北 대사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이 선동”(3/17, 러시아의소리; 노동신문)
 -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고 러시아 국영 라디오방송 러시아의소리가 17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김용재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열린 북러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 기념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의 음모 시나리오에 의해 준비된 우크라이나의 불안한 최근 사건은 분명히 그들의 선동에 의해 자극됐다”라고 말함.
 - 한편 노동신문은 ‘북러 경제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인 이날 ‘조로(북러) 친선관계 발전의 역사적 계기’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신문은 “전통적인 조로 친선 협조관계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라고 평가함.

- 北통신, 성김 北인권 발언 비난…“누워서 침뱉기”(3/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미국의 수치스러운 인권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고 “누워서 침뱉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며 “미국은 남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했댔자 제 망신만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 중앙통신은 김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남한에서 “미군의 폭행사건, 제3국의 공식문서까지 위조한 간첩조작사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범죄들”이 발생했다며 미국과 김 대사가 이 사건들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함.

● **北, 연일 대미 위협…“핵 타격 과녁은 미국”(3/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미국은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다중화된 우리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중지부를 찍고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밝힘.

● **북한, 중국에 잇따라 경제사절단 파견(3/18,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중국에 전시·관광 분야 사절단을 잇달아 보내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국의 앞선 기법을 배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18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단둥(丹東)시위원회에 따르면 북한 조선국제전람사 박웅식 사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지난 15일 랴오닝성 단둥을 방문해 CCPIT,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올가을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 개최 준비 문제 등을 논의함.
- 박 사장은 17일 판샹(潘爽) 단둥시 부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지난해 단둥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나서 우리 유관 부문은 곧바로 국가지도자에게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사실을 보고했다”면서 “국가지도자도 이 행사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올해 박람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오는 5월 단둥에 준비단을 보내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적십자 대표 “회담에 정부관계자·전문가도 참석”(3/19, 연합뉴스)**

- 북일 적십자 회담 참석차 1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이번 회담에 양국의 여러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리 서기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지난 3일 양국 적십자회담에서 이룩된 이해와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며 “이번 회담의 의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북한)에 있는 일본인 유골 문제”라고 설명함.

● “러, 북한 가스관 건설에 北 채무 활용 추진”(3/20,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의 일부를 상환받아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데 재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세르게이 스토르차크 러시아 재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북한에 가스관을 건설할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스토르차크 차관은 가스관 건설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북한의 일부 채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일본, 국장급 정부간 협상 재개 합의(3/2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적십자 실무회담과 외무성 과장 간 비공식 협의에서 정부 간 교섭 재개를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은 20일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이 종료된 뒤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부 간 공식회담 재개에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회담 일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힘.
- 한편, 북측 수석대표인 리호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서기장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쌍방이 진지하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함.
- 그는 또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해 쌍방이 계속 연락하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함.

● 조선신보 “北日 적십자회담은 경제적 계산과 무관”(3/2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1일 ‘조일교착 타개를 위한 착실한 전진’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과 일본이 지난 19~20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적십자 실무회담을 갖고 정부 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조일 간 현안 문제를 다루는 정치협상의 틀거리가 원활하게 복원됐다”고 평가함.
- 또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실종 당시 13세)의 부모가 이달 10~14일 몽골에서 요코타의 딸 김은경 씨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조일

쌍방이 고위급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착 타개를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음을 시사해준다”고 의미를 부여함.

- 이어 조선신보는 “적십자 회담의 개최와 몽골 면회가 실현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경제지원을 바라는 북조선의 내부사정’에 초점을 맞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함.

● **북한-일본, 30~31일 베이징서 정부 간 공식 협상(3/21,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오는 30~31일 베이징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한다고 일본 외무성이 21일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장급 협상에는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함.

● **방북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 무역상과 회담(3/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21일 리룡남 내각 무역상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방북한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리 무역상과 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 경제 협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 상업회의소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상공회의소 간 협력에 관한 합의서조인식에는 리 무역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민니하노프 대통령과 티모닌 대사 등이 참석함.

● **北 신문, 美 인권보고서 비난…“부당한 내정간섭”(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규탄배격당하는 인권재판관의 가련한 몰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미국이 또다시 그 누가 인정도 하지 않는 ‘세계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노동신문은 중국, 이란, 이집트, 알제리 등 많은 나라가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사가 주권국가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라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고 밝힘.

- **北 신문, 한미훈련 겨냥 “美 침략 좌시하지 않을 것”(3/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미국은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과 이달 27일 시작할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 등을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연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논평은 또 “우리는 이미 다종화된 핵 타격수단의 주된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밝혔다”며 “미국의 끈질긴 핵위협 공갈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의 핵보유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라고 주장함.
 - 이어 “만일 미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무자비하게 짓밟게 버릴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3/23, 조선중앙통신)**
 - 카즈백 타이셰프 러시아국가회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이 23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국통일과 민족단합을 가로막는 엄중한 장애”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짓부셔 버릴 것과 우리민족끼리 기치밑에 조국통일 투쟁’을 선동(3.1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우리(北)가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미국”이라며 ‘다종화된 핵타격 수단의 주되는 과녁이 미국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위협하며 ‘진정 대화를 바란다면 적대시 정책을 실천행동으로 포기하여야 한다’고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키 리졸브·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등 관련 미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대로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남북관계에는 결정적 개선국면이 조성되었을 것’이라며 재차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주장(3.17,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B61-12’ 핵폭탄 실험과 핵폭탄을 나토 국가 배치 계획에 대해 “오바마가 떠든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론과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세계를 냉전의 회오리, 핵군비 경쟁의 시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난(3.18, 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문부과학성 부상의 ‘고노담화 부정’ 관련 “일본의 과거침략사와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는 날강도적인 처사”라며 “강짜를 부린다고 범죄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3.18, 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 보고서(北,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 등)' 관련 '미국이 亞-太지역에서의 장기주둔뿐 아니라 군사적 패권강화를 위한 군사 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再비난(3.19, 중앙통신·민주조선)
- 主북 러시아 대사, 3.19 강석주(내각 부총리)·리룡남(무역상)·궁석웅(외무성 부상)·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 초대한 가운데 '북-러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 연회(대동강외교단회관) 개최(3.19, 중앙통신)
- 日 수상 아베가 참의원 예산위에서 한 발언(전후체제로부터 벗어나 세계정세에 맞추어 새롭고 생기 넘치는 일본을 만들어가고 싶다) 관련 '준수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제버리고 합법적인 전쟁체제를 가진 국가로 만들어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3.20, 평양방송)
- 방북 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 3월 21일 귀국(3.21, 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상업회의소와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상공회의소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3월 21일 평양에서 조인(3.21, 중앙통신)
- 리룡남(무역상)과 타타르스탄 대통령, 3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 진행(3.21, 중앙통신)
 - 회담에서는 쌍방사이의 무역경제 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北, 3월 21일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일행을 위해 연회 마련(3.21, 중앙통신)
 - 강석주(내각 부총리/연설), 리룡남(무역상), 궁석웅(외무성 부상), 타타르스탄 대통령(연설) 등 참가
- 러시아연방 타타르스탄 대통령(루스탐 민니하노프)과 일행, 3월 21일 北-러시아 間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을 즈음하여 평양에 도착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 참관(3.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성 김 주한 美대사의 '北 인권' 발언(北의 인권상황 개탄스럽다 등) 관련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중상모독이며 악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하며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3.21, 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3.22 訪北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대통령(루스탐 민니하노프)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2, 평양방송·중앙통신·중앙방송)
- 타타르스탄 대통령 일행, 3.22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22, 중앙통신·평양방송)
-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융화묵과하면 필연적으로 반혁명세력의 대두를 초래하며, 오늘날 제국주의의 반동적 사상문화는 침략의 주역을 놓고 있다"고 '자본주의 사상문화 유입 차단' 역설(3.22,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일제의 과거범죄는 국제적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려 봤자 얻을 것은 국제적 고립뿐"이라고 '과거사 인정 및 사죄와 배상' 촉구(3.22,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이 올해 10월경 핵재처리공장(아오모리縣) 새로 조업(연간사용핵연료 800t 재처리, 수십 년간 96t 플루토늄 생산) 및 플루토늄 저축·보유(44t) 등 움직임은 "핵무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3.22, 평양방송)
- 美육군참모총장(오디어노)의 한반도문제 관련 발언(가장 큰 우려는 오판에 따른 전쟁발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화국은 한반도의 평화수호를 위해 자제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만 도발자들의 침략행위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3.2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나. 6자회담(북핵)

- **中 6자대표 우다웨이 방북…회담재개 논의전망(3/1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일행이 17일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우 대표의 방북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 대표는 방북 기간 북한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이에 앞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달 17~20일 방북해 박의춘 외무상과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함.

- **방북 中 6자대표 우다웨이, 김영대 만나(3/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20일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 부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우 대표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했으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유엔총회 의장에 대남 관계개선 노력 소개”(3/18, 연합뉴스)
 - 존 애쉬 유엔총회 의장실은 유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18일 자성남(59) 신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가 애쉬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하고 있는 조치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자 대사는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은 사회복지 확대,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애쉬 의장실은 전함.

- 北방송 “南, 대결분자 단속 바로해야”(3/1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8일 논평에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최근 새누리당 의원 모임 특강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발언은 “엄중한 비방중상”이자 “특대형 도발”이라며 한국 정부에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유성옥과 같은 악질 대결분자들에 대한 신칙(申飭)·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함)을 바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 방송은 이어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 사이의 신뢰를 쌓고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은 엄중한 비방중상에 대해 무조건 사죄하고 그 재발방지를 담보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2007년 제공 경공업 차관 갚아라”…北에 통보(3/21, 연합뉴스)
 -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계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힘.
-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5천만원)이며,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함.
- 이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개발 협력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이 현재 가진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차관 조건이 공동 협력 개발의 성과물로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자로 (경공업 차관) 상환 추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량 차관도 향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 통일부 “개성공단 임금 협상, 예년처럼 7월에 해야”(3/21, 연합뉴스)

-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는 북한의 요구와 관련, ‘예년처럼 7월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3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북한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7월에 임금협의를 하자는 것이 우리 입주기업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관리위원회가 이 의견에 따라서 북측 중국과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함.

■ 기타 (대남)

- ‘3대혁명전시관에서 과학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현대 과학 기술자료들도 보급하고 있다’고 보도(3.21,중앙통신)
- ‘南 당국을 부추겨 북침핵전쟁연습을 벌여놓은 미제호전광들을 통일의 원수, 전쟁의 원흉으로 단죄·규탄한다’며 ‘남북,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 위력으로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할 것’이라고 선동(3.23,평양방송)

03.24-03.31

3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박봉주 총리, 연일 경제현장 시찰(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박 총리가 리모델링 중인 평양 중앙동물원을 방문, 신축 중인 건축물과 중·개축 중인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공사과 자재 확보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함.
 - 또 관계자 협의회를 열어 종합적인 자연박물관 건설, 동물 종 증대, 사료 보장, 수의 방역체계 확립, 녹화사업을 통한 주위 환경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함.

- **北, 자력갱생 연일 강조…“의존심에 종지부 찍어야”(3/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연길폭탄 정신을 마음속에 안고 살자’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연길폭탄 정신’과 ‘자력갱생 정신’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의존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오늘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초소들은 연길폭탄 정신을 뼈에 사무치게 간직한 참된 혁명가, 전세대들이 소중히 품고 달려오던 자력갱생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 북한의 존엄과 위력을 과시할 애국자들을 부르고 있다고 역설함.

- **北, 核 병진노선 거듭 천명…“美 압력에 굴복 안해”(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1면에 작년 3월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병진노선을 채택한 지 1년을 기념한 ‘당의 병진노선을 높이 받들고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사실을 게재함.
 - 사실은 “지난 1년은 우리의 핵보유를 코에 건 미국과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대결광증과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초긴장한 정세가 지속된 나날”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병진노선을 생명선으로 곳곳이 틀어쥐고 자주의 길로 곳곳이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 “적들은 우리의 병진노선에 대하여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방했다”며 “그러나 병진노선이 법화된 때로부터 우리는 확고한 군사적 담보에 의거하여 경제 건설에 더 많은 인적, 물질 잠재력을 돌리고 배심있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반박함.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중앙동물원 개건현장 현지요해(3.24, 중앙통신)
- 김일성의 ”백두의 혁명정신(충실성의 정신, 자력갱생·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백전불굴의 투쟁정신)은 조선혁명의 고귀한 재부”라며 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야 할 혁명정신’이라고 역설(3.25,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 선물(컴퓨터·륜전기재 등) 전달 모임, 3.25 한광복(黨 부장)·김진하(평양시黨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각각 진행(3.25, 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조선국민족위원회」 창립 65주년 기념대회, 3.24 평양에서 개최 및 ‘사업문제 토의 및 수정된 단체규약 심의·승인과 지도기관 성원들 새로 선거’ 등 진행(3.25,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11월2일공장 현대화에 이바지한 내각 사무국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3.26, 중앙방송)
- 박봉주 내각 총리,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정형 현지 요해(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발전풍부화 업적’ 칭송 및 ‘김정은에 의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3.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오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절대적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고 있다’며 ‘대를 이어 위대한 영도자를 모신 것은 당과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더없는 행운’이라고 주장(3.30, 중앙통신·노동신문)
- 전국 「직맹」 선전일꾼회의, 3월 30일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3.30, 중앙통신)
- 김정은의 병진노선 제시(3.31) 1주년 관련 지난 1년간 ‘경제건설 전진,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자주적 존엄과 안전 수호’ 등 “정당성과 생활력 과시” 自評 및 “최후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3.31,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경제

● 北, 짐바브웨 무가베 동상 500만달러에 제작키로(3/2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장기 집권자인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동상을 제작해주는 대가로 500만 달러(약 54억 원)를 받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짐바브웨 매체를 인용해 2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북한 만수대장작사는 무가베 대통령의 90세 생일을 기념해 10m 높이의 무가베 대통령 대형 동상과 이보다 작은 동상을 제작하기로 짐바브웨와 계약함.

● **英단체, 北 작년 수재민에 3억원 규모 구호물품 지원(3/2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영국의 민간단체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30만 달러(약 3억2천만원) 규모의 구호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영국 민간단체 ‘셸터박스’는 지난해 여름 홍수 피해를 본 북한 수재민 1천200명에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천막과 담요, 물통 등 생필품이 포함된 구호상자 448개를 내달 분배할 계획이라고 RFA는 전함.
- RFA는 또 북한에서 농업 지원사업을 벌이는 유럽 농업연구기관 유기농 연구소(FIBL)의 독일 사무소가 오는 8월부터 평양 인근에 암소 사육 시설을 세워 축산 관련 교육과 기술 지원을 시작한다고 전함.

● **“스위스, 올해 대북지원 예산 86억원 책정”(3/26, 미국의소리(VOA); 연합뉴스)**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00만 달러(약 86억원)를 책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토머스 휘슬러 SDC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이 같이 밝히고 이 가운데 380만 달러(약 41억원)는 600t의 분유 지원에 투입했으며, 나머지 420만 달러(약 45억원)는 북한에 수질개선 기술과 산림농법을 전수하는데 쓸 예정이라고 설명함.
-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스위스 정부가 보낸 분유 400t이 지난 3일 남포항에 도착했으며, 이 분유는 230만 달러(약 25억원) 상당으로, 세계 식량계획(WFP)이 운영하는 북한 내 영양과자 공장과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영양식품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타타르스탄과 원유·가스 탐사 협력”(3/26, 러시아의소리)**

- 북한이 원유와 가스 매장지를 탐사하는 데 러시아 연방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6일 전함.

- 이 방송은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루스탐 민니하노프 대통령이 지난 21~22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국이 이같이 결정했으며, “북한은 원유, 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타타르스탄 공화국은 매장지를 탐사한 경험이 있다”며 “타타르스탄 전문가들의 경험이 북한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설명함.
- 러시아의소리 방송은 또 타타르스탄과 북한이 농기계 예비부품 생산 및 공급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북한, 중국 건설업체 해외 현장에 근로자 송출(3/27, 중원경제망)**

- 외화벌이를 위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노무인력을 송출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 국영기업의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도 근로자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중국의 경제 전문 포털사이트인 중원경제망(中原經濟網)이 27일 보도함.
- 중원경제망에 따르면 북한 건설중국 산하 청건무역회사는 최근 중국철도총공사 산하 종합건설업체인 중국철도건설17국집단건축공사와 근로자 공급 계약을 체결함.

● **농업증산 나선 北, 연초부터 중국산 비료 대량 수입(3/28, 연합뉴스)**

- 올해 농업 증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비료 확보에 나선 북한이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비료 1만3천769t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1천64t)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은 지난 1월에도 중국산 비료를 3만5천113t이나 수입하는 등 예년과는 달리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비료를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1~2월 북한의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모두 4만8천882t에 달하지만 전년 동기에는 1천66t밖에 안됐으며 2012년 1~2월에도 6천490t에 불과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노동신문, 농촌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 역할 강조(3/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봄 농사철을 맞아 농촌의 말단 생산단위 책임자인 분조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전담당제’를 비롯한 분조 관리를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독려함.

- 신문은 28일 1면에 실은 ‘농업부문 분조장들은 자기 임무에 무한히 충실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분조장은 분조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분조장의 역할에 따라 “분조관리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좌우된다”고 역설함.
- 사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의 첫 대회로 분조장대회를 소집한 것은 분조장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며 “영도자의 사랑과 믿음에 높은 실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분조장들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주장함.

● **FAO “北 곡물 생산량 증가 추세…식량부족 개선”(3/29,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

- 3월 22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 고누마 히로유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작황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 재해의 변수가 있으나 올해 농산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고누마 대표는 작황 증가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한 곡물 수입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하면서, 북한이 2009~2010년에는 80만t의 곡물을 수입해야 했지만 2013~2014년에는 식량 부족분이 34만t에 불과하다고 설명함.
- 또한 지난해 쌀 수확량이 11% 증가했고, 옥수수과 밀, 콩 등 전체 곡물 생산량도 4% 늘었다며 병충해에 강한 기능성 쌀 종자 개발과 비료 수급 개선을 증가이유로 설명함.

● **북·러, 러’ 기업 개성공단 진출 논의하기로(3/29,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극동개발부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4박5일간의 방북을 마치고 28일 귀국한 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장관이 방북 기간 북측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힘.
- 지난 24일 평양에 도착한 갈루쉬카 장관은 26일 박봉주 내각 총리를 만난 데 이어 리룡남 무역상과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회담록에 조인함.

- 극동개발부는 또 양국이 경제·무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2020년에는 교역액 10억 달러(약 1조 690억 원)를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대금 결제 통화로 사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RFA는 이는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가스관 건설사업이 양국의 공동 관심사라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밖에 북한에 진출한 러시아 기업을 위한 북한 내 사업 환경 개선, 러시아 대북 투자자 법적 보호 문제, 러시아 기업인의 북한 방문 시 복수비자 발급 문제도 논의함.

● “작년 러시아 對北 수출품목 1위는 지브크레인”(3/30, 연합뉴스)

- 30일 코트라가 발행하는 ‘북한통상정보’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대북(對北) 수출품 가운데 금액으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지브크레인’으로 2천115만8천 달러(약 226억원)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는 러시아가 작년에 북한에 수출한 전체 금액 9천651만2천 달러(약 1천 31억원)의 21.9%를 차지한다고 뉴스는 전함.
- 코트라는 “러시아의 대북 수출에서 지난해 지브크레인과 소방차, 궤도용 침목이 급증한 것은 나진~하산 철도 연결과 나진항 건설 등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함.

■ 기타 (대내 경제)

- 양강도 임업관리국에서 3.24 현재 1/4분기 산지 통나무 생산계획 104% 초과 수행 및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발전설비·생산공정 현대화 공정 소개와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주력 등 경제 성과 보도(3.25, 평양방송·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경제부문 일꾼참관단(단장 : 리호선 당중앙위 부부장), 3월 27일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3.27, 중앙통신·평양방송)

다. 군사

- **北,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노동미사일 2발 발사(3/26,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는 26일 “북한이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전 2시35분과 45분에 탄도미사일 1발씩을 발사했다”고 밝힘.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과 2009년 7월4일에 이어 3번째로 5년 가까이 만의 발사라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외교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위반이라면서 “정부는 동맹국과 우방국, 안보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평양 미림비행장서 대규모 화력시범 준비 중”(3/31, 연합뉴스)**
 -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 북한군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대규모 화력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31일 “미림비행장에 병력과 포병화기가 집결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방사포와 견인포 등을 동원한 대규모 화력시범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북한군은 화력시범에 이어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FE)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규모 상륙훈련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라. 사회문화

- **평양에 부는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악단 ‘열풍’(3/2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공연 첫날 5천석 규모의 4·25문화회관이 초만원을 이뤘다고 보도한 데 이어 25일에는 평양을 달구는 공연 관람 열기를 전함.

- 신문은 25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열풍으로 수도 평양이 흥성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예술공연국으로는 매일같이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과 관련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라며 “매 지구보급소 주변은 관람표를 사러 오는 손님들로 이른 새벽부터 흥성이다”라고 소개함.

● 北, 마식령스키장 건설 공로자에 대거 표창(3/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에 공을 세운 군인과 일꾼, 근로자를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밝힘.
- 임중식과 윤학용에게 김일성훈장이, 김윤하에게 김정일훈장이 각각 수여됐으며 박승원 상장 등 6명은 노력영웅 칭호와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받음.
- 또 14명의 건설 관계자들에게 김일성청년영예상, 김정일청년영예상과 공훈자동차운전사·공훈설계가·공훈기술자·공훈건설자 칭호를 표창했으며, 이밖에 국기훈장 제1급을 43명에게, 노력훈장을 24명에게 각각 수여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함.

● “北, 1월 중순 평양 외곽서 구제역 추가 발병 통보”(3/26, 미국의소리(VOA))

- 북한의 평양 외곽에서 지난 1월 중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를 인용해 26일 보도함.
- OIE는 북한이 지난 1월 16일 평양시 순안구역에서 O형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이달 24일 리경근 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명의로 통보해왔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감염 의심 돼지들을 격리하고 발병 지역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VOA가 전함.

● 北 “올해 ‘결핵투쟁’ 새 이정표 마련”(3/26,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 박정민 국장은 지난 24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린 ‘세계 결핵의 날’ 행사에서 올해 “결핵투쟁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전함.
- 조선신보는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북한에서 벌어진 예방활동을 소개하면서 “2015년까지 국내에서 결핵이 더는 중요한 보건상의 문제가 되지 않

도록 해 결핵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결정적으로 낮추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는 조선의학협회 결핵부문위원회 리정찬 위원장의 발언도 전함.

● WHO, 北에 최첨단 결핵진단시스템 지방으로 확대 보급(3/27,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올해 북한의 지방까지 최첨단 결핵진단 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7일 보도함.
- WHO는 최근 공개한 ‘2014 결핵 보고서’에서 결핵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인 ‘진엑스퍼트’를 지난해 평양 소재 국립결핵표준연구소에 처음 설치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FAO “北 구제역 피해 확산…DMZ 근처 소도 감염”(3/28,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서 구제역이 빠르게 퍼져 북한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근처의 소들까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 FAO는 지난 26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강원도의 DMZ와 가까운 협동농장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소 4마리가 발견됐다고 밝힘.
- FAO는 북한에서 돼지 구제역 피해가 여전히 확산 중이라며 향후 북한에 구제역 검사와 예방 방안을 지원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기상수문국, 2월 10일경부터 현재까지 40여 일간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대부분 지방과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방에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가 내려 가물고 있다’며 평양시 등 대부분 지역의 ‘가물’ 보도(3.24, 중앙방송)
- 산림과학원에서 ‘혼성림 조성방법과 무동력 안개분무장치에 의한 나무모 생산방법 도입 등으로 산림자원을 늘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며 ‘산림과학 기술성과’를 선전(3.24, 중앙통신)
- 北, 청천강 계단식발전소들에 물고기길(魚道)을 조성(3.26, 중앙통신)
- 北 교육위원회 등 전국 각지 학교·유치원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새 학년도 준비사업 진행(3.27, 중앙방송)
-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4월 중순~5월 중순까지 개최 예정(3.30, 중앙방송)

- 北 「우주개발법」 채택(13.4.1,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이후 지난 1년간 “국가우주개발 국 마크 제정” 등 ‘국가우주개발국의 우주개발사업 추진 성과’ 및 「우주개발법」 해설 소개(3.31,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한미 ‘쌍용훈련’ 맹비난…“전형적 대북공격용”(3/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사나운 발톱을 드러낸 침략의 독수리’란 제목의 논평에서 쌍용훈련에 미 해병대 제3원정여단 등이 참가한다며 이 부대가 “이라크전쟁에서 악명을 떨쳤고 유사 시 조선반도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무력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함.
 - 신문은 쌍용훈련이 “전형적인 공격훈련”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무슨 ‘방어적성 격의 훈련’이니, ‘도발대비’니 하는 뻔뻔스러운 수작들을 내뱉으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공격으로 북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함.
- 조선신보 “우크라이나 사태, 美 사주로 발생”(3/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시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과 그를 충실히 따르는 EU(유럽연합)의 교활성과 범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반정부 시위로 붕괴한 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반로(반러시아), 친서방, 극우민족주의 세력’을 사주해 일으킨 ‘쿠데타’라고 밝힘.
 - 신문은 “서방 언론들은 한결같이 우크라이나를 선(정의), 러시아를 악(부정의)으로 묘사”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함.
- 러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 방북…경제협력 논의 예정(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러시아 간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북러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 측 위원장인 갈루쉬카 장관과 일행이 24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함.

- 한편 김영일 노동당 비서가 24일 방북 중인 카즈벡 타이세프 러시아국가의 경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러시아 공산당 주최로 김일성 주석의 첫 소련 공식 방문 65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친선의 역사’가 열렸으며, 김기남 당 비서와 강석주 내각 부총리, 타이세프 부위원장을 비롯한 러시아 연방 공산당 대표단,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함.
- **北 신문 “美, 대세에 따라 대북 적대정책 포기해야”(3/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대세에 부합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됐다”라며 미국이 “날아빠진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인 새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25일 ‘외세추종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미국이 “북남관계 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하면서 남조선 당국을 동족대결로 적극 떠밀고 있다”고 비난함.
- **北통신 “미국의 인권소동 파탄 면치 못해”(3/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발표한 ‘보도’에서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그 무슨 ‘조선인권조사위원회’가 ‘조선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여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며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함.
 - 이어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새로운 침략방식으로서의 ‘인권’ 소동이며 현대판 전쟁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함.
- **北 신문 “美의 대북 인권공세, 반미감정만 격화시켜”(3/27일,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는 파탄을 면치 못한다’란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선거문제를 걸고든 것은 전례 없는 일로서 그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함.

- 신문은 “최근년간 미국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선거문제를 거들며 선거가 공정치 못하다고 하면서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혼란을 조성하고 ‘인권 옹호’의 간판 밑에 노골적인 무력침공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中, 올해 북한 내 중국군 묘역 전면 개보수(3/28,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이 올해 공동으로 북한 각지의 중국군 전사자 묘역에 대한 전면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함.
 - 중국 당국은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난 2012년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개보수했고 지난해 개성과 안주의 중국군 묘역에 대해서도 측량과 설계를 진행해 개보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日 조선총련 건물 매각허가 또 비난(3/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이번 결정은 일본 당국의 ‘배후조종’하에 이뤄진 “불법무도한 결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협회는 조선총련 중앙본부는 북일 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외교 대표부 역할을 해왔으며 “일본 당국이 사법기관들을 부추겨 끝끝내 총련 중앙회관을 강탈하려 든다면 우리도 선군조선의 법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천만군민의 판결로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함.
- **北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배격…적대정책 산물”(3/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북한외무성 대변인은 30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원래부터 미국과 서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정치협잡꾼들의 집단인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채택된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인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전면 반대, 배격한다”고 말함.

- **北통신 “美, ‘北위협’ 부각해 긴장 격화 분위기 조성”(3/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당국자들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을 부각한 데 대해 “저들의 대조선(대북) 전쟁 정책을 합리화하고 기어이 현실화해보려는 추악한 흥계가 깔려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31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저들의 이 침략적인 대조선 정책 실행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평화변영 정책과 실행 노력을 비롯해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사사건건 ‘도발’과 ‘위협’으로 무작정 걸고 들면서 긴장 격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중국, 한반도 긴장고조에 ‘냉정·절제’ 촉구(3/31, 연합뉴스)**
 - 중국은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하고 한국이 대응사격에 나서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정과 절제를 촉구했다고 31일 연합뉴스가 전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에 온도가 다소 올라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 **北日 정부협상서 납치 재조사·제재 완화 요구(3/31,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과 일본의 공식 협상에 일본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1일 이틀 간에 걸친 회담을 끝내고 나서 납치문제를 앞으로 의제로 다루기로 쌍방이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전함.
 - 이하라 국장은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척하지 않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성명에 유감을 표명하고 자속을 촉구했으며, 북한의 26일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준수하라고 요구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일(당중앙위 비서), 3월 24일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단장 : 카즈벡 타이셰프 러시아 국가 회의 경제정책위 부위원장)과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과 러시아연방 공산당 사이 '협조에 관한 의정서', 3월 24일 평양에서 조인(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인식에 김영일(당중앙위 비서), 김성남(부부장),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 참가
- 노동당 중앙위, 3월 24일 평양고려호텔에서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을 위해 연회 마련(3.24, 중앙통신)
 - 연회에서 김영일(당중앙위 비서/연설)은 앞으로도 러시아연방 공산당과 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텁게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김일성의 첫 소련 공식방문 65주년과 1984년 소련방문 30주년을 즈음한 평양사진전시회 '친선의 역사'가 러시아연방 공산당 주최로 3월 24일 인민문화공전에서 개막(3.24, 중앙통신)
 - 개막식에 김기남(당중앙위 비서/축하연설), 강석주(내각 부총리), 러시아연방 공산당 대표단, 주북 러시아 대사 참가
- 北-러 間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러시아측 위원장(알렉산드르 갈루쉬카 원동발전상)과 일행, 3월 24일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5주년을 즈음하여 평양 도착(3.24, 중앙통신·중앙방송)
- 訪北 러시아 원동발전상 일행, 3.25 해방탑에 헌화(오룡철 무역성 부상 및 駐北 러시아 대사 등 참가) 및 금수산태양궁전 참배(3.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3월 26일 러시아 원동발전상 일행과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 및 '김정은 선물' 접수(3.26,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日 연안전투함 공동개발계획 발표 관련 '일본의 군국화와 재침준비책동에 부채질하는 무모한 처사이며, 아-태지역을 군사적으로 제패하기 위한 흉계의 한 고리'라고 재차 비난하며 '분별 있게 처신하라'고 주장(3.26, 평양방송)
- 조국통일연구원, '미국은 남북대화와 평화파괴의 원흉이며 남북관계 파국과 한반도 긴장 격화의 장본인'이라며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규탄'하는 비망록 발표(3.27, 중앙통신·중앙방송)
- 中 지린성기록보관소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건 공개를 연합뉴스 인용 보도하며 '일본의 성노예 범죄가 국가적 조치에 의해 감행되었다'고 비난(3.27,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앙통신 문답(3.28), 美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합동군사연습 강화' 등 발언(3.25,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석상)에 대해 "앞으로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3.28), 일본 도쿄지방법원의 「총련」 중앙회관 토지·건물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생존권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며 우리(北)의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규탄(3.28,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검토 보고서(北 미사일·핵무기, 한반도와 동북아 위협 등)' 지속 비난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위협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3.28,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訪北 러시아연방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대표단, 3월 29일 만수대인덕 김父子 동상을 참배하고 헌화(3.29,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은 세계적인 핵문제를 산생시킨 장본인이며, '핵없는 세상'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핵 제패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는 한 자체의 핵 억제력을 계속 확대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3.29, 중앙통신)

- 北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3.30), 유엔 인권이사회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악랄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며 '진정 인권을 논한다면 미국·일본·EU나라의 반인륜 범죄부터 국제적인 형사재판기관에 회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3.31, 중앙통신)
- 美 오바마 대통령 주도의 韓美日 정상회담(3.25, 헤이그) 개최(북핵 대응 등)에 대해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부정적 후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3.31, 중앙통신·노동신문)
- 유엔 안보리의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해 "그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와 충돌만 불러오게 된다"며 '우리(北)의 훈련은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게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3.31, 평양방송)
- 일본 집권세력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 움직임 및 무력공격사태법 등 10여개의 기존법 개정 결정 등 목적'은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자는 데 있다"고 우려(3.31, 평양방송)
-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피에레스), 3.26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안근성 멕시코 주재 北 대사,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 참가) 면담(3.31, 중앙방송·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北, '국방위 성명' 유엔안보리 공식문건으로 배포(3/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국방위원회 성명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4/194호로 배포됐다"라고 전함.
 - 국방위는 해당 성명에서 "지금처럼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며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함.
- 최선희 北 외무성 부국장 방중...美와 접촉가능성(3/25, 연합뉴스)
 - 북한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부국장의 방중 목적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외무성 성명 "새로운 형태 핵실험도 배제 안해"(3/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은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

- 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경고함.
 - 외무성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한 軍 대북전단 살포…남북관계 파국으로 몰아”(3/26,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26일 우리 군이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빠라)을 살포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남북관계가 ‘파국적 후과(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 서기국은 26일 ‘보도’를 통해 남한 군이 지난 24일 서해 5도 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고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빠라들을 살포하는 극악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이는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비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천안함 사건, 남북관계 장애물로 남겨뒀선 안 돼”(3/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 검열단 비망록’에서 천안함 사건은 “극도의 동족 대결광들이 고안해낸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 모략극에 지나지 않는다”며 “천안호(천안함) 사건을 더이상 북남관계 개선을 막아나서는 인위적인 장애물로 남겨뒀서도 안되며 긴장완화의 걸림돌로 방치해놓아도 안된다”고 밝힘.
 - 이어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란다면 이명박 일당이 천안호 사건과 관련해 취했던 5·24 대북조치와 같은 모든 동족대결 조치들을 대범하게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조평통, 차대통령 북핵 발언 실명으로 원색 비난(3/2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7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발언은 “심히 못된 망발”이라면서 “박근혜가 진실로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무 말이나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하며 분별과 이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주장함.
 -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위협을 경고하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지적한 데 대해 “삼척동자도 양천대소할 세계적인 특종조소거리”, “무지와 무식의 표현”, “방구석에서 횡설수설하던 아낙네의 근성” 등 원색적인 말로 비난함.
 - 대변인은 “박근혜는 이번에 우리의 핵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병진노선까지 시비질함으로써 비방증상을 중지할 데 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그 자신이 난폭하게 위반했다”며 “그리고도 그 무슨 ‘신뢰’니 ‘진정성’이니 하고 말할 체면이 있는가”라고 반문함.

- **軍, 나포했던 北어선 오늘 새벽 北으로 송환(3/28, 연합뉴스)**
 -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나포됐던 북한 어선 1척이 28일 새벽 2시께 북측으로 송환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해당 북한 어선은 27일 오후 5시26분께 백령도 동방 인근 서해 NLL을 1노티컬마일(1.8km) 월선한 뒤 우리 해군의 퇴거조치에 불응해 저녁 8시께 나포됐었다고 뉴스는 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 선원에 대한 조사결과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것으로 귀순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새벽 북한 어선을 NLL 선상으로 예인해 북측에 송환했다”고 밝힘.

- **북한군 총참모부 “어선 나포사건 용서하지 않을 것”(3/28,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8일 우리 군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번에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우리 어선을 강압적으로 나포하면서 놀아댄 무지막

지한 깡패행위와 우리 인원들에게 가한 비인간적이고 야수적인 만행에 대해서는 절대로 스쳐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北 ‘나포 선원’ 기자회견…“南해군, 폭행·귀순 강요”(3/29, 평양방송)

-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가 송환된 선원들을 기자회견에 내세워 남측이 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고 24일 평양방송을 통해 주장함.
-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은 해군이 나포 과정에서 “쇠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선장, 기관장을 마구 구둑발로 밟고 쓰러진 다음에는 목을 누르고 팔다리를 꺾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함.
- 또 남측에서 귀순을 권했다면서 이번 나포는 “우리가 스스로 남조선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며 그로 해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자는 것”이라고 말함.

● 北, 전단 살포 또 비난…“南 합의이행 지켜볼 것”(3/29, 조선중앙통신)

-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지난달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파기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는 엄중한 배족적인 반역행위”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공공연한 전쟁도발행위”라며 “빼라 살포는 가릴 수 없는 가장 노골적인 심리전으로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것이 심리전”이라고 지적함.
- 이어 정부가 군의 대북 전단 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전단 살포시 최전방 부대의 즉시 사격태세 유지조치와 탈북자의 전단살포 비호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의 위임까지 거들면서 다짐했던 맹약이 결국 당국 비호 하의 빼라 살포와 비방중상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했다”고 주장함.

● 北 신문 “남북관계 운명 南 행동에 달렸다”(3/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남조선 당국이 경고를 무시하고 악의적인 비방·중상에 계속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을 면할 수 없

- 다”라며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경고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 집권자’라고 지칭하면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를 뒤엎었다며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해 똑똑히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체면 없이 국제회의 연단에 나서서 우리를 마구 시비질하며 온갖 잡소리를 늘어놓았다”라고 비난함.

● 北, ‘드레스덴 선언’ 후에도 박 대통령 실명 비난(3/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행위’라는 제목으로 군대와 적십자회, 직업총동맹 간부와 주민들의 반응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최근 우리 군이 북한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거칠게 비난함.
- 특히 인민군 군관 김경호는 “지금 박근혜는 유럽 나라들을 돌아치며 그 무슨 ‘통일’이니, ‘공동번영’이니, ‘교류’니 하는 낮간지러운 수작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고 최근 박 대통령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헐뜯음.

● 北, ‘어선 나포’ 연일 비난…“백령도를 잿가루로”(3/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천인공노할 깡패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남측을 비난하는 각계각층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함.
- 이들은 한국 해군이 북한 측 수역을 불법 침입한 뒤 선원들을 강제로 납치해 폭행하고 귀순을 강요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지난 28일 주장을 되풀이하며 “해적소굴 백령도를 잿가루로 만들어야 한다”, “매국역적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 등 적개심에 찬 발언을 쏟아냄.

● 北, ‘서해NLL 인접 북쪽지역 7곳서 오늘 해상사격’ 통보(3/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은 이날 “북한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해군 2함대사령부에 오늘 오전 8시께 전화통지문을 발송해 ‘오늘 중 해상사격훈련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통보한 해상사격구역은 백령도 NLL 북쪽에서 연평도 북쪽 대수압도 인근까지 7개 구역”이라고 말함.

● **국방부 “北, NLL 사격훈련 통보는 적대적 의도”(3/31, 연합뉴스)**

- 국방부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7개 지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우리를 위협하려는 적대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NLL 인근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긴장조성을 통해서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고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함.

● **北 포탄 100여발 NLL 이남 낙하…軍 300여발 대응사격(3/31, 연합뉴스)**

-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북한의 사격훈련이 끝난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힘.
-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이 계획된 도발이며,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갖고 NLL에 대한 우리 군의 수호의지를 시험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의 정당한 대응사격을 빌미로 해서 우리 도서와 해역에 도발한다면 우리 군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함.

나. 경제·사회·문화

- **수출입銀, 北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상환촉구(3/25, 연합뉴스)**
 - 한국수출입은행은 25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경공업차관 원리금 연체액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수은은 2007년 의복, 신발, 비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조선무역은행에 경공업차관 형태로 제공했으며, 그 해 조선무역은행은 차관액의 3%(40만달러)를 아연괴로 현물 상환했고 나머지 97%는 금리 연 1%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갚게 돼 있음.
 - 수은 관계자는 “올해 3월 24일 첫 상환일이 도래해 지난달 27일 조선무역은행 측에 팩스를 보냈으나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고 설명함.

- **남북 민간단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한목소리(3/29, 연합뉴스)**
 - 남북한과 해외의 여성단체 대표들은 29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를 열고 군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 일제 식민지 범죄와 최근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을 성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거 일제 식민지 범죄’, ‘일본군 성노예 범죄’,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동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남북한과 해외여성대표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토론회 말미에 공동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정부 “5·24조치 틀 내에서 北민생인프라 단계적추진”(3/31, 연합뉴스)**
 - 통일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대북 제안 중 민생 인프라 지원 문제와 관련, “5·24 조치의 기본 틀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도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생 인프라 지원과 5·24 대북 제재조치의 상충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구체적인 민생 인프라 구축 입안이 안 됐지만 5·24 조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함.

기타 (대남)

- “미국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끝내내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주장(3.24, 중앙통신·노동신문)
- 한일협정 반대운동(64.3.24) 50주년을 맞아 ‘이 투쟁은 조선에 대한 일본 반동들의 재침기도를 물리치고 민족해방과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항거였다’고 주장(3.24, 평양방송)
- 北 「국방위원회」 김열단, 3.26 ‘北 천안함 폭침’ 4주기 관련 ‘同 사건은 동족대결광들이 고안해낸 특대형 모략극’이라고 기존 주장 반복 및 책임 회피 ‘비망록’ 발표(3.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외세와의 공조는 반통일의 길, 북침전쟁의 길”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및 그와의 공조를 반대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의 민족공조 실현’ 선동(3.25,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해병대의 ‘지휘소연습(3.15-23, 포항 등)’ 연합뉴스 인용 보도 및 “미제가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3.25,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평통’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3.26),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네델란드)에서 대통령의 북한 발언 관련 ‘남북고위급접촉합의를 위반했다’며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분별과 이성을 찾고 언사를 삼가하는 버릇부터 붙여야 한다’고 실명거론 비난 및 “행보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3.27,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3.26), 서해 5도(島) 일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우리(北)의 체제를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南 당국은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3.26, 중앙통신·중앙방송)
- ‘직총’ 대변인 담화(3.27), 서해 5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우리(北)의 최고존엄과 체제에 대한 극악한 도발행위”이며 ‘괴뢰패당의 계획적인 반공화국 대결난동’이라고 비난 및 ‘南 당국의 비방증상 중지’를 주장(3.27, 중앙통신)
- 정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北 소행)과 서해 5도 ‘대북 전단지 살포’를 거론하며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는 엄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위협(3.27, 중앙통신)
- “통일문제를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온 겨레의 우리민족끼리 이념밑에 反美 자주화 투쟁 전개’ 선동(3.28, 평양방송)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 및 송환’에 대해 “동족압살 기도의 집중적 발로”라며 “이번 사건을 절대로 사치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 및 ‘南 당국의 사죄와 관련자들 처벌’을 주장(3.30, 중앙통신)
- 우리 해군의 ‘NLL 월선 北 어선 나포·송환’에 대해 “강압적 나포, 무지막지한 강행위”라고 왜곡 주장 반복 및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낼 것” 등 위협 지속(3.31, 평양방송)
-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3.24, 네델란드) 연설에서 ‘북핵 폐기 강조’에 대해 “전조선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있어도 (북한만의)일방적인 비핵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미국에 대해 비핵화를 실현하라고 해야 한다”고 실명거론 비난 지속(3.31, 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4.01-04.06

4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최대 명절’ 김일성 생일 축제 분위기 띄우기(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면 사설에서 4월이 “뜻 깊은 달”이라며 모든 주민들이 4월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에 의하면 4월은 태양절뿐 아니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9일), 김정은의 당 제1비서 추대(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13일) 기념일 등이 있어 “혁명적 경사들이 겹친 달”이라고 설명하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한평생 부강조국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라고 칭송함.
 - 노동신문은 같은 날 2면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평양의 ‘만경대 고향집’에 관한 글을 사진과 함께 게재하면서 “해마다 4월에 들어서면 만경대를 찾는 참관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난다”며 “위대한 주체 조선의 100년사에 우리 인민이 맞이한 모든 영광과 자랑찬 승리들이 만경대 고향집의 사립문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현 정세 엄중…美적대정책 짓부셔버릴 것”(4/2,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은 이달 1일 양강도 삼지연 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염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했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그대로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는 우리에게 대한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흥심이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밝힘.
 -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

모부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함.

- 중앙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군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으나, 공연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음.

● 北 사회단체 잇달아 전원회의…‘사상공세’ 다짐(4/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중앙위원회 제6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하며 “회의에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농근맹 조직들의 과업에 대해 토의했다”고 3일 전함.
- 방송에 의하면 3일 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 제6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도 평양에서 열렸으며 전날인 1일에는 직업총동맹(직맹) 중앙위 제7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제5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각각 열림.

● 北 상업상에 김정남 임명…대의원 선거 전 교체된 듯(4/5,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5일 제19차 ‘태양절’(김일성 생일) 경축 요리축전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열렸다고 하며 폐막식에 김용진 내각 부총리와 김정남 상업상 등이 참석했다고 전함.
- 또한 방송은 요리축전 폐막식 참석자를 호명하면서 인민봉사총국장을 김미옥으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축구경기 관람…“체육에 대한 관심 높여야”(4/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남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함.
- 하지만 통신은 축구경기가 언제 열렸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 이날 축구경기 관람에는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오금철·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부 정치위원, 윤정린 호위

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태성·김승연 당 부부장 등이 함께함.

■ 김정은동향

- 4/1, 김정은 黨 제1비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3.23~)에 참가한 軍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나(4.1,삼지연비행장 도착) 고무 격려(4.2,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윤동해, 리병철, 김영철, 박정천 동행
- 4/2,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 예정인 모란봉악단의 공연 관람(4.2, 중앙통신·중앙방송)
 -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서홍찬, 김수길, 김명식, 박태수, 김영철, 조경철, 한광상이 함께 관람
- 4/5,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 윤전기재 전달(4.5,평양방송)
 - 전달모임, 4월 4일 한광복(당중앙위 부장)·장철(국가과학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
- 4/6, 김정은 黨 제1비서, 갈매기팀 對 제비팀의 남자축구 경기(제비팀이 4:2로 승리) 관람(4.6,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변인선, 김수길, 오금철, 노광철, 조경철, 리병철, 김명식, 장동운, 윤정린, 한광상, 황병서, 리재일, 박태성, 김승연이 함께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 父子에 대해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절세의 애국자' 라고 업적을 칭송하며 '제8차 사상일꾼대회의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며 당의 영도 따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애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고 호소(4.1,중앙통신·노동신문)
- 「직총」 중앙위 제7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월 1일 현상주(「직총」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1,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청단군·배천군 內 협동농장들의 영농실태를 현지요해(4.2, 중앙통신·평양방송)
 -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 수준을 높이며 선진영농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 달성을 강조
- 「농근맹」 중앙위 제6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월 2일 리명길(「농근맹」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2,중앙통신)
- 김정은 명령에 따른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 행군' 진행(3.23~4.1)은 "혁명선열들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 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선전(4.3,중앙방송·중앙통신)
- "핵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그 자체가 최고의 경제건설"이라고 병진노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진리성" 강조와 "우리의 병진노선은 억척불변"이라고 지속 천명(4.3,중앙통신)
-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 4.3 원화협동농장(평안남도 평원군)에서 리명길(「농근맹」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13)' 21주년 즈음 시·노래모임 진행(4.3,중앙통신·평양방송)

-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공세가 강화될수록 굳건해지는 견결한 투쟁정신이 우리 인민의 계급의식'이라며 '투철한 계급적 자각이야말로 사회주의를 떠받드는 공고한 정신적 기둥'이라고 강조(4.4,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은 저작 발표(4.6) 2주년 즈음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혁명 사상과 영도업적을 계승하여 반미대결전 승리, 핵보유 등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힘있게 내밀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영도 찬양(4.6, 중앙통신·노동신문)

나. 경제

- **유엔, 긴급구호기금 650만 달러 北에 지원(4/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북한 식량·보건 지원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약 69억원)를 투입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함.
 - OCHA는 지난 2월 세계식량계획(WFP)에 325만 달러(약 34억5천만원), 세계보건기구(WHO)에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원)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식량농업기구(FAO)에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에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를 전달하는 등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 북한 지원 사업에 모두 65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투입함.
 - OCHA 뉴욕본부 대변인은 “모금 부진으로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구들에 긴급지원금을 전달했다”며 “식량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분야에 쓰일 것”이라고 말함.
- **中 투먼-北 칠보산 관광열차 내달 2일 운행 재개 (4/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에서 출발해 칠보산 등 북한 함경북도 일대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중국인 대상 열차관광이 내달 2일 재개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현지 신문을 인용해 1일 보도함.
 - 2011년 시작된 투먼~칠보산 열차관광은 칠보산, 청진시, 경성 온천 등을 순회하는 5일 관광 코스이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강추위가 찾아오는 함경북도의 기후 특성상 관광열차 운행은 매년 10월에 중단됐다가 이듬해 봄 재개됨.

- 또한 투먼시는 열차관광 외에 버스로 함북 온성군 일대를 둘러보는 1일 관광과 투먼에서 걸어서 다리를 건너 북한으로 가는 ‘남양 보행관광’ 등 북중 접경지역 관광상품들을 운영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 무역상,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회담(4/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리룡남 무역상과 방북 중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공업·농업장관 간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조(북)-몽 정부 간 경제·무역 및 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선측 위원장인 리룡남 무역상과 몽골측 위원장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공업 및 농업상의 회담이 1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밝힘.
 - 이어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경제·무역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함.

● **北 김영남, 방북 몽골 공업·농업장관과 면담(4/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방북 중인 할트마긴 바트톨가 몽골 공업·농업장관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 추진(4/2,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몽골이 2일 ‘조선·몽골 친선공동회사’ 설립에 관한 양해문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과 황민 농업성 부상, 몽골측에서 할트마긴 바트톨가 공업·농업장관과 마니바드라힌 간볼드 북한 주재 대사가 참석함.
 - 한편 양측은 북한 무역성과 몽골 노동부 사이의 양해문에도 조인함.

● **“캐나다, WFP 통해 270만 달러 대북 지원”(4/2,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270만 달러(약 28억5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전함.
 - 디르크 슈테젠 WFP 평양사무소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나다가 기부한 자금으로 영양식품을 만드는 밀가루와 옥수수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슈테겐 소장은 또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이 배정한 긴급지원금 325만 달러(약 34억3천만원)가 지난달 WFP에 전달됐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 작년 3월 생산단위 ‘독자경영제’ 도입”(4/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조선(북한)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연구, 완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작년 3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생산 단위들이 경영 활동을 독자적으로 벌여나가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도함.
- 이어 독자 경영체제 도입은 “국가 계획을 벗어난 생산을 자체의 결심으로 조직하고 판매하며 종업원들의 보수, 복리후생 등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함.
- 조선신보는 독자 경영체제 도입 이후 평양326전선공장을 비롯한 일부 생산 단위들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생산 열의가 높아지면서 생산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소개함.
- 조선신보에 따르면 “앞선 단위’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손꼽히는 단위”인 평양326전선공장은 지난해 생산량이 2012년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대됨.

● **“FAO, 北 구제역 방역에 40만 달러 지원”(4/3,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의 구제역 방역을 위해 40만 달러(약 4억 2천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일 전함.
- 후안 루브로스 FAO 수의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구제역 감염검사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 계획을 확정하는 대로 북한에 구제역 방역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설명함.

● **北 노동신문 “식량 증산 위해 곡물재배지 늘려야”(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1면에 실은 ‘알곡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여 올해 알곡 고지 점령에 이바지하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알곡재배면적을 늘리는 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알곡재배면적을 늘려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라고 밝힘.
- 신문은 국토의 80%가 산림이고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적은 북한의 조건과 잇따르는 자연재해 등으로 경작지 확대가 필요하다고며 무엇보다도 벼와 옥수수 재배면적을 결정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함.

- 이어 경작지 확대를 위해 간석지 농사 대책을 세우고 임농(林農)복합경영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논과 밭 가운데 있는 건물을 산기슭에 옮기고 불필요한 농로와 물길, 양수장 등을 없애고 논이나 밭으로 재정리해야 한다고 독려함.

● 北, ‘국산품 소비’에 안간힘…“제품 질 높아자”(4/2; 4/4,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강서약수공장에서 생산되는 약수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가 날을 따라 높아지고 있다”며 강서약수의 맛과 질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주장함.
- 앞서 중앙통신은 2일 강서편직공장이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을 높였으며 운동복 등 의류 제품이 평양제1백화점을 비롯한 상점에서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소개함.
- 또한 2일자 조선신보는 ‘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1년, 생산현장의 변화’라는 글에서 평양326전선공장을 독자경영체제의 모범사례로 꼽으며 “이 공장 노동자들의 지향은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 사람들이 외국제품이 아니라 전선공장의 제품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전함.

● 北 경제간부들, 中서 경제특구·농촌개발 학습(4/6, 심천특구보)

- 6일 심천특구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 중앙경제부 리호선 부부장과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진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경제간부시찰단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광둥성 선전(深천<土+川>), 산시(陝西)성 시안(西安), 텐진(天津)직할시를 차례로 방문함.
- 리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경제시찰단은 지난달 28일 첫 방문지인 선전에서 시(市) 공산당위원회 장후(張虎) 조직부장 등으로부터 경제특구 개발 성공 경험을 집중적으로 전수함.
- 리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현재 여러 지역에 경제개발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내놨고 관련 법률과 법규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번 선전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경제특구 발전 경험을 배우고 참고해 조선(북한)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교훈을 얻고 조선이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의 길로 나가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함.

- 시찰단은 산시성 빈(彬)현의 여러 마을을 직접 방문해 농촌 치수사업과 강변 경관녹화사업 등 중국식 농촌 개발 모델을 배우고 도시계획, 도시경관디자인과 관련된 노하우도 꼼꼼히 살폈으며, 리 부부장은 농촌 견학을 마친 뒤 중국의 신농촌 건설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의 좋은 경험과 방식을 갖고 돌아가 우리의 실정과 결합해 신농촌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북한 시찰단은 이어 중국의 국가급 개발구인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를 방문해 빈하이신구 공산당위원회 위안통리(袁桐利) 서기 등 중국 간부들로부터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들음.

기타 (대내 경제)

- 강서편직공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제품의 질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생산에 도입한 기술혁신안은 20여 건이나 된다’고 선전(4.2, 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나노재료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한 “고성능 면적외선복사체(복사율 90% 이상, 각종 편직물들의 열처리공정 등 도입)”의 의료기구 제작에 도입 등 “경제적 실리가 크다”고 선전(4.3,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총리),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구장시멘트공장’을 찾아 발전소건설장에 요구되는 시멘트를 보장해줄 데 대해 강조(4.4, 중앙통신·중앙방송)

다. 군사

● 北, 軍지휘관 백두산 답사 부각…“혁명완수 계기”(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북한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 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1면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하자’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싣고 이번 행군을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 배워 조선혁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北 군인들, 서해 최전방서 ‘어선 나포 복수’ 결의(4/5, 노동신문)

- 북한 군인들이 4일 연평도 인근의 서해 최전방 지역에서 결의모임을 갖고 우리 군이 지난달 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어선을 나포한

- 사건을 비난하며 ‘복수결의문’도 낭독하는 등 ‘복수’를 다짐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함.
- 신문은 5일 1면에 “남조선 괴뢰 군부 깡패들이 우리 선원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용서치 않고 천백배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인민군 군인들의 복수결의모임이 4일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열렸다”고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모란봉악단, 평양서 지방으로…양강도 공연 시작(4/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모란봉악단의 평양 공연을 관람하고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며 양강도에서 첫 지방 공연을 위한 과업을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함.
- 노동신문도 2일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어로 힘있게 추동하는 음악포성’ 제목의 기사에서 “모란봉악단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특별히 사랑하는 예술단체이며 모란봉악단 공연은 누구나 기다리는 공연”이라고 소개함.
-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는 온 나라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며 모란봉악단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힘.

● 평양 만경대상 마라톤 외국인 관광객에도 개방(4/3, 영국데일리메일)

- 4월 3일 평양 시내에서 열리는 ‘만경대상 국제마라톤 대회’에 처음으로 아마추어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가 허용됐다고 미국 AP통신과 영국 데일리메일이 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 대회는 지난 1981년 북한 당국이 당시 김일성 주석의 69회 생일(4월15일)을 기념해 시작한 행사로 지금까지는 소수의 세계적 프로 마라토너들만 뛸 수 있었으나, 이번 대회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 **국제적십자자연맹, 北에 나무 64만 그루 지원(4/4,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이 북한에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IFRC는 여름철 홍수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지난 2일부터 평안남도 운산군을 시작으로 북한 전역 산간에 나무를 심고 있으며, 이를 위해 64만4천 그루의 묘목을 지원했고, 수종은 단풍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잣나무, 소나무, 포플러 등으로 알려짐.

- **“평양서 신형 스마트폰 ‘평양타치’ 인기”(4/4, 조선신보; 연합뉴스)**
 - 조선신보는 “‘평양’ 자호(이름)의 새 형 타치(터치)식 손전화기가 평양 시민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라며 “일명 ‘평양타치’로 불리는 새 형의 손전화기는 다양한 색깔과 깨끗한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4일 소개함.
 - 한편 북한 체신성이 지난 2008년부터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북한 주민들 속에서 휴대전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北,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소 구제역 발병 공식 통보(4/5,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돼지 구제역에 이어 소 구제역의 추가 발병 사실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통보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2일 리경근 농업성 수의방역국장 명의로 OI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14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52마리 가운데 9마리가 구제역에 걸려 그중 1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힘.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4월1일부터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및 새 학년도가 시작됐다’고 소개(4.1, 중앙통신·중앙방송)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4월 1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1, 중앙통신)
 - 김기남(黨 비서), 김용진(내각 부총리, 개막사), 리영수(黨 부장) 등 참가
- 평양시 요리축전,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맞으며 봉화산여관에서 진행(4.1, 중앙통신)
- 봄철 국토관리 총동원 기간에 즈음한 ‘봄철 청소년 적십자 나무심기행사’(4.2~13), 4월 2일 평안남도 은산군에서 진행(4.2, 중앙통신·평양방송)
- 만경대상 전국무도선수권대회(태권도, 바둑, 우수 등) 개막식, 4.3 태권도전당에서 최태복(黨 비서)·리영수(黨 부장)·김경호(조선태권도위원장/개막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3,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모란봉악단, 4월 4일 15시 삼지연문화회관에서 첫 양강도 순회공연 진행(4.4, 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9차 태양절요리축전, 4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4.4, 중앙통신)
- 천도교 창도 154주년 ‘천일기념식’, 4월 5일 윤정호(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 부위원장/기념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5,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양강도 순회공연 中), 4.6 대흥단군에서 첫 공연(郡 문화회관) 진행(4.6, 중앙방송·중앙통신)

2 대외 관계

● 北 송일호 “총련회관 해결없이는 북일관계 진전없다”(4/1, 연합뉴스)

- 1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1일 일본에서 강제 매각 판결이 내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회관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조일(북일) 관계 진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송 대사는 “장시간에 걸친 회담은 1년 4개월 만에 몽골에서 중단된 이후 열렸다”면서 “많은 문제들, 포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매우 폭넓게 진행됐다”고 평가함.

● 北 통신 “일본은 핵무기 보유할 어떤 명분도 없다”(4/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조선 핵위협론으로 핵무장화 책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초점을 맞춰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을 거론하며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함.
- 통신은 “오늘날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자면 나라의 안전과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과 같은 납득이 될만한 정치·군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핵우산’ 보호 아래에 있고, 더욱이 일본과 핵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역설함.

● 美일리노이 주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4/4, 연합뉴스)

-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일리노이 주상원의원(민주)은 3일(현지시간) 한미

우호네트워크(회장 진안순)를 통해 북한인권결의안이 하원을 거쳐 전달 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함.

-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실태를 고발하면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연방의회 일리노이주 의원들, 일리노이 인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北 “로켓 발사는 자위권…부정하면 美 위태롭게 돼”(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둬 비난하면서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 군사조치를 계속 부정하려 들다가는 미국 자체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라고 위협함.
- 신문은 4일 ‘자위권 행사를 짓밟으려는 미제에게 천백 배의 징벌을 안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의 더욱 더 노골화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에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하여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 권리를 모든 수단을 다하여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함.

● 美의회조사국 “대북 식량지원, 韓美 정책조화 필요”(4/5, 연합뉴스)

-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4일(현지시간) ‘대북지원’ 보고서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접근이 항상 조화로왔던 것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이후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원조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한국과 중국의 조건없는 대규모 지원에 의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5일 보도함.

● 로버트 킹 美북한인권특사 오늘 방한(4/5, 연합뉴스)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저녁 방한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킹 특사는 10일까지 우리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대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신문 “총련회관 강탈은 북일관계 파국 시한탄”(4/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법치의 간판 밑에 벌어진 강탈사기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총련 중앙회관이 외교관계가 없는 양국 사이에서 수십 년간 북한 ‘해외대표부’ 역할을 해왔다면서 “일본 당국이 진실로 조(북)일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조일관계의 운명을 망쳐놓을 수 있는 현 사태 앞에서 심사숙고해야 하며 총련회관 강탈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신문은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일본당국이 이런 망동을 부리는 것은 단순히 그들 특유의 표리부동성의 발로로만 볼 수 없다”며 “조일관계 문제에서 총련회관 문제를 공화국에 대한 압박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려는 간특한(교활한) 기도(시도)가 깔렸다”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美 오바마 대통령 주도의 韓美日 정상회담(3.25, 헤이그) 개최(북핵 대응 등)에 대해 “3각 군사동맹 강화책동”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부정적 후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3.31, 중앙통신·노동신문)
- 유엔 안보리의 ‘北 미사일 발사 규탄’에 대해 “그것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와 충돌만 불러오게 된다”며 ‘우리(北)의 훈련은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하게 강도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반발(3.31, 평양방송)
- 일본 집권세력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용인 움직임 및 무력공격사태법 등 10여개의 기존법 개정 결정 등 목적’은 ‘침략의 길을 또다시 걷자는 데 있다’고 우려(3.31, 평양방송)
-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알베르토 아나야 구피에레스), 3.26 北 노동당 대표단(단장: 안근성 멕시코 주재 北 대사,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 정당들의 제18차 토론회 참가) 면담(3.31,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영남, 4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 駐北 아일랜드공화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4.1, 중앙통신·평양방송)
- 리룡남(무역상), 4월 1일 평양에서 몽골 공업 및 농업상과 회담(4.1,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러시아대사관 일행, 4월 1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돌 즈음 남포종합 식료공장·대안천선유리공장 등 여러 곳 참관(4.1, 중앙통신)

- 일제의 성노예범죄 진상을 폭로하는 미군문서들 공개 관련 '과거 범죄를 왜곡·부정하고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국주의화·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기도의 발로'라며 '일본 특유의 파렴치성의 극치이며 사무라이적 근성'이라고 비난(4.1,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방위성 전략기획국 부국장의 對北발언(북 위협에 초점을 맞추어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등) 관련 '독자적인 핵무장화의 구실을 마련해 보려는 기도'라며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무장화를 정당화하여 우리(北)에 대한 핵선제공격도 무난히 치르자는 속심'이라고 비난(4.1, 중앙통신)
-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 등에 한국전 당시 가져간 문화재 반환을 주장하는 글들 게재 관련 미국은 '조선봉건왕조의 옥새뿐 아니라 문화재약탈범죄의 전모를 밝히고 문화유산들을 반환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4.1,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러시아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5주년에 즈음한 친선연환모임, 4월 2일 김진범(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北-러시아 친선 모란봉제1중학교에서 진행(4.2, 중앙통신)
- 미국의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발사시험 계획에 대해 "군사적 우위에 의한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무모한 기도"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4.3,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러시아연방 공산당 연해주위원회 대표단, 4.3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및 만경대 방문과 당창건사적관·주체사상탑·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메아리사격관 참관 등 訪北 동정 보도(4.3,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北 미사일 위협 대비 MD 강화 계획(美 의회, 2019년까지 미사일방위체계수립에 총 370억 US\$ 논의 등)'을 '亞-太중시 전략에 따른 무력증강 책동의 합리화 목적'이라며 '對北 적대시정책과 핵전쟁책동' 중단 주장(4.6, 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3.30), 4.3 유엔 안보리 공식문건 'S - 2014237호'로 배포(4.6, 중앙방송·평양방송)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드레스덴 선언’ 연일 비난…“허위·기만의 극치”(4/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입부리를 놀리려면 제코부터 씻으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는 체면도 없이 독일통일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 싶다느니 하며 아양을 떨었는가 하면 ‘연설’이랍시고 뭐니 하면서 희뽀개(거만하게) 놀아댔다”고 주장함.
 - 또한 “사실 박근혜가 추구하는 ‘통일’은 우리의 존엄높은 사상과 제도를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인 ‘체제통일’”이라며 “그런 흉악한 속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통일구상’이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니 그야말로 낮가죽이 두꺼워도 보통 두껍지 않다”고 비난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남북교류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남조선 당국은 각 계층의 북남 민간교류와 내왕(왕래)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나섰으며 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몇푼 올리는 것마저 외면해왔다”며 “이제와서 ‘공동번영’이니, ‘동질성 회복’이니 하고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야말로 허위와 기만의 극치”라고 지적함.

- **정부 “北, 시정잡배도 꺼릴 표현 써…비상식 행태”(4/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 대한 북한의 연일 거친 비난과 관련,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우리 국가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을 사용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신문, ‘드레스덴 선언’ 거듭 비난…“체제통일 시도”(4/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핵포기 망상, 체제대결광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의 지난달 네덜란드, 독일 방문에 대해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행각”이라고 주장함.
 - 특히 박 대통령이 독일에서 통일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박근혜가 독일의

-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무슨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입방아질한 것은 ‘체제통일’에 대한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대화나 파국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외세와 마주앉아 ‘단합된 대응’이니, ‘공조 재확인’이니 하며 우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박근혜에게 과연 북남관계 개선의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짐.

● **국방부 “파주 추락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4/3,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파주 추락 무인기에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보이는 무인기가 찍은 영상, 특히 서울을 찍은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 대변인은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추세였고, 우리들이 이미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차에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더 보강하겠다”고 밝힘.

● **백령도 추락 北무인기 소청도·대청도도 정찰비행(4/3, 연합뉴스)**

- 백령도에서 지난달 31일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날아왔다가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합뉴스가 3일 전함.
-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 무인기는 추정컨데 북한에서 (발진해) 소청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에서 추락했다”면서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왔다갔다하면서 사진촬영을 했다. ‘S’자로 섬 전체를 훑으면서 지나갔다”고 밝힘.

● **北, 대남 비난 지속…“대결의 길 목과하지 않을 것”(4/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북남관계는 대결정책의 농락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관련 발언과 드레스덴 대북 제안, 한미 연합 연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이 같이 주장함.

- 신문은 또 최근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비난한 북한의 행태를 정부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웁은 소리 몇 마디 한 것을 놓고 바작바작 신경질을 부리며 우리를 걸고 드는 것은 북남관계에 또 다른 해가 된다”라고 주장함.

● **北, 南 미사일 발사 비난…“우리 비난 체면 없을 것”(4/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전략군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남조선 괴뢰는 이제는 우리의 정정당당한 로켓 발사와 같은 자위권 행사에 대해 더이상 쫓겨달(떠들어달) 체면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도 이제는 우리의 자위적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함부로 걸고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전함.
-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군이 비공개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서남전선 열점수역(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진행된 포병 해상사격훈련과 무인기사건으로 불판 위에 오른 괴뢰당국이 사태 수습 방도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무인기 사건에 대해 자신들이 소행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난데없는 무인기사건까지 발생하여 가뜩이나 땅바닥으로 떨어진 괴뢰들의 체면을 더 구겨 박아놓았다”고 지적함.

● **북한제 추정 무인기, 강원 삼척 야산서도 발견(4/6, 연합뉴스)**

-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청옥산 줄기의 한 야산(고도 1천40여m) 중턱 940m 지점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면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방부는 “이번에 발견된 소형 무인기도 북한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식량차관 3차 상환금도 연체…정부 상환 촉구(4/2,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이 3차 상환금도 만기인 지난달 31일까지 상환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1일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 북한이 이번에 갚아야 할 3차 상환 원리금은 700만 달러이며,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포함하면 북한의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은 1천800만 달러 규모로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정부는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 어치의 식량을 지원함.

- **北 “우리 선원 승선 배 침몰…유관 측 협력 바람”(4/5, 조선중앙통신)**
 - 5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새벽 우리 국가해사감독국 아래 근해회사 선원들이 승선한 몽골 국적 무역 짐배(화물선) ‘그랜드포춘1호’가 중국 상해로 가던 도중 제주도 주변 수역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번 사고를 공식 확인함.
 - 통신은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배에 탔던 우리 선원 16명 중 2명은 사망하고 3명이 구조됐으며 11명은 행불(행방불명)된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우리는 유관 측들이 국제적 관례에 부합되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생존 선원들이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함.

- **정부, 구조된 북한 선원 3명 판문점 통해 송환(4/6, 연합뉴스)**
 - 정부는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한 몽골 국적 화물선에 탄 북한 선원 가운데 구조된 3명과 시신 2구를 6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송환했다고 밝혔다
 - 북한 선원 3명은 이날 오후 2시께 판문점에서 도보로 북측 지역으로 군사 분계선을 직접 건너갔고, 시신 2구와 유품은 대한적십자사가 북한 조선

적십자회 관계자들에게 인계하는 방식으로 송환이 이뤄졌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NLL 침범 北어선 구조·송환' 관련 '강압적 폭행·나포'를 재차 주장하며 '괴뢰 해군 깡패무리들이 저지른 치 떨리는 만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의 철추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4.1,평양방송)
-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이 심각한 역풍을 맞고 있다'며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북핵 발언과 드레스덴 대북 제안, 쌍용훈련, 대북전단지 살포에 대해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다시 금 대결과 전쟁위기의 극단으로 몰아가는 분별없는 망동'이라고 비난(4.4,중앙통신·노동신문·평양방송)
- '쌍용훈련 강행과 언론공개는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원수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격멸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야 말 것'이라고 위협(4.4,중앙통신·노동신문)
- 유엔 인권이사회의 '北 인권결의안 채택' 관련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北)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4.5,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은 민족분열의 원흉, 반통일 괴수,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라며 '남과 북, 해외 동포들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짓부수고 통일위업 실현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반미투쟁' 선동(4.5,중앙통신·노동신문)

04.07-04.13

4 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연일 축구경기 관람…이번엔 女축구(4/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함께 여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이 체육을 발전시키는 것은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중요한 사업”이라 강조했으며 북한식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해 국가 체육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시를 했다고 전함.
 - 관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김동하 군 중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장동운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 박태수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윤정린 호위사령관,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박태성·김승연 당 부부장 등이 수행함.
- 北, 정치수용소 확장, 대규모 처벌 임박(4/7, 산케이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7일 북한이 장성택에 의한 군사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간부 약 200명, 이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주변 간부와 가족 등 약 1천명을 선별해 구속했다고 전함.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16호(함경북도 화성), 25호(청진), 18호(평안남도 북창)에서 부지 확장이나 건물 증설 공사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산케이 신문이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신문은 구속된 약 1천200명이 현재 14호 수용소(평안남도 개천)와 15호 수용소(함경남도 요덕) 수용소 등 5곳에 일시 수용돼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장성택과 관련해 좌천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행방을 감춘 간부가 적지 않아 주요 직위에 공백이 많고 이 때문에 뇌물을 주고 자리

를 사는 매관이 성행하고 있으며, 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지도원은 5천~2만 달러(약 527만~2천109만 원)선에서, 지방 관리는 약 5천 위안(약 8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시리아 대사에 장명호 임명(4/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에 따라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에 장명호를 임명했다.”고 밝힘.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평양 집결..내일 회의(4/7,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8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에 참가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7일 조국 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했다”고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등과 함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21주년 중앙보고대회에도 참석했다고 보도함.

● **北 박봉주, 첫 공개연설...“김정은 영도체계 확립”(4/8,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박봉주 내각 총리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 보고자로 나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국방위원회의 명령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제때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기념대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양형섭·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로두철·김용진내각 부총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기남·최태복·김영일·김평해·곽범기 당비서,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함.

● **北, 노동당 정치국 회의 개최...조직문제 등 논의(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하루 앞둔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하에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가 열려 “당의 영도적 역할과 기능을 높이기 위한 기구 보강 문제와 조직 문제가 토의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하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인민생활 향상과 부강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힘.

● **北 ‘장성택 측근’ 문경덕 해임 확인...김수길로 교체(4/10,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 장성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문경덕이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서 해임된 사실이 10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 추대 평양시 경축대회를 녹음 실황으로 중계하며 “김수길 평양시 당 책임비서가 사회를 한다”고 소개함.

● **北 리일환 평양시당 비서, 당중앙위 부장에 임명(4/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전날 폐막했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와 리일환 당중앙위원회 부장, 관계 부문 일꾼, 선수와 감독들, 청년학생들이 폐막식에 참가했다”는 보도를 인용해 북한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로 활동한 리일환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음을 전함.

● **김정은 재추대한 北, 유일 영도체계 강화 박차(4/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는 사설에서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의 재추대는 전체 당원과 군 장병, 인민의 의지라고 찬양함.
- 사설은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며 “김정은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나아갈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기념사진(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평양 만수대언덕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 앞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함.
 - 10일 사진 촬영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항일빨치산 1세대인 리을설·김철만, 김기남·최태복·박도춘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최영림·리용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 강석주 전 내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고위간부가 함께함.

- **北 김정은, 재일동포에 교육비 21억원 지원(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2억780만 엔(약 21억 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이 돈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모두 160차례 보냈으며 이는 액수로 473억3천 115만390 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 **北 '외교통' 강석주, 내각 부총리서 당 비서로 옮겨(4/13,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최근 내각 부총리에서 물러난 북한 '외교통' 강석주가 노동당 비서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가 이날 멕시코 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했다고 전함.
 - 이는 지난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내각 부총리에서 해임된 강석주가 당 비서직을 새로 맡게 됐다는 의미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 김정은동향

- 4/9, 김정은 黨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1차 회의 진행(4/9,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양형섭, 최영림, 강석주, 리용무, 김원홍, 최부일, 김양건, 김평해, 광범기, 오수룡, 로두철, 조연준, 태중수, 김영태가 수행
- 4/10, 김정은 黨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만수대언덕 김 父子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4.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최을설, 김철만,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최영림, 리용무, 박도춘, 강석주, 김원홍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농업근로자들과 농공맹원들의 경축모임, 4월7일 리명길(농근맹 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안북도 곡산군에서 진행(4.7,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2012.4.11) 2돌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4월 7일 인민대학습당에서 개막(4.7, 중앙통신·평양방송)
 - 김기남(黨 비서), 김용진(내각 부총리, 개막사) 등 참가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4.9현상주(「직총」위원장/보고)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은 黨 제1비서 추대(4.11)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4.13)'2주년 경축모임(당창건기념탑광장)진행(4.9,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3.4.9)'21주년 즈음 김정일의 '자주·선군·인덕정치'와 "최대 업적인 영도의 계승문제 완벽해결" 등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업적' 회고 칭송(4.9, 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최고인민회의 정령, 4월 13일 폭발물처리 中 사망한 황해남도 인민보안국 인민보안원들에게 국가표창 수여(4.13, 중앙통신)
 - 강필훈(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박영호(황해남도당위 책임비서) 등 참가
 - 최용일, 오명수 : 영웅칭호와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 제1급이 유가족들에게 전달
 - 김창일, 임창석 : 국기훈장 제1급 수여

나. 경제

● 北 신문 “과학기술 발전 못하면 ‘기술식민지노예’ 돼”(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사상, 제도, 생활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의 선봉에 선 전초병들”이라며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밟개버려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안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에너르기(에너지)문제라고 제시함.

● **러시아, 北나진항 통해 석탄 첫 수출(4/10,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모스크바타임즈)**

- 러시아가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항을 통해 시베리아산 석탄 수출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언론을 인용해 10일 보도함.
- 모스크바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철도공사는 지난달 말 서시베리아 쿠즈바스 탄광에서 생산된 9천t을 화물열차로 나진항에 이송하고 배에 선적했으며 이 석탄은 동해를 거쳐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동부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임.
- 이번 석탄 수출은 러시아가 나진항의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러시아 연해주의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열차 운행과 통관 체계, 화물 하역 등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RFA는 설명함.

● **“프랑스NGO, 北노인에 100만달러 식량지원”(4/1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의 민간 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북한 노인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이 단체는 올해 1월 북한 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국제개발청에서 지원받은 100만 달러(약 10억3천만원)을 27개월 동안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우선적으로 지원할 대상은 북한 조선연로자(노인)보호연맹에 소속된 180명과 양로원 등 은퇴자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7천200여 명으로 전함.

● **“캐나다 민간단체, 北에 영양가루 지원”(4/12, 미국의소리(VOA))**

- 캐나다 민간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올해 들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영양가루 478만 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함.
- 퍼스트 스텝스 측은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영양가루 외에도 메주콩 100t이 북한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수전 리치 퍼스트 스텝스 대표는 ‘스프링클스’라는 이름의 이 영양가루가 강원도 원산과 평안남도 남포 지역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 학술지, 무역 다각화 강조하며 러시아 주목(4/1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3일 입수한 북한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희(지난 2월 15일 발행)에 실린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여기서 러시아와의 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논문은 “우리는 러시아와 오랜 기간에 걸쳐 경제거래를 해온 풍부한 경험과 토대도 가지고 있다”며 “러시아와의 무역, 특히 원동(극동) 지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다. 군사

● 북한제 추정 무인기, 엔진 개조해 비행거리 확대(4/7,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당국 관계자는 7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100~120km로 비행한 점과 삼각형 모양의 기체구조를 볼 때 이들 무인기가 총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8km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으나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130여km떨어진 곳에 추락했기에 북측귀환 거리를 단순 계산 하더라도 총 비행거리가 260km넘으며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함.

● “북한, 평양서 김정은 암살 대비 훈련”(4/8, 환구시보(環球時報))

-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달 15일 평양에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군, 중앙의 각 기관 및 부문 수장이 모두 참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피습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벌였다”고 8일 보도함.
- 또한 신문은 “훈련의 목적이 적대세력과 테러리스트들이 최고지도자를 해치는 것을 막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백두혈통’의 승계를 확실히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 전함.

- **北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강필훈으로 교체(4/12,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북한 인민보안부(우리의 경찰청에 해당)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 리병삼에서 강필훈으로 교체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재추대를 축하하는 인민내무군 경축대회가 11일 열렸다고 이 대회 보고지를 ‘강필훈 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으로 소개함.

- **북한군, 김일성 생일 맞아 김정은에 충성맹세 대회(4/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13일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병사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경의를 표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예식을 했다고 보도함.
 -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참석함.
 - 최 총정치국장은 특히 “군인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올해 인민군대 사업의 중심 고리로 틀어쥐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콩 농사와 수산, 축산의 3대 열풍을 일으키며 후방사업 전반에서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겠다”라고 강조함.

라. 사회·문화

- **北 “식생활 문화 개선하자” 다양한 요리축전 개최(4/6~7, 조선신보; 노동신문)**
 - 조선신보는 7일 제19차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요리축전’이 지난 2~4일 평양면옥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소개함.
 - 노동신문도 6일 보도를 통해 태양절 요리축전 참가자가 1만여 명을 기록했다며 “요리사들의 수준을 높이고 인민들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함.

- **북중 합작 김정일 밀랍상 北국제친선전람관에 전시(4/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야전복 차림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밀랍상이 8일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국제친선전람관에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개관식에서 최태복 노동당 비서는 이 밀랍상에 대해 “중국 위인납상관 성원들이 온갖 지성을 다 바쳐 김정일 동지 납상을 성의껏 형상하고 조선(북한)창작가들이 장군님(김정일)의 납상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더 잘 형상 완성했다”고 설명함.
 - 개관식에는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외에도 중국 측에서 류홍차이(劉洪才)주북 대사와 위인납상관장이 참석함.

- **유엔인구기금, 北임산부 의료지원에 25만달러 투입(4/9,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최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서 받은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25만 달러(약 2억7천만원)를 북한 임산부 의료 지원에 사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보도함.
 - 아리에 허크만 UNFPA 북한 사무소장은 RFA에서 지난해 홍수 피해를 본 지역의 보건시설 30여곳에 임산부 응급약과 출산용품 등의 지원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올해에도 1만 8천 명의 북한 임산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슈퍼마켓·맥줏집에 포인트 카드 등장”(4/10, 조선익스체인지)**
 - 10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평양 창전거리에 있는 ‘해맞이식당’에서 손님이 결제 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는 제도가 생겼다고 전함.
 - 이 식당은 ‘전자봉사카드 소개’라는 안내문에서 “창전 해맞이식당과 분점들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봉사 받는 손님들은 지불금액에 따라 해당한 점수를 전자봉사카드에 적립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전자봉사카드를 슈퍼마켓과 빵집, 맥줏집에서 쓸 수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조선익스체인지는 낙원백화점이 몇 년 전 평양에서 포인트 카드를 처음 도입한 상점이라고 전함.

● 北 모란봉악단 작곡가 3명에 ‘노력영웅’ 칭호(4/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12일 정령을 통해 모란봉악단 소속의 작곡가 황진영, 우정희, 안정호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마치고 낮이 새겨진 금메달,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했다고 13일 보도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들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사상예술성이 강하고 인민들의 진실한 감정을 담은 명곡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천만 군민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 추동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평가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에 즈음한 행사를 옥류아동병원에서 진행(4.7, 중앙통신)
- 평양에서(형제산구역, 하당닭공장)3.21‘조류인플루엔자(AI, H5N1형)’발생(리경군, 농업성 국장, 현재 전국으로 계속 확산에 따른 “전국에 조류독감비상방역 선포” 등 방역대책 주력(4.9,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 4.9 해산시(양강도 순회공연 中)공연개막(도예술극장) 선전(4.9, 평양방송·중앙통신)
- 제5차 전국의료기구전시회(4.9~11),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4.11, 중앙통신)
-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식, 4월1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4.11, 중앙통신)
 - 김기남(당중앙위 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용진(내각 부총리), 차희림(평양시 인민위 위원장), 한철(문화성 부상/개막연설) 참가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반적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등을 소개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선전(4.11, 중앙통신)
- 모란봉악단, 4월11일 양강도 순회공연 마치고 해산에서 출발(4.11, 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통신 “美, 南에 무기 팔아 핵전쟁 준비” 비난(4/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미국이 남한에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판매하려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 비난함.
 - 중앙통신은 7일 논평에서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계획인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가 “미국의 핵전쟁 전략 실현에서 핵심수단들”이라며 “미국은 이러한 첨단 전쟁장비로 괴뢰(남한)를 완전무장시켜 동족과의 새로운 전쟁, 제2의 조선전쟁의 일선에 내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최근 미국의 전략가들 속에서 ‘북조선 붕괴’에 대비한 전쟁계획들은 완성됐지만, 남조선의 군사장비들은 이 선제공격 요구에 따라지지 못한다는 소리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우연치 않다”며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호크의 판매로 “새 전쟁 도발의 군사적, 물질적 준비를 완성”하려한다고 주장함.

- **北 신문 “과거청산이 북일관계 정상화 선결조건”(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법적, 도덕적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을 통해 최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무라야마(村山)담화에 대한 수정 논란이 생긴 것을 언급하며 “과거청산이야말로 조(북)일 관계 정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엄청난 정신도덕적·인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서도 시치미를 떼는 일본과 막대한 재난을 당하고 아무런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한 우리 공화국 사이의 관계가 바로 되자면 무엇이 필요한가는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라며 “조일 관계 개선 문제가 해결되자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역사적 미결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지적함.

- **北노동신문, 美 MD체계 비난···”군사적 패권 계산“(4/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책동은 합리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거론하며 “미국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위체계 수립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신문은 “문제는 미국이 판에 박은 우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 대면서 미사일 방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운운한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을 궤변이라고 반박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는 조건에서 우리가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함.

- **北, 납북자 재조사 의향전달···日 제재완화 검토(4/10, 니혼게이지아이 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비공식 협의에서 일본에 밝혔다고 니혼게이지아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5-6일 열린 외교 당국자 협의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부과한 제재(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가 북한을 방문하면 일본으로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도항 금지’)의 해제를 조건으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신문은 북한이 재조사에 응하면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일본 측이 협의에서 밝히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납치피해자뿐만 아니라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특정실종자’에 관한 조사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북한 역시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응할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함.

- **北 국방위 “美 ‘적대정책’ 계속되면 대응조치 할 것”(4/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이 남한의 미사일에는 눈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을 부당하게 문제 삼는다면 이중기준에 따른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거듭 위협함.
 - 국방위는 11일 발표한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가 남한에서 지난달 진행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발사나 자위적인 로켓 발사 훈련에 대한 대응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미국의 날강도적인 이중기준에 따른 대조선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끝장내기 위한 자위적인 대응조치들을 계획한 대로 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北, 美 이지스함 日 배치계획 비난…“무력증강 책동”(4/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에 이지스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것은 북한을 구실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력증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6일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힌 사실을 거론하며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 실현을 위한 무력증강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밝힘.

● **中 시진핑, 北 김정은에 ‘재추대 축하’ 축전(4/13, 조선중앙방송)**

-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추대를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함.
- 시 주석은 지난 11일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또다시 추대되신데 대하여 축하를 보낸다”라며 “나는 형제적 조선 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의 여러 분야에서 반드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고 믿는다”라고 밝힘.
- 그는 “전통적인 중조(북) 친선은 두 나라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키워주신 것이며 우리의 귀중한 공동의 재부”라며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국제기구, ‘사전 통보없는 미사일발사’ 北에 문제제기(4/13, 연합뉴스)
 -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 10일 북한 민항총국장에게 이번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피영향국에 알려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로켓 발사 시 사전 통보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비행체 발사 시 사전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코지 세키미츠(關水康司) 사무총장 서한을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 앞으로 발송했다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일성 생일에 즈음한 北문화전람회, 4.3~6 베이징에서 진행(4.8,중앙통신)
- 김영남, 4월 10일 駐北 헝가리 대사의 신임장 접수 후 담화(4.10,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3월 30일 日당국의 총련 탄압 규탄 성명 발표(4.10,중앙통신)
- 팔레스타인 대통령, 4월11일 김일성 생일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꽃바구니 전달(4.11,중앙통신)
-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대표단(단장:김철성 제1부위원장), 4월 11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4.11,중앙통신)
- 北 대표, 유엔 군축위원회 연례회의(4.7)에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핵위협공갈로 일관된 합동군사 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우리(北)의 자위적 대응조치들을 도발·위협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연설(4.12,중앙통신)
- 타지키스탄(4.8)·미얀마(4.4)·우간다(3.26)대통령,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김일성 생일(4.15,태양절) 102주년 즈음 각각 축전 발송(4.12,중앙통신)
- 재일동포 조국방문단(단장:박해철 「총련」 부국장), 4.12 평양 도착(4.12,중앙통신)
- 조선노동당 중앙위, 4월 13일 멕시코노동당 대표단 위해 연회 마련(4.13,중앙통신·중앙방송)
- 강석주(黨 중앙위 정치국 위원이며 黨비서, 연설), 박근광(黨 부부장) 등 참가

나. 6자회담(북핵)

- 北 노동신문 “핵억제력 없으면 수모와 비극 겪을 것”(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7일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장문의 정론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강조함.

- 신문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는데 대해 “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우리를 지킬 힘이 없어 그 어떤 강압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안정되고 정이 넘치던 우리의 사회주의 요람은 엄청난 파산에 직면하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비극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러 “한미, 북핵 해결에 ‘무력 우선’ 중단해야”(4/10,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해결하는 데 무력사용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외무부는 10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은 우려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특히 긴장완화 분위기가 상호 비방전과 정면 대립으로 바뀌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하면서 “(오는 18일 까지 계속되는)대형 군사훈련 폴이글(Foal Eagle)을 펼치면서 한국과 미국이 기록적인 규모의 항공기를 동원한 새로운 공군력 훈련에 돌입했다”며 “이는 가상 적의 영토에 있는 목표물에 대한 정밀타격을 연습하고 적 배후에서 작전하는 전복세력을 지원하는 훈련이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함.
- 외무부는 또한 “모든 논쟁 여지가 있는 문제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임.

● 황준국 “北 엄중한 상황, 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4/1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 위협을 하고 있고 추가도발이 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 때문에 한·중 간에 긴밀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함.
- 황 본부장은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 핵 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가 돼야 하며 그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힘.

● **北, 한미일 6자수석 회담 비난…“비핵화와 반대방향”(4/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미국에서 최근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정세를 고의로 긴장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오히려 조선반도(한반도)의 사태 발전을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함.
- 통신은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 대해 “서로 마주 향해 인사도 하지 않으려는 손아래 동맹자들(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키기 위해 미국은 공연히 우리 문제를 3자 회합의 의제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한중 6자수석, 한반도 정세·6자재개 문제 논의(4/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양자 회동을 하고 현재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면담 및 만찬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류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도 만났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2일 밝힘.
- 주중대사관은 “양측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북한의 핵실험 위협 등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고 우려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양측은 북한의 도발, 특히 추가 핵실험에 반대하면서 이러한 도발 억지를 위해 상호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수 있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南, 관계개선 바라면 비방중상 중지해야”(4/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집권보수패당은 그 무엇으로서도 비방중상의 중지에는 관한 북남 고위급 접촉 합의를 난폭하게 짓밟으면서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 속에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한 “우리에 대한 괴뢰패당의 갖은 악담들과 도발적인 망동은 뺏속까지 들어차 있는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 병적 거부감의 필연적 산물이며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을 당장 중지하고 북남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함.

- **北, 南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미사일에는 미사일로”(4/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과학원은 7일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괴뢰패당은 더이상 우리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할수 없게 되었고 유엔 안보리사회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도발적 책동에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단호히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한 “만일 북반부의 어느 지역에 미국 미사일이건 괴뢰 미사일이건 한발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적 본거지를 무자비한 미사일 세계로 불마당질하여 흔적도 없게 쓸어버릴 것”이라며 남측에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함.

- **北, 南 미사일 발사 연일 비난…“한반도 긴장 부채질”(4/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미사일 위협을 운운하기 창피하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군이 지난달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미사일사령부를 창설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사일 선제타격을 노린 책동”이라고 주장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이런 자들이 우리에게 대해 ‘위반’이니, ‘도발’이니 하고 샷대질을 하면서 새로운 ‘제재’까지 가하려고 발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가”라고 비난함.
- **北통신 ‘어선 나포’ 비난…“인도주의 논할 자격 없어”(4/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에만도 인도주의와 상반되는 행동들을 적지 않게 해온 그들(남한)은 사실상 인도주의를 입에 올릴 체면도 없다”고 밝힘.
 - 이 통신은 또한 “‘대통령’이랍시고 박근혜가 해외를 돌아치면서 우리의 ‘인도주의’와 ‘인권’이 이렇소 저렇소 하고 횡설수설할 때 수하 졸개들은 안에서 동족의 선원들을 강제 납치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함.
- **北통신, 南미사일개발 비난…“외세 추종 동족살인극”(4/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논평에서 우리 군이 최근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사실과 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했다는 보도 등을 거론하고 “외세에 추종해 순전히 동족말살을 전제로 감행되는 동족 살인극”이라며 “섞 지고 불 속에 드는 경거망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밝힘.
 - 또 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의 경우 “미국과 미제 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언제 한번 동족을 겨냥하거나 남조선 전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 **北 국방위, 드레스덴 선언 비난…“흡수통일 논리”(4/12, 조선중앙통신)**
 - 국방위는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구상을 밝힌 장소로 독일 드레스덴을 택한 것에 대해 “도이츨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폄훼함.

- **北단체, 한미 공군훈련에 “본거지 초토화” 위협(4/12,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2일 대변인 성명에서 맥스선더 훈련 기간 “남조선 상공을 뒤덮을 100여 대의 비행기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 공화국을 향해 기습적인 공격을 가하여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핵미사일을 미친 듯이 쏟아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불은 불로 다스리고 도발자들이 총을 내들면 대포를 내대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기질”이라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현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관련 남북대화에도 소극적(4/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 2월 시작된 뒤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된 대화에도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8일 전함.
 - 통일부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등 회의를 개최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뜻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호응해오지 않는 상태”라고 밝힘.
- **정부, 민간단체 인도적 대북지원 추가 승인(4/9, 연합뉴스)**
 - 통일부는 9일 민간단체 ‘섬김’이 신청한 함경북도 나선 지역 산원(산부인과 병원)에 기저귀, 기초 의료용품 등 1천700만원 어치 상당의 물품 반출을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올해 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총액은 19억5천만원으로, 정부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대북제재 차원에서 시행된 5·24조치와 상관없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임.
 - 지난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은 개성공단 잠정 폐쇄 등의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이명박 정부 후반기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51억원에 그쳤으나 대신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간접적인 대북지

원 규모는 2011년 65억원, 2012년 23억원에서 2013년 135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전함.

● ‘실종 북한 선원’ 추정 시신 신원확인 北에 요구(4/11, 연합뉴스)

- 지난 4일 전남 여수 외곽 공해에서 침몰한 몽골선적 화물선 실종자 수색 구역 안에서 8일 북한 선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된 것과 관련 정부는 11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인양된 시신 사진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보내 침몰한 북한 화물선 선원이 맞는 지 확인을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 “5·24 해제, 北 책임있는 조치가 우선”(4/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면서 “5·24 조치는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는 11일 류길재 장관의 국회 답변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강조함.

■ 기타 (대남)

- 박 대통령의 ‘北 경제난’ 등 언급(독일 드레스덴)과 통일부 장관 및 외교부 장관의 對北 발언들(약속 불이행시 국물도 없다, 도발에 여념이 없다)을 거론하며 ‘진실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비방 중상을 중지하고 남북합의 내용을 존중,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4.7, 중앙방송·노동신문)
- 김일성저작(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발표 21돌(1993.4.6)을 맞으며 ‘韓美의 반통일책동이 강화될수록 단결의 힘, 단합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은 민족의 대단결로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고 선동(4.7,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의 ‘무인기소동’은 ‘괴뢰호전광들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하여 저들에게 날아드는 내외여론의 비난과 조소, 야유를 모면해보려는 알팍한 오그랑수’라고 중단 주장(4.9, 중앙통신·민주조선)
- 우리 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對北 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등 ‘北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민족반역 무리들만이 할 수 있는 히스테리적 망동, 자기당착의 어리석은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4.9, 중앙통신)
-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北이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했다)에 대해 ‘비방·중상 중지 합의를 깬 것은 北이 아니라 南당국’이라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면 자신부터 입건사를 잘하고 제 집안을 잘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4.11, 중앙통신·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4.14-04.20

4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南대북 비방증상 진상공개장’...“단호히 대처”(4/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발표한 ‘진상공개장’을 통해 남측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원회 ‘중대제안’, 북한의 ‘자위적인 핵무력과 미사일 무력’,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헐뜯고 ‘인권소동’, 대북 전단살포에 매달렸으며 ‘급변사태설’과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으로 ‘체제통일’의 ‘흥심’을 드러냈다고 하며 “박근혜야말로 비방증상의 왕초이고 주범”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조평통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어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낼 흥심을 드러냈다”고 한 주장을 전함.

- 北 김일성 생일 맞아 김정은 ‘인민사랑’ 부각(4/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영원히 인민들 속에서’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전사들과 인민들 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였던 김 주석의 면모를 칭송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대를 이어 ‘이민위천’(以民爲天·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긴다)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이념을 한 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이 있어 북한 주민들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4/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102회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규모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밝힘.
 - 조선중앙TV는 보고대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태복·김기남·강석주·김평해·박도춘·곽범기 노동당 비서, 김용진·로두철·리철만·리무영 부총리,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02회 생일(태양절)인 15일 0시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김동화 군 중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일성 생일…김정은 유일영도 강조(4/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사상과 노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김일성)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다”고 밝힘.
-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사상도, 영도도, 품모도 백두산 위인들(김일성과 김정일) 그대로이신 천출위인”이라며 “전 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주체혁명 위업의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제일중대사”라며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의 혈통을 영원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 기록영화서 김경희 모습 삭제…‘흔적 지우기’ (4/16,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15일 오후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건립 업적을 다룬 기록영화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만대에 빛내이시려’를 재방송하면서 김경희 당 비서가 나왔던 장면을 빼고 기존에 없던 다른 화면을 대체하여 보도함.

- 2013년 12월 13일 처음 방영된 이 기록영화에는 김경희 당 비서가 2012년 12월 17일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 때 검은 상복을 입고 김정은 부부,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나 이번 재방송된 영상에서는 이 장면이 빠지고 김정은과 부인 리설주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는 화면으로 대체되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는 기록영화에서 김 당 비서뿐 아니라 장성택의 측근으로 최근 평양시 당 책임비서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된 문경덕이 나오는 장면도 삭제되었다고 전함.

● 통일부 “김경희, 당 직위 물러난 것으로 추정”(4/17,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7일 보도를 통해 통일부가 북한이 김경희 당 비서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 “김경희가 당 관련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숙청까지 갔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 기록영화는) 2013년 12월13일 최초 방송 이후 올해 1월 4일, 1월 5일, 2월 16일, 4월 15일 등 4회 추가 방영됐는데 2월 16일 이후에는 김경희 장면이 대체됐다”고 보도함.

● 北 ‘실세’ 황병서 당 제1부부장, 대장 승진(4/20, 연합뉴스; 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꼽히는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상장(별 3개)에서 대장(별 4개)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노동신문이 20일 게재한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사진에서 황병서가 어깨에 대장 계급장을 달고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으며, 그는 지난 15일 열린 비행사대회의 주석단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왼쪽 두 번째 자리에 군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김정은, 전군 조종사대회서 한미공중훈련 비난(4/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북한이 4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로 전군의 모든 조종사가 참가한 제1차 ‘비행사대회’를 열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들이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벌려놓은 데 이어 또다시 연합공중훈련이라는 불장난질을 벌려놓음으로써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며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그는 또 “조선반도의 남쪽 상공에 제국주의 쉬파리떼가 덮여 있는 험악한 정세 속에서 조국의 영공을 다 개방해놓고도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대회를 진행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배짱과 담력의 승리, 기개의 승리”라고 주장함.

김정은동향

- 4/14, 김정은 黨 제1비서, 시리아 대통령에게 독립 68돌 즈음 축전(4.16, 중앙통신)
- 4/15, 김정은 黨 제1비서의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에 전국 육아원·애육원들에 식료품들의 복류 전달 찬양 반향(김성옥, 남포시 육아원 의사) 보도(4.15, 중앙방송)
- 4/20, 北, 4월15일 09시 김정은 黨 제1비서(개회사/개.폐회선언)가 참가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진행(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보고), 장정남, 서흥찬, 황병서, 리병철, 장동운 등 참가
- 4/20, 김정은·리설주, 4월 16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관람(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4/20,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17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4.20,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영길, 장정남, 서흥찬, 황병서, 리병철, 장동운 참가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방송대학 제48기 개학식, 4월 14일 양형섭(김일성방송대학 학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 부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4.14, 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4월 14일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을 위해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 마련(4.15, 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4월 14일 김기남(당중위 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4.15, 중앙통신)
- 김영남, 4월15일 멕시코 노동당 전국지도자·김일성-김정일기금이사회 공동이사장·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이사장·러시아 신문 ‘자브트라’ 책임주필과 면담(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인민군들과 각 계층 근로자들의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와 중앙·지방의 극장들에서 경축공연(음악회·연극 등)과 각지 근로자들의 체육·유희오락경기 등 “태양절을 뜻 깊이 경축했다”고 선전(4.15, 중앙통신)
- 김영남·박봉주·장정남·김기남(연설) 등 당과 국가·군대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해외동포 대표단 당장 등 참가 및 주북 외교·국제기구 대표와 무관부부들을 초청한 가운데 4.15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일성 생일(4.15, 태양절)경축 연회 진행(4.16, 중앙통신)

나. 경제

- **지안-평양관광 12년 만에 재개… 북중관계 변화오나(4/14, 신화통신; 아주주간(亞州周刊))**
 - 신화통신은 13일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열차를 타고 지린성 지안(集安)을 출발함으로써 이 관광코스가 재개통된 것에 대해 지안시 정부와 북한 국가관광총국, 자강도 만포시 인민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 보도함.
 - 아주주간(亞州周刊)도 지린성 공안 변방총대를 인용해 이번 지안-평양 관광코스 운영 재개가 북한 측 요구로 이뤄졌다고 전함.
 - 또 아주주간은 지난 1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평양 국제열차 운행 60주년을 맞아 단둥시 정부는 북중 간 기념식 공동 개최를 원했지만 끝내 열지 못하는 등 양국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 보도함.

- **“중국, 북한 주민에 취업비자 발급 제한”(4/15, 아사히신문)**
 - 아사히(朝日)신문은 양국 무역중개업자들을 인용,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연(年)단위 장기 취업비자 발급이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무자에 대한 단기 취업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중단됐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중국이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도발행위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北 “포전담당제 성과”…제도 안착에 주력(4/16, 연합뉴스; 조국)**
 - 연합뉴스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월간지 조국 4월호가 지난해 북한의 농업 부문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제가 실시돼 알곡 생산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됐다고 평가한 보도를 전함.
 - 뉴스는 조국 4월호를 인용해 “포전담당제를 도입해 성과를 낸 모범 사례로 평안남도 원화군 원화협동농장을 들었으며 이 농장은 포전담당제 이후 책임감이 강화돼 모범단위인 3분조의 경우 생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1인당 평균 1톤의 생산물을 현물로 분배했다”고 전함.

- **북한, 장성택계열 ‘승리무역’해산·재편중(4/16, 요미우리신문)**
 -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전 장악하고 있던 ‘승리무역회사’가 해산된 뒤 현재 재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16일 보도함.
 - 신문은 “회사가 대부분 군에 귀속됐으며, 일부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실로 옮겨졌으며 승리무역회사 간부를 교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사상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北내각 확대회의 개최…“농업에 역량 집중”(4/18, 연합뉴스; 민주조선)**
 - 연합뉴스는 18일 입수한 민주조선 4월13일자를 인용해 박봉주 총리, 로두철 국가계획위원장 겸 부총리 등의 경제 간부들이 참석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함.
 - 민주조선은 “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위한 투쟁에서 주타격 방향인 농업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며 수산 부문에 힘을 넣을 데 대한 대책적 문제들이 중요하게 토의됐다”고 전함.

- **북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안간힘’(4/1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8일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이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늘리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북한은 노동절 연휴를 전후해 본격화하는 중국의 관광성수기를 앞두고 장기간 중단했던 중국인 상대 관광코스를 다시 열고 ‘테마형 관광’ 같은 신상품을 내놓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자국과 접경한 지린성 여행사들을 통해 나선시 일대를 둘러보는 3일짜리 자가용 관광상품 판매 등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러시아 하원, 북한 채무 11조원 중 90% 탕감 승인(4/19, 연합뉴스)**
 - 러시아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채무 108억 달러(약 11조3천억원) 중 90%를 탕감하는 협정을 비준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이 협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2012년 9월 17일 맺은 것으로 북한이 옛 소련 때 졌던 채무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인 10억 9천만 달러는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이 골자이며, 북한의 채무 상환금을 러시아와 북한의 공동 투자 사업에 쓴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예성강청년4호발전소 건설이 '마감단계(총 공사량의 85% 수행)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선전(4.17, 중앙통신)
- 전국 각지의 논갈이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배 증가, 500여만 톤의 비료 생산 등 선전(4.18, 중앙방송·노동신문)
- 홍건도간석지 건설장, 4월 18일 25만산 대밭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4.19,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마라톤대회서 쌍둥이 자매가 1, 2위(4/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6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지난 13일 개최된 만경대 상마라톤대회에서 쌍둥이인 김혜경-김혜성 자매가 우승과 준우승을 휩쓸었다고 전함.
- 또 “쌍둥이 마라톤 선수들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소개함.

● 北, 평양관광대 신설...관광 인재 육성 노력(4/1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6일 북한이 관광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평양에 관광대학을 만든 것과 관련하여 이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며 “평양에 관광대학이 설립되고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광학부가 신설됐다”고 전함.

● “北, 세계기상기구에 실시간 기상정보 불성실 제공”(4/16,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에 가입한 북한은 북한지역의 실시간 기상정보를 3시간 간격으로 WMO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집하지 않은 오래된 기상정보를 간헐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것마저 수시로 누락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도함.

● “北, 세계탁구선수권 도쿄대회 출전”(4/17, 조선신보)

- 북한이 4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밝힘.
- 조선신보는 또 북한 선수단은 주정철 조선탁구협회 서기장을 비롯한 임원 및 코치 5명과 남녀 선수 각각 4명 등 모두 13명이고 선수단에는 작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김혁봉(남)과 김정(여)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함.

● 北 방송 “평양과 황해도 심한 봄 가뭄”(4/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7일 ‘가물(가뭄)통보’를 통해 “봄철에 들어와 서해안 중부 지방에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 심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이날까지 약 두 달 동안 황해남북도의 평균 강수량은 3.1mm로,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기상 관측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평양도 지난 3월 29일 비가 6mm내린 이후 끊겼다며 “1982년과 유사한 가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함.

● 北, 월북작가 한설야 칭송…“수령소설 선구자”(4/20, 연합뉴스; 사회과학원 학보)

-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북한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신호(2월 15일 발행)는 『한설야와 장편소설 ‘역사’』라는 글에서 한설야의 이력과 문학세계를 소개하면서 그를 “수령형상소설 창작의 초행길을 개척한 선구자”라고 평가함.
- 사회과학원 학보는 한설야의 대표작으로 김 주석의 항일빨치산 투쟁을 소재로 한 장편소설 ‘역사’(1953년 작)를 소개하면서 한설야가 이 장편소설에서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영군술, 숭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명 깊게 형상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청년학생들 경축무도회, 4월 15일 평양체육관광장 개선문광장 등 평양시내 무도회장들과 각 도 소재지 시·군들에서도 진행(4.15,중앙방송·중앙통신)

- 국제육상연맹-제27차 만경대상 마라톤경기 대회 참가 외국 선수들(나미비아·남아프리카·짐바브웨·우크라이나·스페인·이집트·에티오피아·케냐·중국·중국대북·르완다·우즈베키스탄·마다가스카르), 4월15일 귀국(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제29차 4월 봄 친선예술축전(4.11~17) 폐막식, 4월 17일 김기남(당 중앙위 비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한철(문화성 부상/폐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4.17, 중앙통신·중앙방송)
- 포평혁명사적관(양강도 김형직군) 창립(64.4.15) 50주년 기념보고회, 4월 17일 진행(4.17, 중앙통신)
- 김정일 지시(4.18, 학교들에서 일정한 체육종목 전문화) 4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 4.18 청년중앙회관에서 김승두(교육위원장)·전용남(청년동맹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세계 고대 유적의 날(4.18)'을 맞아 조선도시연맹 주최로 토론회 진행(4.19, 중앙통신)
-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공연, 함흥대극장에서 연일 성황리 진행되고 있다고 선전(4.19, 중앙방송)

2 대외 관계

- “北日, 中다렌서 극비협약…납치재조사 합의임박”(4/15, 산케이신문)
 - 산케이(産經)신문은 15일 북한과 일본이 지난 12~13일 중국 다렌(大連)에서 과장급 극비협약을 개최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오노 게이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장과 북한의 과장급 당국자가 나선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의 안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은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조치의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을 진행했다고 전함.
- 北, 한미공중훈련 또 비난…“무자비한 징벌” 위협(4/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보도를 통해 한미 공군이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거듭 반발하며 “무자비한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지금 내외 호전광들은 그 무슨 ‘북의 핵시험 위협’과 ‘무인기 침투’ 등에 맞서기 위해 맥스선더 연습의 강도를 높였다고 떠들고 있다”며 무인기 침투가 북한 소행이라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날조라는 주장을 반복함.
 - 또한 “무인기 침투니 뭐니 하는 것도 제2의 천안호 사건 조작으로 다시 한 번 북남관계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유치한 음모”라며 “북침합

동군사연습을 최강도로 감행하여 전쟁도발 준비를 완성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한갓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함.

● “최소 9개 안보리 이사국이 北인권 ICC회부 찬성”(4/17,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9개국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데 적극 찬성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함.
- 뉴스는 당사국인 북한은 회의장에는 나오지 않는 대신 외교관을 보내 회의장 밖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밝힘.

● 北신문 “美, 對北 모략선전 극단에 이르러…용납못해”(4/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선전 공세를 최근 극도로 강화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미국이 선전 공세를 강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제재압살 책동’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최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도 “대조선(대북) 포위망이 붕괴될 것 같아 안달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의 선전 공세를 물리치기 위한 정치사상적 ‘공격전’을 독려하며 “미제가 반공화국 모략선전을 아무리 너절하고 악랄하게 벌여도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 北외무성 “안보리 北인권 논의는 체제 허물려는 것”(4/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노린 ‘반북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은 유엔 현장에 규제된 권능에도 어긋나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의 인권문제를 공식 의제로 취급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광란적으로 벌여놓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궁극에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함.

기타 (대외 일반)

- 美 '워싱턴포스트(WP)'의 기사(美 국가안정보장국 다른 나라의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한 달간 녹음·재생 가능)를 인용하며 "미국의 비열한 정탐행위는 인권유린과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며 '미국이야말로 세상 가장 못된 짓만 골라하는 악의 나라, 인권유린의 왕초'라고 비난(4.14, 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근 중국위인납상관(偉人蠟像館)의 장모레이(章默雷)관장에게 인민예술가 칭호를 수여(4.14, 환구시보)
-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김정은을 '명예위원장'으로 임명(4.14, 중앙통신)
- 방북(4.14) 프랑스 AFP통신사 대표단(단장 : 필립 마소네 부사장), 4월 15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미림승마구락부·문수물놀이장 참관(4.15,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기남(당중앙위 비서), 4월 14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단장 : 오가미 겐이찌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담화(4.15, 중앙통신)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14일 니카라과 대통령(다니엘 오르테가 사베데라)에게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물적 피해' 위문 전문(4.15,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리수용(외무상), 4월 14일 시리아 독립 68돌 즈음 同國 내각 수상과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에게 각각 축전(4.16,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이란 대사관 무관, 4.18 '이란 군대절' 즈음 오금철(軍 상장)등을 초대한 가운데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 개최(4.18,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18일 짐바브웨 대통령에게 독립 34주년 축전(4.18, 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의 '2014년 외교청서' 내용관련 '군국주의 우경화정책으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탈피, 군국주의 해외팽창야망 실현을 위한 조건 마련'이라고 비난(4.18,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외무성 대변인, 4.18 「중통」 대답을 통해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反北 인권소동감행'을 비난하며 이는 "우리(北)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재일본조선인대표단(단장 :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 고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등 참관(4.19,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문화전람회(4.18~28), 4월 18일 조선대외전람총국과 中 광둥성 주해시 문학예술계연합회·주해시 화원의 공동주최로 광둥성 주해시에서 개막(4.20, 중앙통신)
- 재중조선인연합회,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2주년을 즈음하여 중국 지린성 육문중학교에서 경축행사 진행(4.20, 중앙통신)
-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쥘리놉스키, 4.11)·네팔 공산당 중앙위 위원장(잘라나트 카날, 4.11)·우루과이 3월26일운동 위원장(루벤 마리아 베라, 4.12), 김일성 생일을 즈음하여 김정은에게 각각 축전(4.20, 중앙통신)
- 박봉주(내각 총리), 4월 17일 말리 수상으로 임명된 '무사 마라'에게 축전(4.20, 중앙통신·중앙방송)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조평통 “무인기 사건은 ‘제2의 천안함 날조’(4/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이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여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조평통은 또한 “남조선 보수패당의 비열한 반공화국 비방중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그에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무인기 사건’ 잇단 반박…南에 공동조사 제의(4/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4일 국방위 검열단 이름으로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를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또 신문은 진상공개장이 “‘천안호’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는 남조선의 국가안보를 총괄한다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남측을 대표하여 나오면 될 것”이라 주장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또한 국방위원회가 진상공개장을 통해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기용날자’ 등의 북한말이 적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조선말대사전에는 애당초 ‘기용’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 없다”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北역류 선교사 김정옥씨 또 인터뷰…“국정원과 협력”(4/15,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평양방송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 씨가 “국정원에서 저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고 황당한 행태”라고 전했음을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신문은 또한 김 씨가 이번 인터뷰에서 국정원 간부가 먼저 자신을 찾아와 협조를 요구했다며 “국정원이 선교사들을 협조자로 이용하고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흡수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음을 밝힘.

● **北 매체, 정부 무인기 공동조사 거부 비난 (4/1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정부가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을 ‘대남심리전’으로 간주해 거부한 데 대해 ‘악랄한 비방중상’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우리민족끼리가 “만약 이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소동이 모략이 아니라면 우리의 요구대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면 될 것”이라며 북한의 공동조사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함.

● **北, 박대통령 ‘남재준 두둔’ 비난…“남북관계 파국”(4/17,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7일 서기국 보도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남 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했다며 “이제 남조선이 파쇼와 폭압이 더욱 판을 치는 암흑천지로 전락되고 북남관계가 보다 엄중한 파국에 처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파쇼 탄압과 동족 대결의 총본산인 정보원을 해체하고 남재준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동함.

● **“남북관계 갈림길…南, 중대제안에 응해야”(4/1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8일 남북관계가 대화와 파국의 갈림길에 섰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을 요구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에 응하라고 촉구함.
 - 신문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고 비방·중상을 그만두는 것, 동족을 해치려는 외세의 침략 행위에 가담하지 말며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 조선반도 핵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우리민족끼리 협조하는 길에 나서는 것이 북남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해 남조선 현 집권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라 강조함.

- 또 “조선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에 다시금 대결과 전쟁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올 수 있는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는 매국 행위”라고 조선신보는 비난함.

● 北신문 “독수리 훈련으로 남북관계 파국…책임져야”(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남한과 미국이 독수리(FE) 합동군사연습으로 남북관계를 파국에 빠뜨렸다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함.
- 신문은 독수리 연습 종료 하루만인 19일 ‘긴장격화, 북남관계 파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은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극도의 핵전쟁 위험 속에 몰아넣고 북남관계를 다시금 최악의 파국 상태로 끌고 간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격화시키는 도발자’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도발을 계속 감행해온다면 그것을 저지시키기 위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경고함.

● 北신문, 4·19 맞아 반정부·반미투쟁 선동(4/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4·19의 항거정신은 대중적인 항쟁을 부른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의 정치 정세는 반독재 민주화의 불길이 타올랐던 50여년 전의 4·19 인민봉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이 제2의 4·19 인민봉기로 독재정권의 반역통치를 끝장내고 자주, 민주, 통일 앞길을 열어 나갈 의지에 넘쳐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힘.
- 신문은 정부가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를 부활시켰다”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드레스덴 선언과 같은 대결 계책을 내놓고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책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매체, 한미훈련 후 한반도 정세 변화설은 “궤변”(4/2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이 대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남한에서 온다며 이를 “사태의 본질과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결여된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지적함.
 - 논평은 험악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파국은 한미 연합훈련으로 비롯됐으며 “괴뢰들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이 끝났으니 북남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떠는 것 자체가 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침몰 몽골선적 화물선 北선원 시신1구 추가 송환(4/14, 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이 11일 오후 판문점과 연락관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보낸 사진 속 인물이 북측 선원이라고 확인했다”며 “오늘 오후 2시 판문점에서 시신을 넘긴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경기도 ‘개성한옥’보존 위해 北민간단체 중국서 접촉(4/1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4일 보도를 통해 경기도와 문화재단 관계자 5명이 통일부의 사전 접촉 승인을 받아 지난 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선양(瀋陽)을 방문, 북한 민간단체 관계자를 만났다고 밝힘.
 - 경기도가 한옥 보존 사업을 위한 공동 학술 조사 등을 제안했으나 “보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나 더 지켜보자”라고 답했다고 뉴스는 전함.
- **<여객선침몰> 北, 첫 보도…南 정부 간접비난(4/18,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학생과 교사 등 470여명이 탄 세월호가 지난 16일 침몰했다면서 “사고로 사상자들이 났고 수백 명의 생사를 알 수 없으며 침몰된 여객선을 끌어올리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고 전함.

- 또 남한의 한 방송사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며 남한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난함.

● **정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방북 승인(4/20, 연합뉴스)**

- 통일부는 20일 “코레일 사장과 실무진 등 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며 “방북 목적은 4월24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통일부는 “금번 방북은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회의에 제휴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방북을) 승인했다”며 “이번 방북을 통해 코레일과 OSJD 회원국 간의 철도 협력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北, 비방과 도발중지 약속 파기·내부불안 등)에 대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南 당국의 비방·중상 책동으로 남북관계는 파탄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4.17,중앙통신)
- 韓美의 ‘맥스썬더’ 연합훈련은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 행위’라며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해 우리(北)가 핵 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4.17,중앙통신·노동신문)
- 4·19혁명 54주년 관련 ‘지금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의 정보정치, 공포정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미국의 대조선 지배전략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괴뢰통치배들의 매국반역정책에 의해 4·19 봉기자들의 염원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 및 반정부·반미투쟁 선동(4.19,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北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4.14) 관련 우리 국방부 발표 및 北의 핵위협과 무인기 공격에 대비한 美·日과의 대북 공조체제 강화에 대해 ‘무인기 사건을 구실로 남북관계를 풍비박산내고 美·日 상전과 결탁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트리기 위한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라고 비난(4.20, 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4.21-04.27

4 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리모델링 마친 원산 송도원 야영소 방문(4/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강원도 원산시 소재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를 방문하여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비롯한 야영소의 여러 곳을 장시간에 걸쳐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 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말하며 야영소 공사를 진행한 군인과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당에서 아이들의 가슴마다 애국심을 깊이 심어줄 수 있게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실을 꾸릴 데 대해 지시했는데 야영소를 개선하면서 당의 의도가 관철됐다”고 말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의 야영소 방문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마원춘 당 재정경리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일환 당 부장과 전용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김 제1위원장을 영접함.
- **北 김정은, 공군 비행훈련 참관(4/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1일 “오중흡7연대칭호를 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를 찾아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조종사)대회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비행훈련을 지도했다”며 훈련 전반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2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비행훈련 참관에는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어린 시절 사진 첫 공개(4/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오후 8시 30분경부터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을 녹화중계

- 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4~5세 때로 보이는 시절에 공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 2장과 10대 때 비행기 조종간을 잡은 뒷모습 사진을 내보냄.
- 모란봉악단은 공연 마지막쯤 무대에 올린 여성중창 간주 부분에서 스크린을 통한 무대 배경으로 ‘영장의 슬하에서 흘러온 인민공군의 역사’란 제목을 넣은 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가 공군부대를 시찰하는 모습을 차례로 편집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10대 때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함.

● **北 김정은, ‘햇볕체육단’에 축구장 인조잔디 선물(4/23,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각급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소속 ‘햇볕체육단’에 축구장 인조잔디를 선물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2일 보도함.
- 선물 전달식에 리일환(黨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4/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원도 안변군에 주둔한 제7보병사단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 훈련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정해진 사격 순서와 방법대로 진행됐으며, 김 제1위원장은 훈련에 만족을 표시하고 “포병싸움 준비를 더욱 완성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여성 방사포부대 포사격 훈련 참관(4/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포사격 훈련을 지켜보고 해당 “구분대의 싸움 준비가 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며 전투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과업을 제시함.
- 김 제1위원장은 “지금 일부 지휘관들 속에서 군인들을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며 훈련을 뒷자리에 놓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군인생활 개

선을 위해 부업도 하고 부강조국 건설에서도 한몫해야 하지만 항상 싸움 준비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北김정은, 黨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인사 등 논의(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대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직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됐다”라며 이 회의에서 ‘조직문제’(인사)가 취급됐다고 전함.
- 특히 김 제1위원장은 “당 정치사업의 화력을 싸움준비 완성에 지향시켜 모든 부대, 구분대들이 당의 훈련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을 생활화·습성화·체질 화함으로써 전군에 훈련 열풍이 끓어번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통신은 26일 김 제1위원장이 군 창건일(4월 25일)에 즈음해 “서남해상의 주요 적(敵) 대상물 타격임무를 맡은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이날 훈련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포병들이 포를 잘 쏘는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포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함.
- 통신은 이날 훈련 참관에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을 비롯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인민군 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이 동행했다”고 덧붙임.

■ **김정은동향**

- 4/21,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1월8일수산사업소 시찰(4.22,중앙통신·중앙방송)
 -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등이 동행
- 4/24, 김정은 黨 제1비서, 제7보병사단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구분대의 포사격 훈련 참관 (4.24,중앙통신)
- 4/26, 김정은 당 제1비서, 軍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현지지도(4.26,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윤동현(인민무력부 부부장)이 동행하였으며, 박정천·윤영식(軍 장령들)이 영접

- 4/27, 김정은 黨 제1비서,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물 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4.27,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리영길, 장정남을 비롯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등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강반석 생일(김일성 母, 4.21) 122주년 즈음 4월21일 평양 칠골혁명사적지 '강반석 동상과 만경대 묘'에 헌화(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기남·최태복(黨 비서)·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강석주(黨 비서)·리무영(부총리)·김영대(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및 당·정권기관·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인민군·평양시내 근로자 등 참여
- 김정일 저작(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자) 발표(74.4.20) 40주년을 맞아 '지난 40년간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빛나고 있다'며 '군대와 인민의 충실성은 김정은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의리로 이어지고 날이 갈수록 더욱 승화되고 있다'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
- 황병서에게 조선인민군 차수 칭호 수여, 4월26일 黨 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결정 발표(4.28, 중앙통신)

나. 경제

- 北 당국자 “단둥 출발 중국인 자가용 관광 곧 개시”(4/21, 요녕조선문보)
 - 평안북도 관광총국 최정호 국장은 지난 17일 단둥에서 열린 ‘단둥신의주식당’ 개업식에 참석해 “자가용 관광과 신의주 2일 관광을 곧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인 요녕조선문보가 21일 전함.
 - 이번에 단둥에서도 북한 자가용 관광이 허용되면 북-중 사이에 두 번째로 열리는 자가용 관광코스로 최 국장은 “평안북도와 단둥국제여행사가 700만 달러를 투자한 동림폭포 주변의 동림리조트가 오는 6월 개업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해 압록강변의 신의주에서 동남쪽으로 40km가량 떨어진 평안북도 동림군 일대가 자가용 관광코스로 유력시된다고 신문은 전함.
-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14개국 290개 기업 참가”(4/22, 조선신보)
 - 북한이 내달 12~15일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를 연다고 조선신보가 22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올해 14개국에서 290여개 기업이 참가 의향을 밝혀 작년 12개

국 140여 개보다 크게 늘었다며 “서방 언론들의 악선전과 달리 급속도로 성장하는 조선 경제에 대한 해외 경제인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이번 전람회에는 기계, 금속, 전기, 건설, 광산, 에너지, 환경보호, 운송 등에 관한 상품과 기술이 출품될 것으로 전함.

● **北 박봉주 내각총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시찰(4/22, 조선중앙통신)**

- 박봉주 내각총리가 평안남도 순천지구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함.
 - 박 총리 주재로 현장에서 열린 협의회에서는 각지 건설장들에 더 많은 시멘트를 보급하기 위해 설비를 완전가동하고 관련 단위에서 생산에 필요한 전기와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고 전함.

● **스웨덴 적십자사, 대북 지원사업에 50만유로 제공(4/24,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적십자사가 북한 평안남도 지역의 재난 극복 및 영양상태 개선 사업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에 50만 유로(약 7억2천만 원)를 제공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4일 전함.
 - IFRC와 스웨덴 적십자사는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3년간 평안남도 북창군과 은산군 지역에서 재난관리와 식량안보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재난 극복을 돕고 영양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 지린성, 북한에 ‘백두산 자가용 관광’ 제안(4/24, 연합뉴스)**

-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정보센터 지린성 여유국 자오샤오쥘(趙曉君) 국장이 지난 16일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북한 국가관광총국 리응철 관광지도국장을 만나 지린성 창바이(長白)현과 안투(安圖)현에서 각각 출발하는 두 갈래의 백두산 자가용 관광코스 개통을 제안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 투먼-북한 온성 ‘자전거 관광’ 내달 2일 개시(4/26, 연변정보향; 연합뉴스)**

-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門)시에서 출발하는 중국인

대상 ‘북한 자전거 1일 관광’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고 연변정보항(延邊信息港)이 26일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중은 그동안 운영해온 투먼과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잇는 도보 관광코스에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자전거 관광코스를 마련했으며, 관광객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솔자와 함께 투먼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두만강의 교량을 건너 뒤 남양 기차역, 항미원조열사기념비, 김일성 주석 동상, 시장 등을 둘러보고 북한 측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고 뉴스는 전함.

● 北 1~3월 중국산 곡물수입, 작년 절반으로 감소(4/27, 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이 작년의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27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3월 중국에서 들여온 곡물은 밀가루 2만3천636t, 쌀 1천241t, 옥수수 1천192t 등 모두 2만6천263t으로 이는 북한이 작년 같은 기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 5만4천178t의 48%에 불과하고, 2012년 4만1천156t과 비교해도 40% 가까이 낮은 수치임.
- 또 1분기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액은 1천193만 달러(약 124억원)로 작년 2천471만 달러(약 257억)에서 52% 줄었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세계식량계획(WFP)은 작년 11월 북한의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곡물 생산량을 503만t(도정 후 기준)으로 전년보다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내 경제)

- 중국 단둥시 “자가용 북한관광 6월 개시 추진”(4.22,중국신문사)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4월 23일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4.23,중앙통신·중앙방송)
- 北-사할린, 무역경제협조 의정서 조인(4.24,중앙통신)

다. 군사

● 北, 건군절 맞아 軍의 ‘수령결사옹위’ 강조(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인민군 창건 82주년인 25일 1면 사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꿰뚫이 이어나가는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의 수뇌부 옹위의 제일결사대”라며 “오늘도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 사수, 수령 보위의 전초선에서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수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수뇌부 옹위전”이라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혁명무력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근본 담보”라며 군이 ‘김정은 결사옹위의 전위대’가 돼야 한다고 역설함.

● 北 주민, 건군절 맞아 군부대 위문(4/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창건 82주년을 맞아 주민 대표단이 군부대를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군인들이 부대를 방문한 주민 대표단들을 반갑게 맞았으며,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내는 선물도 전달됐다고 전함.

● 北, 김정일군사연구원 준공(4/26,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창건 82주년인 25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이 개축 작업을 마치고 준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은 준공사에서 “군사연구원이 군사 지휘관 양성의 최고전당으로 전변된 것은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연구원에서) 뜻과 정을 같이하는 의리의 인간,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영웅적 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싸움꾼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기타 (대내 군사)

- 北 인민군 창건 82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개최(4.25, 중앙TV)
- 김영남·박봉주를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5, 중앙방송)
- 김영남·박봉주·장정남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 4월 25일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애국열사능·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헌화(4.25, 중앙통신·중앙방송)

라. 사회·문화

- **北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 개발자 홍완태 사망(4/21,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정주 가금 생물약품연구소 연구사 홍완태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홍 박사는 2005년 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을 때 예방약을 개발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전해짐.

- **“北, AI로 닭 11만마리 소각·매몰”(4/22, 조선신보)**
 - 북한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4월 5일 기준 약 11만 마리의 닭이 소각되거나 매몰됐다고 조선신보가 22일 평양발로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AI가 발생한 평양 하당 닭공장과 서포 닭공장에서 각각 8만 4천900여 마리와 2만 3천550여 마리의 닭이 소각·매몰됐다고 전함.

- **“美 민간단체 건립 지원 평양결핵연수원 내달 개원”(4/2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민간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건립을 지원해온 북한의 평양 결핵연수원이 다음 달 5월 완공돼 첫 교육에 들어간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이 단체는 현재 결핵연수원 공사가 약 95% 진행돼 막바지 작업을 남겨둔 상태라며 내달 중순 방북해 중국에서 주문한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결핵연수원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조류인플루엔자 황해북도로 확산”(4/23, 미국의소리(VOA))**
 - 북한은 지난 22일 리경군 농업성 국장 명의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황해북도 황주군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전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황주군 룡궁리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AI로 닭과 거위 501마리가 감염됐으며 이 중 136마리가 폐사하고 365마리는 매몰시킴.

- 북한 당국은 AI 발병 지역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치료하지는 않고 있다고 VOA가 설명함.

● “1~3월 중국 방문 北 주민 약 6% 감소”(4/2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RFA는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이 2011년 15만2천300명, 2012년 18만600명, 2013년 20만6천6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해왔다며 지난 1분기 방문객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 지난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가운데 취업 목적의 방문자는 2만900명으로, 48.4%, 회의·사업, 여행·관광 목적의 방문자는 각각 8천600명(19.9%), 400명(0.9%) 성별로는 남자가 3만4천600명으로 80.1%에 달한 것으로 전함.

● “北주민 영양상태·정보화 수준 세계 최저”(4/25,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와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세계은행이 최근 공개한 ‘2014년 세계발전지표’ 보고서를 인용해 전함.
-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최근 3년 연속 5%씩 증가했지만, 식량부족 상태는 여전한 것으로 북한 주민 3명 중 1명은 건강 유지를 위한 영양분 섭취를 하지 못한다고 RFA는 전함.
- 또 북한 주민의 휴대전화 보유 비율은 2012년 기준으로 7%에 불과해 동아시아지역 평균 수치인 89%에 비해 매우 뒤떨어졌으며 세계은행이 집계한 200여 개국 중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통제하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전함.

● 北 말라리아 감염자 2년 연속 증가(4/26, 미국의소리(VOA))

- WHO가 최근 발표한 ‘2013년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는 2만 1천850명으로 이는 2011년 1만 6천 760명보다 5천90명 늘어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함.

- 북한에서는 1970년대 말라리아가 없어졌다가 1998년 2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했다가 2001년 11만 5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2007년까지 계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WHO는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 국가로 분류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평양시를 훌륭히 꾸리는 것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권위와 잇닿아있는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모든 평양시민들이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당의 문명국건설 구상을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4.2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종합대학, 체육선수들의 훈련에 도움을 주는 기재와 프로그램 개발 선전(4.22, 중앙통신)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막식, 4월 23일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 전시관에서 진행(4.23, 중앙통신·중앙방송)
-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2차 경기(4.25~5월중순), 김일성경기장과 서산축구경기장에서 진행(4.25, 중앙방송)
- 정인순 선수, ‘2014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4.23~27, 카자흐스탄) 여자레슬링 55kg경기에서 금메달 획득(4.26, 중앙통신·중앙방송)
- 로영명(男, 청소년 B급)·로향미(女, 청소년 A급)·김은향(女, 청소년 B급) 선수, 2014년 국제빙상동맹발전컵 피겨경기대회(4.26, 필리핀) 개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 쟁취(4.27,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오바마 아시아 순방 앞두고 ‘애포 중시전략’ 비난(4/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담화를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외무성 대변인은 “오바마의 이번 행각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실행의 일환으로서 가뜰이나 불안한 이 지역에 대결과 핵 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위협천만한 행보”로 “미국이 유라시아대륙의 큰 나라들의 반발을 막으려고 우리의 ‘핵·미사일위협’, 그 무슨 ‘도발’을 구실로 내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그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억제력을 다지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공화국의 정책적 입장”이라고 밝힘.

- **北 신문 “美, TPP로 아태지역 경제적 지배 노려”(4/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협상마당에 떠도는 알뜰(알력)과 대결 기운’이라는 글에서 최근 TPP 체결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리하게 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난함.
 - 신문은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저들의 상품시장으로, 자본투하지로 전변시키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미국 독점자본에 복무하는 하나의 부속물로 만들자는 것, 이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미국이 노리는 목적”이라고 지적함.

- **“北, 작년 유엔 투표서 미국에 최다 반대”(4/21,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3년 유엔에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장 많이 낸 국가는 북한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3년 유엔 투표 보고서’에서 작년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84차례 투표에서 북한은 52차례 미국과 다른 의견을 표시, 유엔 회원국 192개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힘.
- 북한은 미국 정부와 직접 연관된 안건 11건 중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 시리아 인권 등 7건에서 미국과 반대쪽으로 투표했고 무기거래협약, 군비 투명성 등 4건의 안건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권했다고 RFA는 설명함.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는 “체제대결 선전포고”(4/21,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문제와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체제 대결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는 “우리를 반대하는 인권모략의 국제적 거점을 저들 땅에 만들어놓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이며 특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직접 겨냥한 극악한 도발 광란을 일층 강화해보려는데 그 흉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는 데 대해 우리 천만 군민은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함.

● 北,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반인권 범죄자” 비난(4/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커비 위원장이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개입과 가해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한 것을 거론하며 “커비 패당이야말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의도적으로 자주적인 주권국가의 영상(이미지)을 훼손시킨 최악만으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충분한 극악한 반인권범죄자들”이라고 밝힘.
- 통신은 커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불순하고도 위험천만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며 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인간추물들의 비열한 조작품”이라 비난함.

- 北 “미국인 관광객 1명 억류” 발표(4/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밤 발표한 ‘보도’에서 “해당 기관에서는 지난 10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입국 검사과정에 망동을 부린 미국 공민 밀러 매슈 토드를 억류했다”고 전함.
 - 이어 “그는 입국 과정에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한 관광증을 찢어버리면서 ‘망명을 하겠다’, ‘피난처로 정하고 왔다’고 고아대며(떠들어대며) 우리의 법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소개함.

- 北 “美 대북압박 수위 높이면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한미 연합 군사연습이 얼마 전에 전부 끝났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의 수위를 계속 높인다면 이전보다 더 강력한 자위적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밝힘.
 - 신문은 27일 ‘힘의 정책으로 얻을 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일당도 미국의 주변을 맴돌면서 동족 상쟁의 비극을 몰아오려고 날뛰는 것이 머저리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함.

- 北, 한미정상회담 원색 비난…“남북관계 더 기대안해”(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7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박근혜는 오바마를 만나 우리 핵과 병진노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시비질하면서 온갖 악담을 다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박근혜는 이번 행실로 북남화해에 기초한 평화통일이냐, 체제대결에 의한 전쟁이냐 하는 우리의 물음에 전쟁으로 대답했다”고 주장하고, “박근혜에게는 이제 다른 약이 없다”며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등지를 틀고있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무엇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함.
 - 성명은 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북남 전면대결을 선언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라며 “박근혜는 이번에 반통일의 길, 반평화의 길, 대결과 전쟁의 길을 택한 것으로 하여 그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태양절 경축' 재일본조선인 대표단 면담(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 대표단(단장 : 리창근 黨 부부장), 4월21일 방글라데시 노동당 제9차 대회 참석차 평양 출발(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 의원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과 일행, 4월21일 평양 도착(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 사할린주 정부대표단(단장:가흐 엘레나 니콜라예브나 경제발전성 부상), 4월21일 평양 도착(4.2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4월 2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그리스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담화(4.22, 중앙통신·평양방송)
- 철도협조기구위원회 대표단(단장: 쇼스다 타데우스위원장)과 폴란드 철도대표단, 4월 22일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 회의에 참가차 평양 도착(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駐北 팔레스타인 대사, 4월 22일 대사관에서 연회 마련(4.22, 중앙통신)
 - 최태복(黨 비서), 태형철(교육위 고등교육상), 현상주(「직총」중앙위원장) 등 초대
- 영국 레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의원 일행, 4월 22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4.22,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가 일본이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폐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의 군국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무모한 처사'라며 '일본을 돌격대로 하여 아시아 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범죄적 책동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4.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중국 국가관광국 친선참관단(단장: 두일력 부국장), 4월 25일 평양에 도착하여 만수대연덕 김父子 동상에 헌화(4.25,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국무부의 '北 인권, 민주주의 증진 사업 공개모집' 및 선정단체 35만US\$ 지원에 대해 '우리(北)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 앞에 공포를 느낀 미국의 대북 인권 모략책동의 보다 노골적인 단계'라며 '쓰레기 단체들을 내몰아 우리 내부를 꺼꾸러뜨리려는 미국의 추악한 속심'이라고 비난(4.26, 중앙통신)
- 철도협조기구 제29차 총사장회의, 4월24일~27일 평양에서 진행 및 '2013년도 화물·여객수송 등 철도협조기구위원회의 사업정형에 대한 총화 및 의정서' 채택(4.27,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풍계리 핵실험장 가림막 설치·차량움직임 증가”(4/21, 연합뉴스)
 -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 등의 특이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1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특정 궤도에 가림막으로 보이는 물체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 최근 들어 차량의 움직임이

몇 달 전보다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장비와 자재 반입 활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함.

● 유엔 핵실험금지지구 “北 징후 상시 감시”(4/23,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 속에서 유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가 북한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함.
- 토머스 뮌젤부르크 CTBTO 대변인은 RFA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회원국에 보고하는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관측소를 최근에 새로 가동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 300개가 넘는 관측 시설에서 북한의 핵실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힘.

● 박대통령, 시진핑과 통화…‘北핵실험 중단’ 설득 요청(4/23,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40여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잦은 핵실험 징후 등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박 대통령이 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독일 국민방문시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와 경제지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함.
-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에서 긴장 고조를 막는 것은 한중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측간(관계 당사국간) 대화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고, “북한의 핵보유 반대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서로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한반도 자주 평화통일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 北 통신 “핵·경제 병진노선 관철 막을 자 없다”(4/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23일 ‘조선노동당 병진노선의 승리를 담보해주는 사상의 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길이 자주와 평화, 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며 “사상의 힘이 떠밀고 있는 이 대진군의 최후 승리는 필연적”이라고 밝힘.
- 통신은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입만 벌리면 조선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병진노선)을 걸고들며 그 무슨 ‘핵포기’와 ‘민생’에 대해 악랄하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병진노선의 관철은 남들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제국주의와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이라며 “한번 선택한 이 진리의 길을 조선은 추호의 동요 없이 가고 있다”고 강조함.

● 조선신보 “‘북핵실험설’은 南 당국의 위기수습책”(4/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민심의 분노’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남조선에서는 당국이 내들리는 ‘북핵실험설’도 ‘대북정보’라는 것이 첨부돼 언론을 통해 확산됐는데 이는 사람들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기 위한 고식적인 위기수습책의 하나”라고 주장함.

■ 기타 (북핵)

- 韓美 ‘통합 국방협약체(KIDD)’회의 진행(4.15~16, 美 워싱턴DC 펜타곤) 및 ‘맞춤형 억제전략’의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 등 관련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상전과 주권의 범죄적 모의’라고 비난하며 ‘미사일발사훈련과 핵시험 예고는 자위적 대응조치’라고 정당성 주장(4.22, 중앙통신·민주조선)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매체, 한미훈련 후 한반도 정세 변화설은 “궤변”(4/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0일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이 종료되고 나서 북한이 대화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남한에서 나온다면 이를 “사태의 본질과 초보적인 현실감각마저 결여된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지적함.
 - 논평은 이어 “괴뢰패당이 외세에 추종하여 감행하는 동족 압살과 모략소동이 사라지지 않는 한 조선반도 정세는 언제 가도 안정될 수 없고 북남 사이의 현 상황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박대통령에 공개질문장…“평화통일이냐 전쟁이냐”(4/23,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문장’을 발표하고 오는 8월 예정된 한미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용의가 있는지, 5·24조치 철회 생각이 있는지, 서해 평화수역 조성 의향이 있는지 등 10개 질문에 박 대통령이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박 대통령이 진실로 북남 사이에 신뢰를 도모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해야 한다”면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함.

- **北 “기존 합의부터 이행하라”…드레스덴 선언 비난(4/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겨레의 통일 지향을 우롱하는 대결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집권자는 통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민족공동의 통일 대강부터 잘 알아야 한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대로만 한다면 북남관계 개선의 넓은 길이 열리게 된다”고 전함.
 - 신문은 드레스덴 선언이 인도적 문제의 우선적 해결과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 등을 제시한 것이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알짜

무식쟁이의 잠꼬대 같은 수작”이라며 “북남관계 개선의 근본 문제는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는 것”임을 강조함.

- **정부 “北 공개질문장, 기존입장 반복…대응필요 없어”(4/24,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4일 통일부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전날 보낸 공개질문장에 대해 “기존 북한 입장을 반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北, 무인기 사건 또 비난…“천안함 복사판”(4/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내외의 조소를 자아낸 유치한 모략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얼마 전 괴뢰들이 들고 나온 무인기 사건의 ‘복소형설’이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동족대결모략극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무인기가 북한산이라는 근거로 국방부가 제시한 군사시설 촬영 사진, 북한말 ‘기용날자’ 등은 엉터리라며 “괴뢰패당은 사건을 조선반도의 긴장 상태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화국 대결소동을 한층 강화하는데 적극 써먹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에게 북남관계 파국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보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함.
- **北어업지도선 2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받고 돌아가(4/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어선을 단속하는 북한 단속정 2척이 오늘 새벽 4시35분부터 차례로 서해 NLL 소청도 부근 해역을 1노티컬마일(1.8km) 침범했다가 5시3분께 돌아갔다”고 합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합참 관계자는 “우리 해군 함정은 단속정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기 직전부터 ‘내려오지 마라’고 경고통신을 6회 실시했고, 계속 남하하자 76mm 함포로 경고사격을 한 차례 실시했다”고 밝혔으며 북한 단속정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에 놀라 이내 북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자위권 포기 안해…적대세력 도전엔 초강경 대응”(4/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정부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하고 미국, 일본과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방안을 논의한 데 대해 “자주적 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26일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자주적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세력의 도전에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한 외무성 성명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불순한 목적 밑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사태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을 맞받아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매체, ‘좌파 발언’ 한기호 비난(4/2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때아닌 중북 소동, 응당한 귀결’이라는 글에서 새누리당 한기호 최고위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쓴 것에 대해 “그야말로 새로운 중북소동, 현대판 매카시즘 광기의 발로”라고 주장함.

● 北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南 설치는 용납 못 할 도전”(4/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정세 파국을 몰아오는 분별없는 망동’이라는 글에서 “남조선 당국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더욱 엄중한 사태로 몰아가는 극도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세월호 침몰 사고에 심심한 위로”(4/2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3일 4시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강수린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뜻이 담긴 전통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전달해 왔다고 통일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 **통일부, 어린이 의약품 대북지원 승인(4/24, 연합뉴스)**

- 통일부가 민간단체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했음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 단체가 해열제와 진통제, 감기약, 수액 등 의약품 7천500만원어치를 평양의 어린이 병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함.
- 이에 따라 올들어 정부가 승인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지원(총액 기준)은 20억2천500만원 규모로 늘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南 민간단체에도 위로 전문(4/2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5일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24일 팩스로 남측 민화협 앞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힌 전문을 보내왔다고 보도함.
- 민화협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승객이 참사를 당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라며 “피해 유가족들의 슬픔이 하루빨리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힘.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도 24일 6·15 남측위원회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앞으로 각각 팩스를 보내 애도의 뜻을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본격 추진(4/27, 연합뉴스)**

- 정부가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의 본격 가동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일단위 상시 통행을 위한 통행 분야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통지문을 지난 22일 북측에 전했다”고 밝힘.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04.28-04.30

4 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김정은, 완공된 평양방직공장 기숙사 시찰(4/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노동자 합숙(기숙사)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4월 26일 차수로 승진한 황병서와 박영식 중장, 마원춘 노동당 부부장이 수행한 것으로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기숙사의 현관홀, 침실, 도서실, 목욕탕, 식당, 공원 등의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정말 기분이 좋다”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 일떠섰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TV에 김경희 모습 다시 등장…숙청 여부 불분명(4/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오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체육 관련 활동을 담은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어’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김 제1위원장이 축구경기장을 찾은 장면에서 김경희의 모습을 두 차례 그대로 내보냄.
- **北, 내각 부총리에 김덕훈 임명(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김덕훈 동지가 임명됐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전함.

김정은동향

- 4/30,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을 시찰(4.30, 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박영식, 마원춘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당의 노선과 정책을 온 나라 인민들 속에 신속 정확히 전달·침투시키며 모든 선전선동역량과 수단,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자’며 ‘당 사상일꾼들이 사상사업을 보다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갈 것’을 독려(4.28,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김정일의 자강도 강계청년발전소 현지지도('64.4.29) 50주년 기념보고회, 4월 29일 진행 (4.29, 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발표('74.4.9) 40주년 기념 전국의학과학 토론회, 4월29일~30일 평양에서 진행 및 400여건의 의학과학논문들 발표(4.30, 중앙통신)
- 김정일의 평양제1중학교 현지지도('84.4.28) 30주년 '수재교육성과전시회 및 경험발표회(4.28~30, 교육성과자료 900여건 전시 등)도 진행(4.30,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경제대표단, 나이지리아 방문(4/28,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의 경제대표단이 북한-나이지리아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8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대표단이 회의 참석과 함께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함.

● 러시아 부총리 방북...극동지역 경제 협의할 듯(4/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8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그 일행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사업 책임자로 이번 방북 기간 러시아 극동 지역 개발을 포함한 양측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러 부총리 방북...北과 경제협조 합의서 조인(4/28, 조선중앙통신)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 일행이 28일 북한을 방문해 “공화국 무역성과 러시아 연방 아무르주 정부 사이의 무역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인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합의서 조인식에는 북한 측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궁석웅 외무성 부상, 임천일 러시아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이, 러시아 측에서는 트루트네

프 부총리,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북 러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통신은 전함.

- 또한 같은 날 북한 철도성과 러시아 ‘모스토비크’ 과학생산연합체는 철도 운수부문 협조에 관한 문건에 조인했으며 “러시아 정부에서 조선에 소방차들을 기증했다”고 통신은 밝힘.

- **北, 수출 겨냥 ‘품질메달’ 제정…첫 대상은 평양酒(4/29, 조선중앙통신)**
 - “조선(북한)에서 12월15일품질메달이 제정됐다”며 이는 “국내 최우수 제품들에 수여하기 위해 제정한 메달”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12월15일품질메달’은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들 중에서 질이 높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제품”과 “2월2일 제품이면서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들이 실지 덕을 보는 제품”에 수여된다고 통신은 소개하며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은 첫 제품은 평양주(酒)로 결정됐다고 전함.
- **“北-러시아, 무역 결제에 루블화 사용 준비 합의”(4/30, 러시아의소리방송)**
 - 방북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 대표가 평양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와 양국 간 무역 결제를 루블화로 준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러시아의소리방송이 30일 전함.
 - 방송은 또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로두철 부총리와 양국 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력을 목표로 정기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함.

다. 사회문화

- **北 탁구선수단장 “자기 실력만 발휘하면 충분히 이겨”(4/28, 조선신보)**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장 주정철 북한 탁구협회 서기장은 대회 개막일인 28일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선수들의 사기가 높다며 “자기 실력만 발휘한다면 예선 리그경기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전함.

- **“FAO, 北 구제역 표본 채취…백신 처방용”(4/30,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소 구제역 발생 지역에 실사단을 보내 구제역 감염 소의 바이러스 표본을 채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채취한 표본은 중국 소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 실험실로 보내져 적합한 백신을 가려내는 데 쓰일 것으로 전함.
 - FAO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 35만-40만 달러(약 3억6천만-4억1천만원)를 배정하고, 예방조치 강화, 백신 제공 등 지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RFA는 전함.

- **北, 약초증산 독려…“군중적 운동 전개”(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4월과 5월은 약초재배월간”이라며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약초재배월간 지휘부가 조직되고 재배사업이 군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국가우표발행국, 노동당 제8차 사상일꾼대회를 반영한 새 우표(개별우표 1종)와 훈민정음 창제 570주년에 즈음한 우표(개별우표 1종)를 발행(4.28, 중앙통신)
- 北, 음상전자합영회사에서 만든 숫자식 전자피아노(소백수 3, 4, 5형)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선전(4.28, 중앙통신)
- 위원회·성·중앙기관 일꾼 배드민턴 경기, 4월 21일~29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4.29, 중앙통신)
- 평양과 각지에서 ‘지피식물을 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4.29, 중앙통신)
-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1, 개막) 폐막식, 4월30일 평양체육관에서 김기남(黨 비서)·김용진(내각 부총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4.30, 중앙통신·중앙방송)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방북 러 부총리, 北 박봉주 총리 면담(4/29, 조선중앙통신)**
 -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방북 이틀째인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박봉주 내각 총리를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트루트네프 부총리와 박 총리의 면담에 리룡남 무역상과 궁석웅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함께한 것으로 보도함.

- **北 김영남 “러시아, 우크라 사태서 이익 지켜야”(4/30, 이타르타스통신)**
 - 이타르타스통신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0일 방북 중인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계속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과 서방이 배후에서 조종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민족자결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서방의 반(反)러시아 움직임 속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엄 있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중국 국가관광국 친선참관단(단장: 두일력 국장), 만경대와 개선문·미림승마구락부·메아리사격관 등을 방문하고 우의탑에 헌화(4.28, 중앙통신·중앙방송)
-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4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국제양궁연맹 회장(우거 에르데니)과 담화(4.29,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해군의 레이저포를 갖춘 함정을 실전 배치하고 각종 시험 진행 계획에 대해 “인류의 평화염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이 무장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노리는 목적은 세계 지배전략 실현에 있다’고 주장(4.29, 중앙통신·민주조선)
- 3월 <월간국제정세> 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관련 나토(NATO)의 동쪽으로 확대 움직임’과 특히, 오바마 美 대통령의 한·일 순방은 ‘反北 3자 공조강화 목적’이라고 自評 및 ‘反帝투쟁과 자위적 국방력 강화’ 주장(4.30, 중앙방송·노동신문)

- 최근 미국의 '공민권법제정' 50주년 기념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인권유린국, 인간생존권의 동토대"라며 '인종차별, 실업·빈곤·총기류범죄 증가' 등 거론 및 조소(4.30, 중앙통신)
- 北 노동당 대표단(리창근 부부장 등, 방글라데시 노동당제9차 대회 참석), 4월24일 방글라데시 노동당 위원장(라셰드 칸 메논) 면담(4.30,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주한 中대사 “핵실험 위협 반대…北 설득 많은 노력중”(4/28, 연합뉴스)**
 -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28일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갖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또한 추 대사가 “북한이 과연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국들의 공통 노력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국들은 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오바마 亞순방 비난…“핵실험 시효 없어”(4/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노골적인 대결행각’이라고 비난하며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는 이상 우리는 핵 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고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핵실험 의도적 지연·기만 배제못해”(4/30, 연합뉴스)**
 -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상당히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김장관은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기습적인 실험이 가능

하고, 정치적 결심만 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도 풍계리 문제는 매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한미훈련 중단해야…남북관계 南에 달렸다”(4/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말장난을 그만두고 제 할 바를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를 바란다면 ‘남북관계 완화 가능성’을 운운하는 허튼 말장난은 그만두고 무엇보다 미국과 함께 벌이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부터 전면 중지해야 한다”며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힘.
 - 신문은 UFG 연습이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전쟁 불장난 소동”이라며 “이 전쟁 연습의 강행으로 북남관계는 또다시 모진 시련을 겪게 될 것이며 핵전쟁 발발의 위기는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 “北 욕설과 막말, 패륜 그 자체”(4/28, 연합뉴스)
 - 정부가 28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북한이 남북간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먼저 깬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막말을 계속하는 것은 패륜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또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 주민을 돕고자 민족애에 따라서 상생의 길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억지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의 노력과 제안을 걷어찼다”면서 “민족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식 이하의 행태를 버리고 민족화합과 상생을 위한 길로 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함.

- **北, ‘서해 NLL 인근 해상 2곳서 오늘 사격훈련’ 통보(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합참이 29일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가 오늘 오전 8시52분께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전통문을 보내 NLL 인근 사격훈련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음을 보도함.
 - 북한이 통보한 내용은 29일 중 백령도 동방지역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서북방 지역인 장재도 등 NLL 이북 2개 지역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참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사격훈련 여부와 낙탄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국방부 “北 NLL 해상사격훈련은 다분히 도발적 의미”(4/29, 연합뉴스)**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사격훈련 계획을 통보한 것에 대해 “만약 북한이 지난달 처럼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사격할 경우에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 연일 대남 비난…“체제대결 책동 용서 안 해”(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체제대결, 전쟁을 바라는가’라는 글에서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주장함.
 - 이어 “외세를 업고 일방이 타방을 먹는 체제통일은 결코 통일이 아니며 오히려 민족적 재난”이라며 “북과 남이 서로 자기의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체제통일이 초래할 것은 전쟁 밖에 없다”고 신문은 강조함.
 - 또 신문은 박 대통령을 향해 체제대결과 전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하며 “체제대결 책동에 미쳐 날뛰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고 밝힘.

- **北, 서해NLL 인근서 50여발 해상사격…NLL은 안넘겨(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합참이 “북한군이 29일 오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했다”면서 “해안포 50여발을 사전에 통보한(NLL 북쪽)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 합참에 의하면 북한군의 사격은 29일 오후 2시5분부터 5분간 연평도 서북방 해상으로 총 10여분간 이뤄졌으며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NLL 북쪽 3km 지점에 떨어졌다”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에 떨어진 포탄 수는 비슷하다”고 전했다고 뉴스는 전함.

나. 경제사화문화

● 한인 경제인, 투자 진출 모색차 첫 개성공단 방문(4/29, 연합뉴스)

- 세계 68개국 13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회장 김우재) 회원 21명은 오는 5월 2일 하루 동안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해 투자 및 구매 가능성을 조사하고 현지 공장 설립 등을 타진한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뉴스는 또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3명도 5월 2일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과 함께 방북하기로 했다고 전함.

● 北신문 “南 정부 무능력 드러나”(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드러난 무능력, 어처구니없는 대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많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국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 방송을 인용,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의 구조작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구조 인원 등의 통계 발표도 오락가락했다고 지적하며 해외 언론도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남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한 기사를 소개함.

● 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 개성공단 방문(4/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통일부기한독상공회의소 소속 기업인 42명이 29일 당일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고 보도함.
- 뉴스는 이들이 개성공단 정배수장 등 기반시설과 대표 입주기업을 둘러볼 예정인 것으로 전함.

- **北, 세월호 참사 거론하며 “南은 인권불모지” 비난(4/29, 연합뉴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과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이름으로 29일 발표된 ‘남조선 인권백서’는 “얼마 전에는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돼 많은 학생을 비롯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이번 대형사고는 전적으로 괴뢰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이 빚어낸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백서는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를 시비하기 전에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 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패당은 비열한 반공화국(반북) 인권모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뉴스는 전함.

- **탈북단체 파주시 초코파이 매달 풍선 北에 띄워(4/29, 연합뉴스)**
 -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한 29일, 탈북자 단체인 탈북자동지회는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주차장에서 북한자유주간(4월 27일~5월 4일)을 맞아 오후 2시부터 40여분 간 초코파이 2천500여 개를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으로 띄웠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조평통 “오바마 반환 문화재 ‘北약탈’ 주장은 도발”(4/30,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에 반환한 9점의 문화재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약탈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6·25 전쟁 때 미군이 ‘노략질’한 것이라며 “얼토당토않게 괴뢰 청와대가 나서서 이번에 오바마가 반환하는 문화재가 전쟁 때 북이 약탈해간 것이라고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었다”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함.
 - 조평통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도 미군이 이들 문화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유독 청와대만이 ‘북 약탈’ 설을 내돌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패당이 얼마나 추악한 사대매국노이고 동족대결광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3·4월

북한동향 일지

〈3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3/3,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평양약전기계공장 현지지도
3/4,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中 '쿤밍테러'에 위로전문
3/7,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오중흠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2620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및 군부대 시찰
3/7, 중통·중방	北 최고인민회의의 13기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 공시
3/9,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김일성정치대학에 마련된 제105호구 제43호분구 선거장에서 투표를 하고 대학을 시찰
3/9, 중통·중방	北 최고인민회의의 13기 대의원 선거 마무리
3/10, 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 첫 선출
3/11,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경연에 당선된 인민군 제567·제324·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 관람 및 창작가·예술인들에게 '특별 감사' 전달
3/12,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군사학교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3/12,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중앙동물원' 방문
3/13, 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함경북도 송배전부 부지배인 '김금석' 등)에게 감사 전달
3/16, 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 미얀마·시리아·우간다 대통령의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72주년 즈음 축전에 대한 답전 발송
3/17,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지도 밑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의 진행
3/17,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 비행훈련 지도
3/17,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군중·군단급 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3/17,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3/17, 중통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에 위치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에서 요해
3/19,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김정숙해군대학과 김책항공군대학(종합우승) 교직원들의 사격경기 지도
3/20,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강태호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3/20, 중통	중국 우다웨이(6자회담 수석대표)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그 일행이 김명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만나 담화
3/22,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현지지도
3/22, 중통·중·평방	최룡해(軍 총정치국장),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정형 현지 요해
3/23, 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4·25문화회관에서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3/23,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정형을 현지에서 요해
3/24, 중통	박봉주(내각총리), 중앙동물원 개건현장 현지요해
3/25, 중통	김정은 당 제1비서의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 선물(컴퓨터·륜전기재 등) 전달 모임

3/26,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 11월2일 공장 현대화에 이바지한 내각 사무국 등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3/28, 중통·중방	박봉주 내각 총리,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정형 현지 요해
3/30, 중통	전국 『직맹』 선전일꾼회의, 3월 30일 현상주(『직총』 중앙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

<4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4/1, 중통	「직총」 중앙위 제7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1. 평양에서 진행
4/1, 중통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4월 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 駐北 아일랜드공화국 대사의 신임장 접수 및 대사와 담화
4/2,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1.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3.23~)에 참가한 軍 연합부대 지휘관들을 현지에서 만나 고무 격려
4/2,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 예정인 모란봉악단의 공연 관람
4/2, 중통·평방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연안군·청단군·배천군 內 협동농장들의 영농실태를 현지요해
4/2, 중통	「농군맹」 중앙위 제6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4월 2일 평양에서 진행
4/4, 중통·중방	박봉주(내각총리),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건설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구장시멘트공장’을 찾아 발전소건설장에 요구되는 시멘트를 보장해줄 데 대해 강조
4/5, 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에 운전기재 전달
4/6,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갈매기팀 對 제비팀의 남자축구 경기
4/7,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군인들과 함께 여자 축구경기를 관람
4/8, 중통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 김정은 지도하에 개최
4/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 13기 제1차 회의 진행
4/9,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
4/11,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10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들과 만수대언덕 김 父子 동상 앞에서 기념촬영
4/15,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 생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4/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개회사/개.폐회선언)가 참가한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4월 15일 진행
4/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4월 16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관람
4/2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17일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
4/21,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리모델링 마친 원산 송도원 양영소 방문
4/22,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4월 21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부대를 찾아 비행훈련을 지도
4/22, 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햇불체육단’에 축구장 인조잔디 선물
4/24, 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제7보병사단 제851군부대 산하 여성 방사포구분대의 포사격 훈련 참관

4/25, 중통·중방	김영남·박봉주·장정남을 비롯한 당·정·군 간부들, 4월 25일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애국열사능·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헌화
4/26, 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軍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현지지도
4/27,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서남해상의 주요 적대상물 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
4/30, 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을 시찰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